

# 8

August 2023  
Vol.380

#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COLUMN  
부산이라 좋다?

COVER STORY  
오페라 토스카

글목에서 만나다. 생활 속 문화공간  
서점 크레타



OPERA TOSCA



World EXPO 2030  
BUSAN, KOREA

KOREAN  
NATIONAL  
BALLET  
국립발레단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화승 70



화승과 함께하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돈키호테

Don Quixote

2023. 9. 16 (SAT) 17:00 / 9. 17 (SUN) 14: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예매 부산시민회관 051-607-6000(ARS1번) 인터파크 1544-1555

티켓 V석 9만원 R석 7만원 S석 4만원 A석 2만원

주최 부산문화회관 화승 70

출연 국립발레단

©국립발레단, photo by 손지영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World EXPO 2030  
BUSAN, KOREA



KBS성우 짱구염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서울시티발레단  
동화발레



# 잠자는

# 숲속의 미녀

2023. 8. 20. (일) 11시 / 15시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주최 | 한국문화예술회관연합회  
Korea Culture and Arts Centers Association

주관 | 부산문화회관  
BUSAN CULTURAL CENTER

SCB | 서울시티발레단  
SEOUL CITY BALLET

후원 |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티켓 | R석 4만원 / S석 2만원

문의 | 051-607-6000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www.bscc.or.kr)



(재)부산문화회관의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문화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2023 최고의 어택이 뮤지컬  
**초록별 트트 모험대**

극작/연출 박정우 음악감독/작곡 김태영

2023. 8. 25.(금) 19:30 ~ 8. 26.(토) 1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2023. 9. 1.(금) 19:30 ~ 9. 2.(토) 16: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2023. 9. 8.(금) 19:30 ~ 9. 9.(토) 16: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주최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주관  해운대 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영아츠컴퍼니  
후원  문화체육관광부  한국문화예술위원회  해운대 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  영아츠컴퍼니

문의 해운대문화회관(051-749-7651), 동래문화회관(051-550-6611), 영도문화예술회관(051-419-5571~4), 영아츠컴퍼니(1544-4641)

예매 각 공연장 홈페이지 티켓 20,000원 할인대상 각 공연장 규정에 따름 관람연령 5세이상 관람가

"초록별 트트 모험대"는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를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되는 사업입니다.

을숙도문화회관 한여름밤



# Ice Coffee 콘서트

장사익

유진박



※우천 시, 공연날짜 · 장소 변경될 수 있음

2023. 8. 11.(금) 오후 7시 30분 SAHA 을숙도문화회관 야외 특설무대

주최/주관 | 을숙도문화회관 관람료 | 전석1만원 (균일가, 아이스커피 포함) 예매 | 을숙도문화회관 홈페이지 공연문의 | 051. 220. 5811~14

#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BPO Night Lab

2023. 8. 18. FRI 9:00PM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Busan Cultural Center


생상스 • 첼로 협주곡 제1번  
C. Saint-saens • Cello Concerto No.1, A minor, Op. 33

스트라빈스키 • 풀치넬라 모음곡  
I. Stravinsky • Pulcinella Suite

연주 부산시립교향악단 Busan Philharmonic Orchestra

지휘 백승현 Seung Hyun Baek, Conductor

협연 정우찬 Woochan Jeong, Cello

주최  부산문화회관

티켓 전석 10,000원 예매 [www.bscc.or.kr](http://www.bscc.or.kr) 문의 607-6000(ARS 1번)

# Disney IN CONCERT BEYOND THE MAGIC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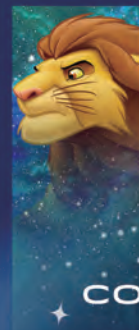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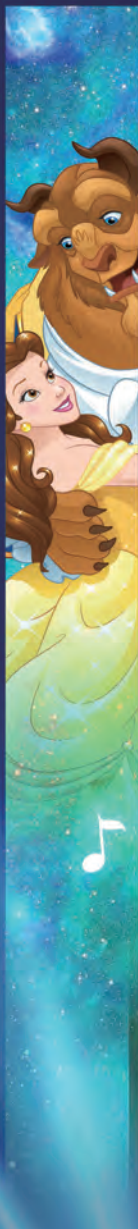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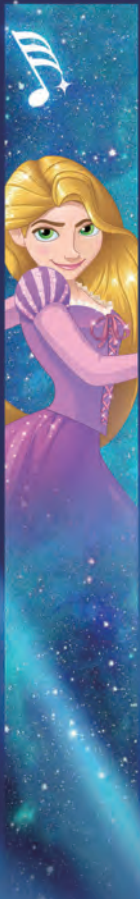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디즈니 인 콘서트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8. 26. (토) 3:0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SUN	MON	TUE	W
<p><b>예매권</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하반기 무대점검 : 8월 1일~14일</p>	<p>1</p>	
<p>6</p>	<p>7</p>	<p>8</p>	
<p>13</p>	<p>14</p>	<p>15</p> <p>제39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p>제39회 KBS부산 무용콩쿠르 예선 10:00   KBS부산방송총국(620-7327)</p>
<p>20</p> <p>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서울시타발레단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11:00, 15:00   4만원 2만원(5세 이상 관람)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음악실험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II' 17:00   2만원 1만원/음악실험실 짜임(010-8212-0222)</p>	<p>21</p>	<p>22</p> <p>센토챔버소사이어티 제12회 정기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p>	<p>23</p> <p>2023 스페인 밀레니엄 Friendship Concert   5만원 3만원 2만원 1만원</p>
<p>27</p> <p>2023 부산오페라시즌_오페라 '토스카' 15:00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p> <p>소프라노 이수정 귀국 독창회 17:00   전석 2만원/아트뱅크코리아(442-1941)</p>	<p>28</p>	<p>29</p> <p>(사)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19:30   3만원 2만원/(사)더솔로이스츠(010-8277-9765)</p> <p>제63회 부산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19:30   전석 2만원          부산독일가곡연구회(010-8455-2383)</p>	<p>30</p> <p>KNN방송교향악단 '2023 Friendship Concert'   KNN방송교향악단(82-1193)</p>



ED	THU	FRI	SAT
2	3	4	5
9	10	11	12
6	17	18	19
3	24	25	26
0	31		

20-7327)

합창단과 함께하는  
19:00  
만원/취다소니(328-9998)

3 NEW 아티스트 챌린지'  
50-9568)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꿈꾸는 예술학교  
'다함께 행복한 음악회2\_얼씨구' 11:00  
중 초대/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3, 3136)

후 브라스 콰이어 제11회 정기연주회 'HOPE' 19:30  
중 전석 1만원/후 브라스 콰이어(010-8733-7438)  
포르투나 앙상블 제5회 정기연주회 19:30  
캠 전석2만원/(사)부산문화(1600-1803)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개막공연 19:30  
대 3만원 2만원 1만원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516-8293~4)  
재)부산문화회관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19:30  
중 5만원 3만원/(재)부산문화회관(607-6000)  
제9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19:30  
캠 전석 2만원/Kongnamul(010-3146-8434)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21:00  
중 전석1만원/(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유도피안 클래식 앙상블\_고전&현대의 공간  
'The, 세계' 19:30  
중 유도피안 클래식 앙상블(010-6689-6096)

**사랑채 느즈**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 관람시간 : 8월 18일(금)-9월 24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  
※ 평일 단체관람 시간상이  
• 입 장 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_4·3참작오페라  
'순이상춘' 15:00  
대 초대/(재)부산문화회관(607-6000)  
꿈을 연주하는 오케스트라 17:00  
캠 부산어깨동무나눔봉사단(010-6744-2828)

2023 부산오페라시즌\_오페라 '토스카' 15:00  
대 10만원 8만원 6만원 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2023 통일음악회 '함께 꾸는 꿈' 19:00  
중 (사)통일문화교류협회(070-4191-0615)

**전시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에릭 요한슨展  
6월 27일(화)-10월 8일(일)  
• 관람시간 : 오전 10:00~오후 7:00  
(입장 마감 오후 6:00)  
• 입 장 료 : 일반 (만 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 문 의 : Hteam 070-7008-8905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매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SUN	MON	TUE	WED
<p><b>공연안내</b></p> <p>공연관람 전 반드시 공연 주최 측에 문의하시거나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	<p>하반기 무대점검 : 8월 7일~21일</p>	<p>1</p> <p>뮤지컬 '데스노트' 14:30, 19:30  <b>대</b>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p>	<p>뮤지컬 '데스노트' 19:30  <b>대</b> 16만원-14만원-11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p>
<p>6</p> <p>뮤지컬 '데스노트' 19:00  <b>대</b>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p>	<p>7</p>	<p>8</p>	<p>9</p>
<p>13</p>	<p>14</p>	<p>15</p> <p>광복절 기념식 10:00  <b>대</b> 부산광역시 총무과(888-1854)</p>	<p>16</p>
<p>20</p>	<p>21</p>	<p>22</p> <p>동구생활문화예술제 '2023 동구동락' 18:00  <b>소</b> 동구생활문화연합회(010-3064-6454)</p>	<p>23</p> <p>제13회 선소리산타령 정  <b>대</b> 초대/선소리산타령노                      영화 '그대 어이가리' 11  <b>소</b> 한국다문화재단 부산                      (010-7177-3695)</p>
<p>27</p>	<p>28</p>	<p>29</p>	<p>30</p> <p>부산시민회관 배시시 명                      19:00  <b>소</b> 무료(전체 관람)/(재)부산문화회관</p>

ED	THU	FRI	SAT
2	3	4	5
0 원·8만원 (주)밝은누리(1566-9621)	뮤지컬 '데스노트' 19: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	뮤지컬 '데스노트' 19:3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	뮤지컬 '데스노트' 19:00 대 16만원·14만원·11만원·8만원 (14세 이상 관람)/(주)밝은누리(1566-9621)  원추리1 16:00 소 5만원·3만원 성민주무용단 (010-7706-3238)
9	10	11	12
6	17	18	19
3	24	25	26
기공연 19:00 명춘희(010-9611-3489) 0:00, 15:00, 19:00 울산경남지부	영화 '그대 어이갸리' 11:00, 15:00, 19:00 소 한국다문화재단 부산울산경남지부 (010-7177-3695)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15:00 대 10만원·8만원·6만원·4만원 (재)부산문화회관(607-6000)
0	31	<div style="border-left: 2px solid #00a0e3; border-radius: 10px; padding-left: 5px; margin-bottom: 5px;">전시실</div>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최민석과 다큐멘터리 사진전 8월 4일(금)-9월 8일(금) 전시실 1, 2 · 운영시간 :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 매주 월요일, 8월 15일 휴관  · 관람료 : 무료 ·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품극장 '시크릿 뮤지엄' 부산문화회관(607-6000)	세상을 바꾸는 시간 V×부산 14:00 소 부산광역시자원봉사센터(864-1365)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에서 예약하십시오.  
· 위 공연 전시일정은 주최 측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자세한 공연정보는 www.bscc.or.kr 에 접속하세요.  
· 초대(무료)공연은 반드시 주최 측에 문의 바랍니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CHOMANSHIK

# 최민식과 다큐멘터리 사진전

2023.08.04. — 09.08.

/1부  
최민식 사진전,  
소년시대

/2부  
임종진 시선전,  
사람이 사람을 보다

부산시민회관 전시실

관람료 무료 / 운영시간 10:00 ~ 18:00 (입장마감 17:00)  
매주 월요일, 8/15 광복절 휴관



© NIENON/IMET



부산문화회관의 정보를 담은  
QR코드입니다.

# CONTENTS

## 8

월간문화예술정보지



- 12 **Column**  
부산이라 좋다!
- 14 **Cover Story**  
2023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토스카
- 20 **거꾸로 보는 미술사 ㉕**  
그림에서 찾아보는 물놀이
- 24 **세계의 콘서트홀 ④**  
벨기에의 작은 도시 브뤼헤에서 만나는  
콘서트헤바우
- 28 **서울통신원**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는 없다
- 30 **골목에서 만나다.생활 속 문화공간**  
서점 크레타
- 34 **Preview**
- 42 **전시화제**
- 44 **문화가 화제**
- 48 **Review**
- 50 **Program Guide**
- 62 **New Book**
- 63 **BSCC News**

예술의 초대 August 2023 Vol.380

발행처 (재)부산문화회관 48534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76번길 1 Tel. 051 607 6000  
발행인 이정필 편집위원 동길산(위원장), 권은영, 이상현, 정두환, 정봉석, 채영희, 홍동식  
디자인·제작 효민디앤피

발행일 2023년 7월 25일  
편집장 정복엽

# 부산이라 좋다!?



홍동식 부경대학교 시각디자인전공 교수

부산은 올봄에 2030 월드엑스포의 실현을 위해 도시 단장과 상징물 개발에 부산한 시간을 보냈다. 국제박람회 기구(BIE) 실사단이 4월에 2030 월드엑스포 개최 후보지 중의 하나인 부산을 실사하기 위해 5박 6일 동안 부산의 이곳저곳을 방문하였다. 이에 부산 시내의 대로변은 온통 영문으로 된 환영 인사 및 부산의 새로운 브랜드 슬로건인 'Busan is Good'과 새로운 상징물 디자인이 들어간 플래카드로 가득하였다. 플래카드의 색상은 부산에서 잘 쓰지 않았던 보라색이라 조금 생소하였다. 이러한 현상은 시각디자인 전공자인 필자에게 많은 생각을 가져오게 하였다. 도시 브랜드라고 할 수 있는 도시 상징물 디자인은 그 도시의 간판이며 얼굴이 된다. 이에 대부분의 도시는 막대한 비용을 들여서라도 그 도시의 의미와 정신성을 부여하며 상징성을 이미지화하는 데 주력한다. 2023년은 한국의 큰 도시 중 서울과 부산이 함께 도시 상징물을 개발하게 된다.

도시 상징물 개발의 대표적인 시발점이 된 것은 미국의 뉴욕시라고 여겨진다. 뉴욕이라는 도시를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도록 만든 디자인, 'I♥NY'은 밀튼 글레이저(Milton Glaser)라는 뉴욕의 그래픽디자이너가 범죄도시라는 오명을 가지고 있던 뉴욕을 불안한 치안에서 벗어나고 도시의 이미지를 긍정적으로 쇠신하기 위한 캠페인의 일부로 디자인하였다. 'I♥NY'이라는 로고는 1977년 당시 '세계의 범죄 수도'라는 오명과 함께 파산 직전에 시달리던 뉴욕시의 의뢰로 탄생했다. 글레이저는 텍

시 뒷자리에서 아이디어가 떠올랐다고 밝혔으며, 저작권을 뉴욕시에 무상으로 양도했다. 티셔츠와 모자 등 다양한 상품에 찍혀 팔리는 'I♥NY' 디자인으로 뉴욕은 매년 3천만 달러(한화 약 360억 원)를 벌어들이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흰색의 티셔츠에 단순한 색상으로 상징 디자인을 인쇄하여 많은 이들에게 입히니 신기하게도 뉴욕시의 범죄율이 많이 감소하여 성공적인 도시 상징물 디자인 캠페인으로 유명해진 것이다.



부산시는 1995년에 만들어진 상징물 디자인을 2023년 봄에 도시브랜드 <Busan is Good>과 상징물 디자인을 완전히 바꾸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바뀐 부산의 새 얼굴은 많은 부산 시민들의 의견으로 가득했다. 상징물의 형태는 이해도와 친근감을

높이기 위해 그 도시의 역사와 상징물 등을 기반 삼아 비언어적으로 형상화하는 게 일반적인데, 부산의 새로운 상징은 지나치게 추상적이어서 무엇인지 인식조차 어렵다는 의견이 분분했다. BS의 형상은 영어문화권에서는 비속어의 약자이기에 더욱 부정적 의견이 팽배했다. 그리고 슬로건의 영문 문장은 지극히 평범하며 부산의 문화와 정신이 내포되어 있지 않음에 목소리를 높였다.

사실 시각디자인 분야는 일반 예술과는 달리 객관의 미가 요구된다. 이에 하나의 도시 브랜드 제작과 디자인 상징물 개발이라는 큰 프로젝트의 진행은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에 따른 객관적인 미학을 수용하여 상징물을 만드는 디자이너들의 철학과 조형성이 결부되어 만들어져야 한다고 생각된다. 그래서 투명한 시민공청회의 결성과 공식적 디자인에 대한 의견 청취는 꼭 필요한 행정적 절차라고 여겨지며 부산 시민의 소수의견이 아니라 대대적인 의견 수렴이라는 필요한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리고 시각 상징물의 개발에 있어 공식적인 상징물(Official Symbol)이 되기 위해서는 제작에 따른 디자인컨셉트 도출과 함께 지구상에 존재하는 디자인 로고의 다각적 검토로 표절과 저작권에 각별히 유념하여 디자인되어야 한다. 시로 창작물이 범람하는 시대지만, 피상적으로 분석한 정보보다 정보처리 깊이가 있는 디자인으로 정체성이 있고, 회상하기 쉬우며, 오래 기억할 수 있는 창의성이 돋보이는 슬로건 디자인에 많은 시민들이 목말라하고 있다. 상징물 디자인은 특히 형태의 유사성과 표절에 민감하다. 이젠 누구나 다양한 정보를 쉽게 찾아보고, 많은 정보들 속에 어디선가 본 기억이 많기에 더욱 유의해서 제작해야 한다.



유사성에 대해 살펴보면, 부산시 새로운 상징물(1)은 코인제코 회사에 있는 비트코인 중의 하나인 브라이트 유니온 프라이스 디자인과 상당히 유사한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개진되었다. 자세히 살펴보니 영문 대문자 B의 형태적인 모습과 컬러(Blue & Violet)의 활용이 RGB상에서 볼 때는 거의 같은

색상과 채도로 선정되어, 두 로고는 동일 회사의 로고로 응용 로고 중의 하나로 오인할 수 있는 여지가 있어 보인다. 도형 속의 컬러의 활용은 푸른색에서 보라색으로 바뀌는 그라데이션 효과와 브라이트 유니온 프라이스 디자인의 폴리곤(면)을 구성하여 채색한 효과는 그라데이션 효과와 유사하게 보인다.



부산시 새로운 상징물(2)는 유럽에서 전자 배지와 명장을 인터넷 오더로 만들어 유통하는 배지크래프트(Badgecraft)라는 회사의 로고와도 유사한 형태적 느낌을 가지고 있다는 의견이 있었다. 이 또한 하나씩 뜯어보면 영문 대문자 B의 형태적인 모습을 라인아트로 재현하여 형상이 만들어졌으나 라인의 굵기가 달라 B형태의 공간 구성이 달라졌지만 거의 유사한 형태적 아이덴티티를 가진 디자인이라 할 수 있겠다. 배지크래프트(Badgecraft) 본사에서 부산시 상징물(2)와는 유사하다고 언급하였다고 전해졌다.(The logo really looks similar to ours.)

포스트모더니즘 이후, 저 붉은 태양 아래 새로운 창작물은 없다고 미학자들이 주창하였지만 도시의 상징물 디자인 제작은 더욱 심사숙고하여야 한다고 생각된다. 상징 디자인은 형태와 기능, 브랜드 그리고 슬로건에 이르기까지 핵심은 원형적 주제와 형태가 없으면 주목받지 못하고 사랑받지 못한다. 구체적인 원형은 다양하게 반응할 수 있기 때문에 무의식과 원초적 감정, 문화적 배경 등으로 많은 사람들은 유사성과 디자인 속에 내포된 함축적 의미를 바로 찾아낸다. 이에 객관적으로 디자인 전문가들의 의견들은 표절에 가까운 유사성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견을 개진하고 있지만 엄밀히 따졌을 경우, 타 디자인의 복제와 표절에 따른 법적인 문제는 야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제 부산시 브랜드 슬로건과 새로운 상징물은 새롭게 거듭나고 공식적으로 사용하게 되었다. 옛말에 미운 자식 떡 하나 더 주자라는 말이 있듯이 미운 자식을 너그러운 마음으로 보듬고 가야 할 때가 되었다. 우리 모두가 부산을 사랑하는 마음은 변함이 없지 않은가.

## 2023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토스카

일시 8월 26일-27일 토-일요일 오후 3:00

장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제작한 전막 오페라 '토스카'가 8월 26일과 27일 이틀간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 (재)부산문화회관의 네 번째 제작오페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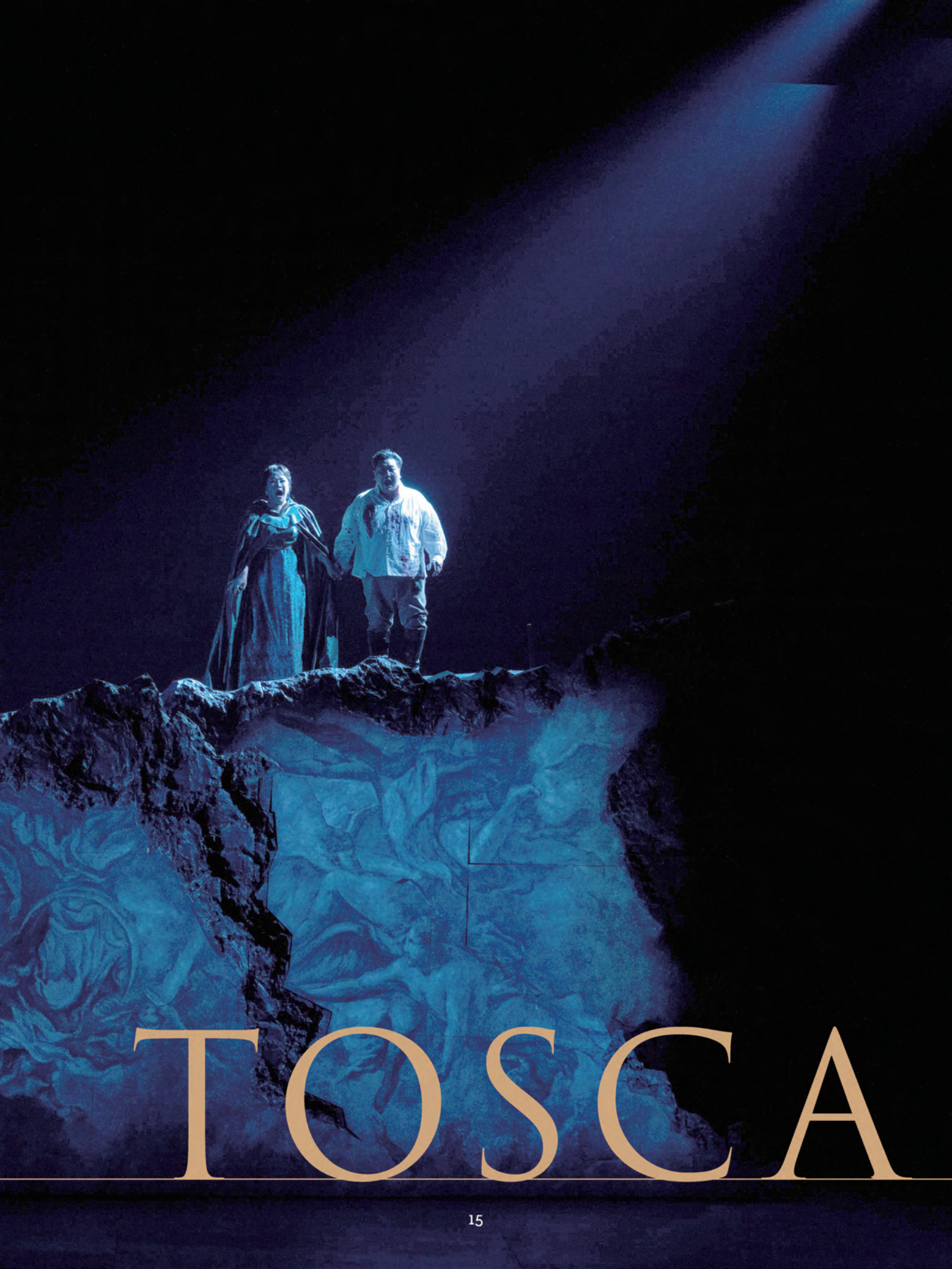
오페라 '토스카'는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년 베르디 '리골레토', 2021년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2022년 푸치니 '라보엠'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제작오페라로,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오페라하우스의 성공적인 건립을 기원하고 지역 오페라 육성과 오페라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한 '2023 부산오페라시즌' 무대로, 2020년부터는 지역 공공극장이 공동으로 참여하면서 공공성과 작품성, 예술성을 높이는 한편, 보다 많은 시민들이 참여하는 축제의 장으로 거듭나고 있다. 올해는 (재)부산문화회관에 이어 금정문화회관이 9월 22일과 23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를 선보인다.

### 푸치니의 비극적 멜로드라마 '토스카'

오페라 '토스카'가 설득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는 이유는 그것이 가진 역사적 배경의 사실성 때문이다. 1798년, 교황을 지지하는 나폴리, 오스트리아 왕국의 비호 아래 있던 로마는 프랑스 혁명의 중심에 있던 나폴레옹의 공격을 받아 공화정부가 들어선다. 이후 1800년, 나폴레옹이 이집트 원정으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나폴리 여왕의 군대가 로마를 탈환하면서 로마는 다시 왕정으로 복귀하게 되고 공화파

사진제공: 대구오페라하우스





# TOSCA

세력은 외국과 음모한 반역자로 몰려 투옥되거나 지하투쟁을 계속했다. 오페라 '토스카'는 이때인 1800년 6월 17일, 단 하루 동안 발생한 세 남녀의 비극적 사건을 그리고 있다. 오페라 내용뿐 아니라 작품 속 배경이 되는 장소 또한 로마 시내에 실제로 존재하는 곳으로, 1막에서는 성 안드레아 델라 발레 성당, 2막에서는 파르네제 궁, 그리고 3막에서는 테베레강에 인접한 안젤로 성이 등장하며 극의 사실을 더해준다.

주인공 토스카의 연인 카바라도시 앞에 어느 날, 탈옥한 정치범인 안젤로티가 나타나고 그와 친구였던 카바라도시는 안젤로티를 숨겨준다. 안젤로티의 뒤를 쫓다 카바라도시를 만난 경찰청장 스키타피아는 카바라도시가 자신이 짝사랑하는 토스카의 남자친구임을 알게 된다. 스키타피아는 카바라도시를 체포한 후, 토스카에게 그를 구하려면 자신과 하룻밤을 보낼 것을 요구하고 연인을 살리기 위해 어쩔 수 없이 제안에 동의했던 토스카는 결국 스키타피아를 칼로 찔러 죽인다. 그리고 처음부터 카바라도시를 살려줄 마음이 없었던 스키타피아의 계략에 의해 카바라도시는 처형을 당하고 이 사실을 알게된 토스카 역시 성벽에서 뛰어내린다.

'토스카'는 그 당시 이탈리아 오페라계에서 유행하던 베리즈모 오페라의 스타일이지만, 긴박감 넘치는 스토리에 푸치니 특유의 아름답고 감성적인 선율로 지금까지도 가장 드라마틱한 걸작 오페라로 손꼽히고 있다. 특히 가장 유명한 테너 아리아이자 카바라도시가 죽음을 앞두고 토스카와의 지난날을 회상하

는 '별이 빛나건만'을 비롯해 '오묘한 조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 등 작품 속 아리아들도 대중들에게 친숙하다.

### 최고 실력자들이 선사하는 완성도 높은 무대

이번 오페라 '토스카'를 위해 각 분야 최고의 실력자들이 한자리에 모였다. 지휘는 영남대학교 초빙교수, 인천계양구립교향악단 음악감독으로 있는 김현수가, 연출은 공연예술창작소 예술은감자다 대표 및 예술감독으로 있는 연출가 정선영이 맡아 완성도 높은 무대를 선사한다. 올해 역시 연주와 합창은 지역 예술인들로 구성된 2023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예술총감독 김봉미, 합창감독 김강규, 협력감독 홍기정)와 해운대구립소년소녀합창단(지휘 권영기)이 맡아 풍성한 무대를 선보인다. 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는 부산오페라하우스를 제작중심 극장으로 운영하기 위해 부산광역시에서 선발, 육성하는 오페라 전문인력으로, 공개 오디션을 거쳐 선출된 지역 예술인들이 작품에 참여하면서 오페라 육성의 기반이 되는 전문인력 양성에도 큰 힘을 보태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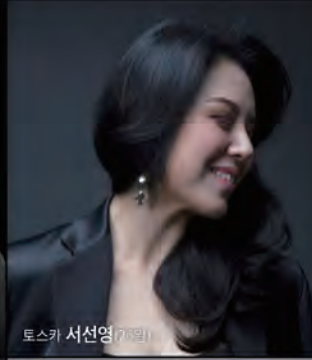
오페라를 이끌어갈 세 명의 주인공으로 토스카 역에는 소프라노 서선영과 정혜민, 카바라도시 역에는 테너 신상근과 허동권, 스키타피아 역에는 바리톤 안세범과 박정민이 더블 캐스팅됐다. 소프라노 서선영은 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마리아 칼라스 그랑프리, 비냐스 국제성악콩쿠르에서 우승하고 독일 NRW(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 선정 '2011 최고의 소프라노'로 선정됐다. 2011/12시즌 스위스 바젤 국립극장의 '루살카' 역으로 데뷔한 후 도이치 오퍼 베를린, 슈타츠 오퍼 함부르크, 오페라 노스, 스코티쉬 오페라, 카네기홀, 바비칸 홀, 빈 콘체르트 하우스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섰으며, 현재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 교수로 후진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소프라노 정혜민은 서울대학교 성악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베니스 국립음악원 석사과정, 밀라노 베르디 국립음악원 최고연주자과정을 만점 졸업하고 이탈리아 라 페니체 국제콩쿠르, 아르테인 칸토 국제콩쿠르, 브레샤 마리아 칼



사진제공: 대구오페라하우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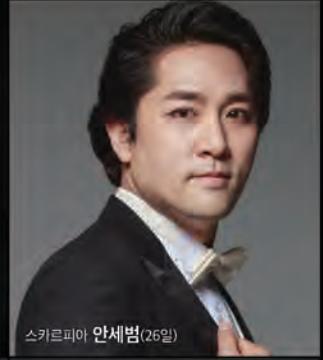
지휘 김현수



토스카 서선영(7월)



카바라도시 신상근(26일)



스카르피아 안세범(26일)



연출 정선영



토스카 정혜민(27일)



카바라도시 허동권(27일)



스카르피아 박정민(27일)

라스 국제콩쿠르 등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했다. 2년마다 열리는 베니스 뮤직 비엔날레에서 라 페니체 극장 오페라 '돈 조반니' 주역으로 발탁되어 무대에 섰으며, 바디아 파차나시의 히스토리컬 뮤직 페스티벌에서 '올해의 소프라노'로 초청 연주회를 가진 바 있다.

카바라도시 역의 테너 신상근은 한양대학교 성악과와 이탈리아 밀라노 라스칼라 아카데미, 오스트리아 모차르테움을 졸업하고 독일 뮌스터 오페라 하우스 솔리스트, 칼스루에 극장 전속 주역가수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테너 허동권은 동아대학교 음악과를 졸업하고 이탈리아로 유학, 페로씨 국립음악원, 안코나 시립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서울시 오페라단 주역단원을 역임하고 현재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으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스카르피아 역의 바리톤 안세범은 동의대학교 음악학과 및 동 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태리로 유학, Licinio Refice 국립음악원, 로마 ARAM 아카데미(성악 및 가곡), Il seminario di Norma 아카데미(합창지휘)를 졸업하고 해피양상블, 부산성악가협회, 서울 이마에스트리, 부산성악아카데미 회원으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바리

톤 박정민은 연세대학교 성악과와 이태리 parma conati 아카데미를 졸업하고 스페인 사바델 극장, 오스트리아 인스브룩 극장, 이탈리아 사르데냐 깔리아리 극장 등에서 오페라 주역으로 활동했으며, 현재 전문연주자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밖에 안젤로티&샤로네 역에 리베아모르 대표, 부산성악가협회, 해피양상블단원, 기장영락교회지휘자로 활동 중인 베이스 김정대와 부산성악가협회, 깐판데부산 회원으로 활동 중인 손상혁이 맡았으며, 스피네타 역에는 테너 안형일, 정다훈, 성당지기 역에는 바리톤 최모세, 황동남이 맡아 무대를 빛낸다.

### 9월,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

한편, 9월 22일과 23일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에서는 '2023 부산오페라시즌'의 또다른 작품인 콘서트 오페라 '람메르무어의 루치아'가 공연된다. 금정문화회관이 제작한 '람메르무어의 루치아'는 이탈리아 낭만주의 최고작으로 찬사받는 도니제티의 오페라로, 현존 최고의 소프라노 캐슬린김과 부산을 대표하는 소프라노 구민영의 초절정 기교를 감상할 수 있다.

# 예술과 사랑 속에서 살고 싶었던 어느 커플의 비극

황장원 음악 칼럼니스트

오페라 <토스카>는 푸치니의 '3대 명작' 중 가장 강렬하고 드라마틱한 작품이다. 전체 상연시간은 두 시간 남짓에 불과하지만, 오페라로서는 그리 길지 않은 그 시간 동안 푸치니가 펼쳐 보이는 음악극은 실로 다채롭고 변화무쌍하다. 남녀 주인공의 로맨스가 전개되는 가운데 긴박한 정치적 서스펜스, 음흉한 악당의 음모, 오싹하고 으스스한 스릴러 등 다양한 요소들이 개입하고 중첩되며 더없이 긴장감 넘치고 애뜻하기 이를 데 없는 비극을 연출한다.

## 유장하고 치밀한 작곡 과정

자코모 푸치니의 다섯 번째 오페라인 <토스카>는 1900년 1월 14일 로마의 코스탄치 극장에서 초연되었다. 그 무렵 푸치니는 출세작 <마농 레스코>(1893)에 이어 <라 보엠>(1896)도 대중적으로 큰 성공을 거두면서 위대한 선배 주세페 베르디의 뒤를 잇는 이탈리아 오페라계의 선두주자로 각광받고 있었다. 이제 그 성공을 이어갈 후속작을 내놓아야 할 차례! 푸치니가 고심 끝에 낙점한 소재는 빅토리아 사르두의 <라 토스카>였다. 앞선 두 성공작에 이어 다시 한 번 프랑스 작가의 원작을 선택했던 것이다. 사르두가 1887년 파리에서 발표한 비극 <라 토스카>는 전설적인 명배우 사라 베르나르를 주인공으로 내세워 위

럽 전역에서 대성공을 거뒀다. 사실 푸치니는 이 연극이 1889년 이탈리아에 수입되었을 때 토리노와 밀라노에서 두 번 이상 관람하고서 일찌감치 오페라로 만들 계획을 세웠었다. 하지만 그 계획은 한때 철회됐다가 다시 추진되는 우여곡절을 겪었고, 푸치니는 1895년에야 '토스카 프로젝트'의 계약서에 서명했다. 대본 작업은 <마농 레스코>와 <라 보엠>에서도 호흡을 맞췄던 루이지 일리카와 주세페 자코사 콤비가 맡았다. 두 작가는 푸치니와 소통하며 길고 고단한 작업을 이어갔다. 그 과정에서 원작의 5막 구성은 3막으로 변경되었고, 수많은 장면과 대사들이 작곡가 또는 원작자의 요구로 수정되었다. 최종 대본이 푸치니에게 인도된 것은 1898년의 일이었고, 작곡이 완료된 시점은 예정된 초연까지 채 두 달이 남지 않은 1899년 11월 초였다. 그 사이 푸치니는 작품의 무대인 로마를 방문하여 로마 교회의 찬송가를 조사하고, 성베드로 대성당 종소리의 음정을 체크하고, 로마 방언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하는 등 작품의 사실성을 높이기 위해 동분서주했다.

## 노래와 관현악, 드라마의 오묘한 조화

오페라 <토스카>의 초연은 마르게리타 여왕을 비롯한 로마의 고위인사들이 대거 배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진행되었고, 푸치니가 기대했던 만큼은 아니지만 성공리에 막을 내렸다. 공연 후 평단의 반응은 다소 미지근했고 대본가를 나무라는 비평도 있었지만 별 문제는 아니었다. 대중의 호응은 갈수록 뜨거워졌고, 로마에서 20여 차례의 후속 공연이 이루어진 데 이어 밀라노 스칼라 극장에서 대성공을 거두자, 이후 <토스카>는 런던, 뉴욕, 파리, 비엔나 등 세계 각지에서 엄청난 인기를 끌며 부동의 명작으로 자리매김했다. 그러한 인기는 오늘날까지 변함없이 지속되고 있다. 호주의 저명한 음악평론가 찰스 오스본은 <토스카>의 인기 비결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첫째, 멜로드라마적 플롯의 팽팽한 효과 / 둘째, 세 명의 주역이 성악적·극적으로 빛날 수 있는 여러 기회들 / 셋째, 두 개의 위대한 아리아



사진제공: 대구오페라하우스

(토스카가 부르는 '노래에 살고 사랑에 살고'와 카바라도시가 부르는 '별은 빛나건만'). 아울러 영국의 비평가들이 푸치니에게 보냈던 신랄한 표현의 대가, '놀라운 (음악적) 기술과 지속적인 (극적) 동력'과 같은 찬사들도 주목해야 할 것이고, 초연 당시 로마 비평가가 지적했던 '모든 종류의 색상과 음영이 나타나는 음색의 팔레트, 더없이 유연한 악기들의 텍스처, 무수한 소리의 그라데이션, 어김없이 귀를 매혹하는 그 모든 것의 조화'도 간과하지 말아야겠다. <토스카>는 역시 이탈리아 오페라이기에 기본적으로 '노래의 드라마'지만, 동시에 관현악 기법의 귀재였던 푸치니 특유의 빼어난 관현악이 그 노래들을 뒷받침하면서 극적 효과를 극대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은 바그너의 영향을 받은 무한선율적 흐름과 라이트모티프 기법에 의해 절묘하게 엮여 있다.

### 악의에 희생되는 진정한 사랑

<토스카> 속 이야기는 실제 역사적 사건을 배경으로 전개된다. 때는 나폴레옹의 2차 이탈리아 침공이 있었던 1800년 6월로, 당시 나폴레옹 군대는 알프스를 넘어 '마렙고 전투'에서 오스트리아군에 역전승을 거둔 후 로마로 진군하고 있었다. 나폴레옹은 이미 1796년에 이탈리아를 침공하여 1798년 2월에는 로마에 입성하여 공화국을 세웠다. 그러나 1799년 9월 프랑스 군대가 이탈리아에서 철수한 직후 오스트리아가 반격을 개시하여 공화정을 무너뜨리고 나폴리 왕국 군대가 로마에 입성하자 다시 쳐들어갔던 것이다. 극은 1800년 6월 17일 오후에서 다음 날 새벽까지 진행되는데, 1막에서는 나폴레옹이 패배했다는 소식이, 2막에서는 전세가 뒤집혀 나폴레옹이 승리했다는

소식이 전해진다. 극중 등장인물들은 가공의 인물들이지만, 그들이 처하게 되는 상황은 당시 로마의 실제 정치적 상황을 반영하고 있다.

여주인공 토스카(소프라노)는 로마 최고의 인기 오페라 가수, 그녀의 연인 카바라도시(테너)는 화가이자 공화주의자이다. 그리고 이 둘 사이에 끼어드는 스카르피아(바리톤)는 왕정복고체제하의 경찰청장으로 등장한다. 착하고 아름답지만 질투심 강한 토스카와 멋지고 정의로운 카바라도시는 서로를 진심으로 사랑하지만, 카바라도시는 탈옥한 친구 안젤로티(몰락한 공화정의 지도자)를 도우려고 토스카를 잠시 따돌린다. 안젤로티를 추격하던 스카르피아는 토스카의 질투심을 이용하여 두 연인을 궁지에 몰아 넣고, 평소부터 탐내오던 미모의 토스카를 차지하는 동시에 눈엣가시인 카바라도시를 처단하려고 음모를 꾸민다. 스카르피아는 목적 달성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토스카의 손에 죽지만, 카바라도시와 토스카도 결국 사악한 스카르피아의 흉계에 휘말려 안타까운 최후를 맞이한다.

오페라 <토스카>는 다분히 복합적인 음악극이다. 그 안에는 '마렙고 전투'에 기댄 역사극적 요소, 단순명료하고 직접적인 표현이 두드러지는 '베리스모(사실주의 오페라)적 요소, 스카르피아를 주축으로 하는 '그랑기놀(프랑스 공포극)적 요소 등이 한 데 어우러져 있다. 그리고 그 모든 요소들의 중심이자 구심점을 이루는 것은 물론 푸치니 특유의 감미롭고 매혹적이며 애절한 선율을 통해서 부각되는 멜로드라마적 흐름일 것이다. 나아가 예술과 사랑으로 가득한 아름다운 세상을 꿈꾸던 한 커플이 안타깝게 희생되어 가는 드라마를 목도하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의 잔혹함과 부조리에 대해서도 한 번 생각해볼 일이다.

여름 하면, 따사로운 햇살, 폭우가 쏟아지는 장맛비, 그리고 열심히 달려온 자신을 위해 떠나는 여행 등이 생각난다. 그래서 무더운 바람에 지치다가도 여행이 주는 휴식을 생각하며 조금 더 견딜 수 있는 지도 모른다. 그마저도 설 수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게는 에어컨이 나오는 피서지가 많다. 향긋한 커피가 있는 카페도 있고 다양한 책이 꽂혀있는 도서관도 있다. 옛 시절에는 은행이 제일 시원했다지만, 개인적으로는 미술관이나 박물관 피서를 즐긴다. 시원하면서도 볼거리가 풍부한 전시장은 바닷가 못지않은 즐거움을 주기도 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금처럼 에어컨이 없던 시절엔 어떻게 더위를 이겼을까. 그들도 피서를 가지 않았을까.

### 파리지앵의 해수욕

산업혁명 이후 유럽 도시의 인구는 늘어났다. 19세기 유럽 문화의 중심지였던 파리 역시 마찬가지였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파리로 모여들었고, 이들은 주중에는 출퇴근을 하고 주말에는 성당을 가거나 친구와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 그렇지만 반복되는 일상과 과밀화된 도시에서 초기 대중교통수단이었던 '옴니버스'를 타고 출퇴근을 해야 하는 생활은 쉽지 않았다. 그나마 몽마르트 언덕에 있는 '몰랑루즈'와 같은 카바레나 근처 숲이나 강가에서 피크닉을 즐기며 잠깐의 휴식을 가졌지만, 많은 파리지앵은 무더운 여름이 되면 바캉스를 떠나고 싶어 했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단어는 조금씩 다르지만, 생활은 그리 다르지 않았다.

매일 적지 않은 시간을 출퇴근 버스나 길에서 보내고, 쉴 틈 없이 돌아가는 업무를 보내고 저녁에 잠시 친구들과 술잔을 기울이며 긴장을 조금 풀어낸다. 그렇지만 어김없이 돌아오는 아침과 월요일에 지친다. 그래서 1년에 한 번 오는 휴가에는 그간 보지 못한 산이나 바다를 보며 눈을 정화하고, 시간에 쫓기지 않는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고 싶다. 사랑하는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하면 더 좋을 것이다.

19세기 파리지앵도 그랬다. 당시 파리는 대대적인 도시계획으로 최첨단의 메트로폴리스였지만, 그럼에도 일상을 벗어나 쿿바람을 쐬고 싶어 했다. 삶의

## 그림에서 찾아보는

## 물놀이

허나영 한국연구재단 연구교수



1 모네, <생 라자르 역>, 1877년, 캔버스에 유채, 75.5×104cm,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소장



2 쿠르베, <에트르타의 절벽>, 1869년, 캔버스에 유채, 93×114cm  
독일 폰데어호이트미술관 소장

터전을 벗어나 잠시 멀리 떠나는 여행은 프랑스 전역에 놓인 철도를 통해서 더 쉬워졌다. 처음 증기기관차가 생겼을 때, 유럽사람들은 움직이는 방이라 생각했다고 한다. 이전에는 다른 지역에 가려면 마차나 말을 타고 가야하는데, 짐을 가지고 움직이는 것도 그리고 승차감도 그다지 좋지 않았다. 하지만 기차는 방과 같은 공간에 편한 의자를 두고 짐도 마음껏 실을 수 있으니 더 없이 좋은 운송 수단이었다. 더욱이 아이들과 함께 가족이 움직이기에 말이다. 그래서 파리의 생 라자르 역<sup>[도판 1]</sup>과 같은 기차역은 연일 승객들로 북적였고, 주말이나 바캉스 철에는 수많은 파리زي앵들이 도시를 빠져나갔다.

프랑스 남부로 가기도 했지만, 보다 쉽게 바다를 볼 수 있는 곳은 노르망디 지역의 해안가였다. 특히 인상주의 작가 모네가 애용했던 생 라자르 역에는 노르망디 지역으로 가는 철도가 연결되어 있었다. 노르망디 해안가는 해협을 건너 영국을 마주 보는 지역이다. 에트르타를 비롯한 해안가는 하얀 석회암이 드러나는 알바트르 지형으로 더욱 독특한 분위기를 준다. 그중에서 에트르타는 일명 코끼리 바위라 불리는 기암괴석으로 유명하다. 그래서 여러 예술가의 여행지이자 그림의 소재가 되기도 했다.<sup>[도판 2]</sup> 드넓은 바다에서 있는 기암괴석과 반짝거리는 절벽, 그리고 그 밑에 펼쳐진 해안에서 오랫동안 프랑스인들은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이외에도 해안을

따라 항구와 관광지가 형성되었다. 파리지앵들은 기차를 타고 해안 도시에 와서 여정을 풀고 바닷바람과 햇살을 받으며 휴식을 취했다.

그중 트루빌(Trouville)과 도빌(Deauville)은 부유한 파리지앵들이 자주 들르던 관광지로 유명했다. 럭셔리한 호텔과 함께 상점과 레스토랑 등 즐길 거리도 풍부한 이곳에서 많은 사람이 바캉스를 보냈다. 인상주의 대표 화가 모네 역시 신혼여행으로 트루빌에 갔다. 그리고 부인과 바닷가를 거닐면서 그림을 그리기도 했다.<sup>[도판 3]</sup>

럭셔리하다고 알려진 '로슈 누아르 호텔(Hôtel des Roches Noires)' 앞에서 바다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햇살의 분위기를 생생하게 나타내었다. 푸른 하늘과 크림색 건물과 그 앞을 거니는



3 모네, <트루빌의 로슈 누아르 호텔> 1870년, 캔버스에 유채 81×58.5cm, 프랑스 오르세미술관 소장



4 부댕, <도빌에서의 해수욕>, 1865년, 나무에 유채, 34.7×57.5cm, 영국 네셔널 갤러리 소장

여러 사람들의 활기찬 모습, 그리고 강한 바닷바람에 휘날리는 깃발의 움직임은 바캉스를 온 사람들의 셀렘을 느끼기에 충분하다. 더불어 이 그림은 매우 현장감 넘치는 증거가 남아있는 작품이다. 모네는 야외에 직접 이젤을 놓고 그리곤 했는데, 그림에서처럼 강하게 바람이 불어서 이젤이 넘어졌다고 한다. 이때 덜 마른 물감에 묻은 모래가 지금도 남아있다.

하지만 해수욕장의 풍경은 우리와 많이 달랐다. 해운대나 광안리에 해수욕장이 개장하면, 파라솔과 선베드가 즐비하게 늘어서고 삼삼오오 모인 사람들은 수영복을 입거나 간편한 복장으로 바다의 파도를 즐긴다. 맛있는 음식을 돛자리 위에 펼쳐놓고 먹기도 하고 아이들은 튜브를 타고 바다에서 수영을 하기도 하고 모래사장에서 성을 만들기도 한다.

하지만 19세기 말에는 몸을 많이 드러내는 것이 어색한 일이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해안가에 의자를 놓고

앉아 양산을 쓰고 바다풍경을 바라보며 담소를 즐기며 시간을 보냈다. 그래도 바다에 왔으니 물놀이는 하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이들을 위해서 당시에는 일종의 움직이는 탈의실과 같은 마차가 있었다. 해수욕을 하고 싶은 사람은 이 마차를 타고 원하는 곳으로 가서 수영복으로 갈아입고 나와서 그 근처에서 해수욕을 즐기고 다시 마차를 타고 해변으로 나왔다. 여성들의 경우 자신의 신체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없기 때문이었다고 한다. 그래서 마차 근처에서 다른 사람들 눈을 피해서 가족이나 친구들끼리만 물놀이를 즐겼던 것이다. 얼굴과 손 외에는 신체를 드러내면 안 되었던 당시 사회적 관습을 지키면서도 해수욕을 할 수 있던 방식이었던 것 같다. 모네의 스승이자 해양풍경 화가인 부댕의 그림에서도 볼 수 있다. [도판 4] 해변에는 하얀 의자에 앉아있는 귀부인들이 화려한 드레스를 입고 앉아있고, 그 앞으로 하얀색의 구조물이 있는 마차가 보인다. 지금과는 사뭇 다른 풍경이다.



## 물놀이를 즐기는 사람들

자신의 몸을 타인에게 보이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었기에, 우리가 해수욕장 가서 사진을 찍듯 남긴 그림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신화적인 분위기를 모두 옷을 벗고 있는 여신이나 님프를 표현하는 듯한 '수욕도(Bathers)'가 더 많이 그려진다. 그래도 인상주의 작가들은 자신들이 살았던 현실세계를 그리고 싶어했다. 그래서 르누아르의 경우 아이들이 수영을 하고 있는 모습을 엄마들이 바라보는 듯한 모습을 작은 그림에 담았다.<sup>[도판 5]</sup> 저 멀리 바닷가에서 짧은 옷을 입은 아이들이 서로 장난치며 뒤엎켜 신나게 놀고 있다. 그리고 앞에는 그 모습을 바라보는 두 여인이 있다. 바닷가에 친구와 아이들이 함께 놀러 가서 신나는 한때를 보내는 듯한 모습이다. 그렇다면 남성들은 어떻게 놀았을까. 또 다른 인상주의자 바지유는 숲속 연못에서 레슬링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시간을 보내는 남성들의 모습을 그



5 르누아르, <해수욕>, 1892년, 캔버스에 유채, 개인소장



6 바지유, <수영(여름풍경)>, 1869년, 캔버스에 유채, 160×160.7cm, 미국 메사추세츠주 케임브리지 하버드 미술관 소장

렸다.<sup>[도판 6]</sup> 요즘으로 치면 수영복과 같은 짧은 바지를 입고 각자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 에어컨이 없던 시절 이렇게라도 열기를 식히고 운동을 통해 친목을 도모하고자 했을 지도 모르겠다.

## 우리의 열기도 행복하게 식혀보자

멋진 풍광이 있는 바닷가에서 가족과 친구와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 19세기 프랑스의 그림을 살펴봤다. 그렇다면 이 그림을 그린 화가들은 그저 그림만 그렸을까? 우리가 놀러가서 친구들과 사진을 찍을 때, 그 사진을 찍은 사람 역시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그런 것처럼 이 그림의 화가들 역시 째깍이 그림을 그리면서도 휴식을 취하기도 하고 수영도 하면서 행복한 시간을 보냈을 것이다. 그래서 어쩌면 더 생생한 느낌이 드는 것일지도 모른다. 우리도 그 어느 때보다 덥고 비도 많이 오는 올여름, 산과 바다에서 시름을 잊고 잠시나마 즐겁고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다.

# 벨기에의 작은 도시 브뤼헤에서 만나는 콘세르트헤바우

## CONCERTGEBOU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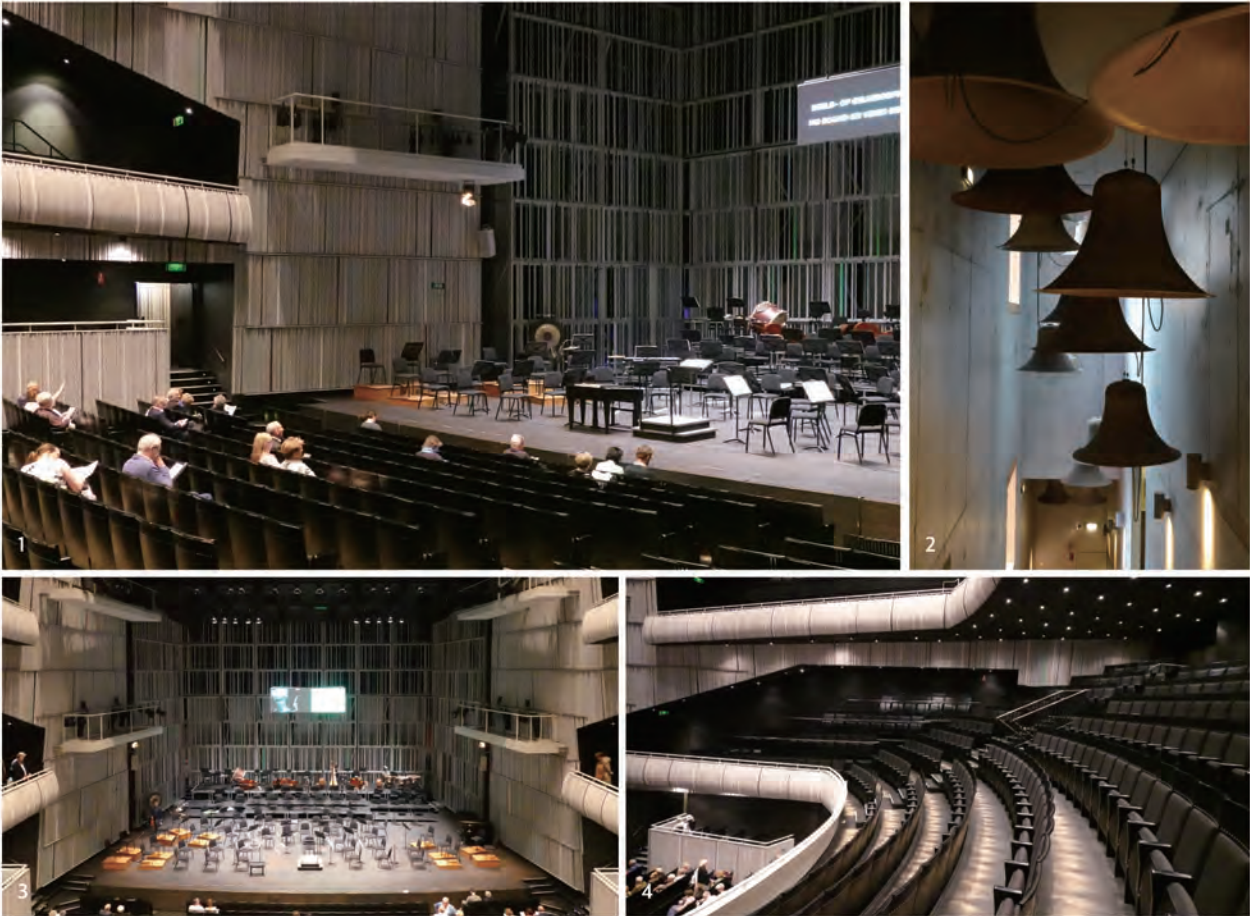
글, 사진. 이상훈 아트컨시어지 대표

콘세르트헤바우(Concertgebouw)는 벨기에 브뤼헤(Brugge)의 공연장이다. 구 도심의 중앙에 위치한 건물은 건축가 폴 로브레히트(Paul Robbrecht)와 힐데 댐(Hilde Daem)이 설계하여 이 도시가 유럽의 문화 수도였을 때인 2002년에 완성되었다. 이곳에는 3층에 걸쳐 1,290명 이상의 방문객을 수용할 수 있는 대형 콘서트 홀과 32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실내 약 홀이 있다. 유서 깊은 도시의 전망을 제공하는 란탄토렌(Lantaarntoren: Lantern Tower)에는 카페와 전시실도 구비하고 있다.

콘세르트헤바우 브뤼헤는 4,669개의 기둥 위에 놓여 있는데, 인테리어는 다소 차분하며 공연장은 첨단기술 덕분에 뛰어난 음향을 제공한다. 정면은 프랑스 북부의 생 오메르(Saint-Omer)에서 온 수천 개의 붉은 테라코타 타일로 덮여 있으며 란탄토렌(Lantaarntoren)은 주로 유리로 지어졌다. 그리고 역사 지구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기에 구 도시와 상반된 외관을 지닌 이 건물을 좋아하는 사람도 있고 구시가지의 건축 양식과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1 콘서트헤바우 브뤼헤 내부 2 로비와 공연장을 잇는 복도의 조형물 3 객석 2층에서 바라 본 무대 4 2층 발코니 좌석

7~8년 전 필자가 벨기에를 여행 하던 중 브뤼헤를 방문하였고, 이 도시의 문화공간들을 살펴보았다. 그리고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와 동명의 공연장이 이 도시에도 있다는 흥미로운 사실을 알게 되었다. 당시만해도 암스테르담 콘서트헤바우는 네덜란드를 대표하는 공연장이자 오케스트라로 알고 있었다. 그러기에 막연하게 콘서트헤바우를 고유명사로 인식했던 것 같다. 하지만 이 단어는 네덜란드어로 콘서트홀이라는 뜻이다. 헤바우 Gebouw를 번역하면 영어의 빌딩, 건물의 의미이다. 그러니 네덜란드어를 쓰는 도시들에서는 충분히 만날 수 있는 단어인 것이다. 오스트리아 빈과 베를린 등 독일어를 쓰는 도시들에서 만날 수 있는 콘체르트하우스 Konzerthaus(Concert hall)와도 같은 의미인 것이다.

벨기에는 유럽 국가 중 거의 유일하게 고유어가 없다. 그래서 네덜란드어와 프랑스어, 그리고 독일어를 공용어로 삼고 있다. 벨기에 남부 왈롱 지역이 불어를 쓴다면, 브뤼헤가 속한 플란데런 지역은 네덜란드어를 쓰고 있다. 그러니 브뤼헤의 콘서트홀은 콘서트헤바우로 불리는 게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리고 2005년 외래어 표기법에 네덜란드어가 추가되면서 모든 알파벳을 영어식으로 발음하지 않고 현지 발음대로 표기함에 따라 콘서트헤바우(Concertgebouw)로 통일해서 읽고 있다.

붉은 외관을 지니고 길게 뻗은 건물은 얼핏 보면 공연장, 그중에서도 콘서트홀이라는 인식이 거의 들지 않는다. 브뤼헤의 도시 분위기하고도 상당히 이질적이다. 현대식 건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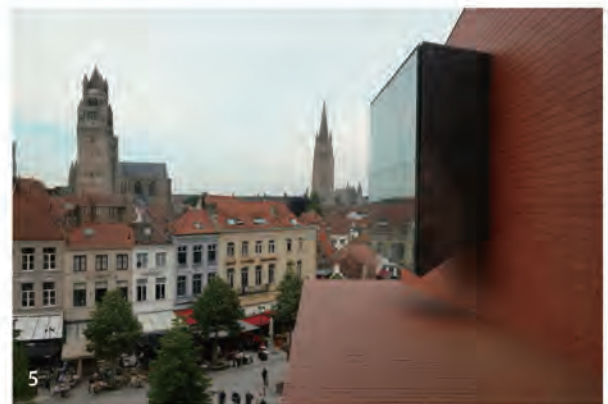
의 로비에 들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내부에 들어서서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건물 전체에 이르는 높은 층고의 로비와 홀을 잇는 복도이다. 노출 콘크리트로 마감한 길고 높은 복도 천정에 약 10여 개의 금속 소재로 만든 크기가 다른 종이 걸려있는데 아주 인상적이었다. 아니 그 어떤 조형물보다도 예술적이라는 느낌이 들었다.

건물 내부에 들어서면 아주 현대식의 콘서트홀이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독특한 마감으로 설계되었다. 보통은 붉은 계통으로 마감한 객석 의자의 패브릭은 검은색에 가까운 회색으로 되어 있어 모던한 느낌이 들며, 무대와 벽면은 의자와 반대로 흰색에 가까운 밝은 회색에 포인트를 준 요철 모양(코펜하겐 리브)의 나무 소재로 전체가 뒤덮여 있다. 이는 음향학적으로 난반사를 고려한 듯 보이지만, 디자인적으로도 효과적이다. 무대는 일반적인 콘서트홀에 비해서는 높은 층고를 가지고 있는데, 방향과 각도를 조절할 수 있는 음향 반사판이 3층 발코니 높이에 달려 있다.

대부분의 유럽 콘서트홀은 동명의 오케스트라가 같이 활동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는데 반해 브뤼헤 콘세르트헤바우에는 상주 오케스트라가 없다. 인구 11만의, 중세만 하더라도 유럽에서 가장 큰 도시 중의 하나였던 역사를 생각하면 이례적이다. 다만 이웃도시 헨트(Gent)를 근거지로 하고 있는 플란드르 심포니 오케스트라(Symfonieorkest Vlaanderen, The Flanders Symphony Orchestra: FSO)가 비교적 자주 이곳 공연장에서 연주하고 있다. 그래서 브뤼헤 콘세르트헤바우에서는 초청 오케스트라의 연주가 오히려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 필자가 2022년 방문했을 때에도 마침 유럽 투어 중이었던 이반 피셔가 지휘하는 부다페스트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를 만날 수 있었다. 브뤼헤와 이웃 도시인 헨트랑과는 불과 40분 거리이다. 브뤼헤에는 오페라 극장이 없지만 헨트에는 있고, 반대로 헨트에는 제대로 된 콘서트홀이 없다. 어쩌면 인접 도시인 브뤼헤와 헨트의 문화적 패시리티를 상호 보완하고 있는지도

모른다. 그리고 벨기에 최대 도시 앤트워프와 수도 브뤼셀과도 불과 100km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이번 달은 독일이나 오스트리아 등 다른 유럽 국가에 비해 비교적 덜 알려진 벨기에의 공연장에 대해 이야기하고 싶었다.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로 잘 알려진 앤트워프의 퀸 엘리자베스 홀(Queen Elizabeth Hall)이나 브뤼셀의 플라지(Flagey) 홀이 아닌 브뤼헤의 공연장을 먼저 소개한 건 암스테르담이 아닌 브뤼헤에서 만나는 콘세르트헤바우가 흥미로웠기 때문이다. 클래식 애호가 아님엔 콘세르트헤바우는 단어가 여전히 낯설 수 있지만 브뤼헤 콘세르트헤바우는 베를린 필하모닉, 빈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와 함께 세계 최고의 교향악단인 암스테르담 로열 콘세르트헤바우가 상주해 있는 콘세르트헤바우와 같은 이름을 지닌 콘서트홀이다.



5 콘세르트헤바우에서 바라본 구시가지 전경 6 콘세르트헤바우 외형 조형물

# 세계 3대 클래식 콩쿠르는 없다

장지영 국민일보 기자, 공연 칼럼니스트

지난 6월 한국인 연주자들의 해외 클래식 콩쿠르 우승 소식이 유난히 많이 전해졌다. 벨기에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바리톤 김태한이 우승했으며, 영국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의 가곡 부문에서는 테너 김성호가 1위에 올랐다. 또 러시아 차이콥스키 콩쿠르에서는 한국인 참가자들이 바이올린과 첼로, 성악 등 3개 부문의 우승을 휩쓸었다. 다만 차이콥스키 콩쿠르의 경우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으로 참가자 수와 국적 다양성이 줄면서 위상이 많이 떨어졌다. 국내에도 이름이 잘 알려진 이들 콩쿠르 외에도 여러 클래식 콩쿠르에서 한국인 참가자가 입상했는데, 이제는 우승이 아니면 언론에서 잘 다루지 않을 정도다.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이 콩쿠르에 몰리는 이유는 국제무대에 진출하기 위해 자신을 알리는 수단으로 콩쿠르만 한 것이 없기 때문이다. 특히 영향력 있는 구미 매니지먼트사와의 계약으로 다양한 연주 기회를 얻는 것이 핵심이다. 실례로 현재 국제무대에서 왕성하게 활동하는 피아니스트 조성진만 보더라도 여러 콩쿠르 출전을 거쳐 2015년 세계적 권위를 지닌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이후 솔레아 매니지먼트(지금은 KD슈미트)와 계약했다. 조성진이 쇼팽 콩쿠르 우승 직후 국내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더 이상 콩쿠르에 나가지 않아도 되니까 좋다”는 소감을 밝힌 것을 보면 한국 연주자들에게 콩쿠르가 어떤 의미인지 알 수 있다.

‘피아니스트들의 교과서’로 불리는 거장 안드라스 시프는 지난해 내한 인터뷰에서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에게 해주고 싶은 조언은 콩쿠르 출전을 멈추라는 것”이라며 “음악은 스포츠가 아니다. 경쟁을 그만둬라”라고 말했다. 한국의 젊은 음악가들이 경쟁에 매몰돼 음악의 본질을 잃는 모습을 안타까워한 것이다. 시프 외에도 클래식계에서는 연주를 점수나 당락으로 판단하는 콩쿠르에 대해 부정적으로 보는 시각이 적지 않다. 콩쿠르가 무결점의 고난도 테크닉을 중시하다 보니 젊은 연주자들의 개성이나 해석이 종종 무시되는 탓이다.

하지만 유럽 출신인 시프의 조언은 한국 상황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

다는 게 국내 클래식 전문가들의 한결같은 지적이다. 클래식 시장이 크고 콩쿠르가 아니어도 매니지먼트사의 낙점 기획이 많은 구미 연주자들과 한국 연주자들을 똑같이 바라봐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실례로 러시아의 예프게니 키신, 노르웨이의 레이프 오베 안스네스(이상 피아노), 미국의 사라 장(장영주·바이올린) 등은 특별한 콩쿠르 경력 없이 무대를 통해 경력을 쌓았다. 덧붙여 거장 지휘자나 원로 연주자들의 후원을 받아 국제 클래식 무대에 안착하는 사례도 오랫동안 클래식의 변방이었던 한국의 젊은 연주자들에게겐 쉽지 않은 길이다.

그런데, 한국 연주자가 콩쿠르에서 입상하면 어김없이 붙는 수식어가 있다. 바로 ‘세계적 콩쿠르’다. 적어도 세계 음악 콩쿠르 연맹(WFIMC)에 정식 등록된 국제 콩쿠르 120여 개가 그 대상이지만, 이들 안에도 등급이 있다. 그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로는 역대 입상자 리스트를 보면 된다. 예를 들어 4년마다 열리는 쇼팽 콩쿠르를 보면 1927년 1회 우승자인 레프 오보린(러시아)을 비롯해 블라디미르 아슈케나지(5회 2위), 마우리치오 폴리니(6회 1위), 마르타 아르헤리치(7회 1위),



- 1 1974년 차이콥스키 콩쿠르 2위 입상 후 가진 귀국 카퍼레이드의 정명훈 © 대통령기록관
- 2 2015년 쇼팽 콩쿠르에서 우승한 조성진 © 쇼팽 콩쿠르
- 3 2022년 반 클라이번 콩쿠르에서 우승한 임윤찬 © 반 클라이번 콩쿠르
- 4 2023년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우승한 김태한 © 주벨기에 한국문화원
- 5 2023년 BBC 카디프 싱어 오브 더 월드 가곡 부문에서 우승한 김성호 © BBC



2



4



3



5

크리스티안 치머만(9회 1위), 라파울 블레하츠(15회 1위) 등 입상자는 거장 피아니스트의 명단과 그대로 일치한다. 쇼팽 콩쿠르의 역사나 권위를 반박하기 어려운 이유다.

콩쿠르가 수상자에게 제공하는 부상도 대회의 권위를 보여준다. 상금도 중요하지만, 연주자에게 중요한 리사이틀과 협연 기회를 얼마나 주느냐가 관건이다. 피아니스트 김선욱과 임윤찬이 각각 우승한 영국 리즈 콩쿠르와 미국 반 클라이번 콩쿠르가 권위 있는 것은 각각 영국과 미국의 주요 오케스트라와 협연하고 세계 유수의 무대에서 독주회를 열어주기 때문이다. 다만 쾰른 엘자베스 콩쿠르, 차이콥스키 콩쿠르, 쇼팽 콩쿠르를 가리켜 '3대 클래식 콩쿠르'라고 부르는 것은 일본과 한국에서만 통용된다. 표제나 별칭 붙이기 좋아하는 일본에서 처음 만들어진 뒤 오랫동안 일본의 영향을 받은 한국에도 전해진 것이다. '바흐가 음악의 아버지이고 헨델이 음악의 어머니'라는 표현이 일본과 한국에서만 쓰이는 것과 마찬가지로, 한국 언론도 이런 표현이 맞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이젠 너무 일반화돼 있어서 쓰지 않을 수 없다.

메이저 콩쿠르에서 수상했다고 하더라도 국제무대에서 성공하는 것은 연주자 개인에 달려있다. 폐쇄적인 클래식계에서 연주자에게 '애프터 콘서트' 즉 네트워크 구축과 엄격한 자기 관리의 필수적이다. 콩쿠르 수상 이후 레퍼토리를 늘리지 못하는 등 커리어 관리에 소홀한 연주자는 오래지 않아 국제무대에서 도태된다. 그나마 국내에서라도 활동하는 것은 나은 경우다. 일부 연주자는 자기 관리를 못 해 연주력이 저하되는 것은

물론이고 구설에 오르다가 클래식계에서 사라지기도 한다.

한국 경제가 압축성장 과정에서 성장통을 겪은 것처럼 한국 클래식 역시 빠르게 성장한 만큼 어려움을 겪었다. 한국 출신 콩쿠르 수상자의 행보가 이를 잘 보여준다. 하지만, 시간이 흐를수록 기량과 열정을 겸비한 한국 연주자들이 세계 무대에서 맹활약하는 사례가 늘고 있다. 2010년대 이후 콧대 높기로 유명한 해외 유명 오케스트라에서 활약하는 한국인 연주자들이 빠르게 증가하는 것이 그 증거다. 정단원이 되기도 어려운 이들 오케스트라에서 한국인이 악장 또는 수석을 맡는 사례도 적지 않다. 최근엔 외국 음악대학의 교수로 자리 잡는 한국 연주자들이 많아지고 있다. 콩쿠르로 시작해 오케스트라를 거쳐 이제 강단에서 외국 학생들을 키워내는 위치에 이른 것이다.

한편 성악이나 발레 분야의 경우 기악 분야보다 콩쿠르 이후가 더 중요하다. 기악 분야는 콩쿠르를 계기로 독주자로서 스타덤에 오를 수 있지만, 성악가나 발레 무용수는 오페라단과 발레단에 들어가 조역이나 군무부터 시작해야 한다. 성악이나 발레에서 예술가 개인의 이름을 내건 무대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오페라나 전막 발레를 통해 스타가 된 이후에야 가능하다. 강수진 국립발레단장만 보더라도 1985년 스위스 로잔 발레 콩쿠르에서 우승한 뒤 그 이듬해 독일 슈투트가르트 발레단 군무로 입단했다. 강 단장이 슈투트가르트 발레단에서 국제적 주목을 받는 수석무용수가 된 것은 입단 이후 12년이 지나서였다.

# 크레타

바라지도 않고  
두려워도 않는 자유

## 서점 크레타 crete

박나무 자유기고가

스물네 살의 청년 강동훈은 제대 후에 뜻한 바 있어 대학의 어떤 동아리에 들어갔고, 신입회원을 모집하는 큰 강연을 기획하는데, 당대의 유명한 분들 중 한 명을 강사로 초빙하고 싶었다. 그러나 예산은 없었으니 “부산에 와서 자라나는 대학생들에게 무상으로 강의를 해주시면 좋겠다”는 이메일을 백여 명의 명사들에게 조금씩 내용을 달리해서 보낸다. 대부분은 답이 없었고, 단 세 명만이 정중한 거절의사를 보내왔다고 한다. 유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도 재능을 나눠달라는 부탁이 문제가 될 수 있는 요즘에 돌아보면 참 무모한 도전이지만, 또 그때이니 할 수 있는 제안이기도 했겠다. 이때 구본형 변화경영연구소장이 “나는 이 강연회에 가지 않겠습니다. 매력적이지 않아요. 내가 거절할 수 없는 이유를 만드세요”라는 거절도 승낙도 아닌 메시지를 보낸다. 강동훈은 NGO와 연계해 당시 지진피해를 입고 있던 아이티를 돕는 모금운동을 강연회와 엮어보기로 했고, 결국 구본형은 서울에서 부산까지 달려와 무료강연을 한다. 이때 구본형은 신여성 살이었는데, 직장인이 가장 만나고 싶어하는 강연가 1위였고, CEO들이 뽑은 최고의 변화경영이론가였다. 청년 강동훈에게 참 좋은 어른이었다. 청년과 어른을 이어준 건 구본형의 책이었고, 이후로도 선한 비즈니스에 대해 조언하고 배우기를 멈추지 않았지만 오래가지는 못했다. 구본형이 예순 살을 채우지 못하고 세상을 떠났기 때문이다.

이제 강동훈이 좋은 어른이 될 차례다. 책을 읽지 않던 청년은 독서모임을 주도하는 기획자로서 손꼽히는 사람이 되었고, 그것을 제대로 할 거점으로 서점 ‘크레타’를 전포동에







열었다. 오래된 건물 2층을 좁은 계단으로 올라가면 그리스인 조르바가 사랑했던 고향 크레타의 모습이 곳곳에 묻어있는 서점이 나타난다. 주인장이 권하는 도서들이 서가에 얼굴을 보이며 진열되어 있다. 강동훈식으로 셀프, 리딩, 브랜딩, 비즈니스, 로컬, 스페셜 등 여섯 개의 기준으로 나뉘었으니 그걸 참고해도 되고, 그이에게 책을 골라달라고 해도 된다. 책을 골라 자리에 앉으면 차 한 잔을 권할 것이다. 카페가 아니라서 차를 팔지 않고, 그냥 준다. 음료를 팔기 위해 책을 진열한 것이 아니라, 책을 잘 읽고 또 대화를 자연스럽게 하기 위한 매개일 뿐이다.

크레타의 관심은 책을 잘 파는 데 있는 것 같지는 않고, 책을 잘 읽는 데 있다. 끊임없이 이어질 독서모임을 위해 맞춤형 테이블을 정중앙(보통은 이 자리에 가장 잘 팔리는 베스트셀러들이 쌓여있다)에 배치했으며, 빔프로젝터와 스크린이 풍성한 모임을 이끌기 위해 상비 중이다. 세상은 홀로 살아가기 힘들지만, 고달프고 외로운 인간을 위해서 수많은 책들이 만들어졌고, 지금도 만들어지고 있다. 그중에 어떤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을지 잘 알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잘 모른다. 책 읽는 사람을 실제로 목격하기도 힘든 세상이다. 이때 찾아갈 수 있는 곳으로 부산에서는 크레타를 소개할 수 있겠다. 크레타의 독서모임은 더욱 다양한 형태로 진화하고 있다. 사람의 성격이 각자 다른만큼 다양한 방식으로 책을 읽도록 도와줄 것이고, 또 많은 젊은이들이 그것을 통해 어른이 되어 갈 것으로 기대한다. 저자와의 만남도 활발하게 성사될 것이고, 작가들과 함께하는 책읽기도 준비되어 있다. 전포동의 작은 섬 크레타에서 아주 큰 일들이 엮어질 예정이다.

<그리스인 조르바>를 쓴 카잔차키스는 1957년 10월 26일 세상을 떠났다. 우여곡절 끝에 고향 크레타에 묻혔는데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있다.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는다. 나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나는 자유다” 서점 크레타에는 이 묘비명을 원문으로 재현해두고 있다. 우리가 어른이 되어야 하는 이유, 비즈니스를 해야 하는 이유, 삶이 고달프지만 살아가야 하는 것, 눈이 침침하지만 책은 읽어야 하는 것, 지겹지만 교회에 가서 기도를 하고, 절에 가서 수없이 절을 하는 동인은... 모든 것의 궁극에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는 자유가 있기 때문이 아닐까. 강동훈이 이십대에 만난 구본형, 니코스 카잔차키스, 이윤기, 움베르트 에코, 헤르만 헤세... 그밖의 수많은 사람들은 이제 세상에 없지만 크레타의 서가에서, 독서모임에서, 또 다른 이들의 마음 속에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가며 숨는다. 그것이 자유의 힘이고, 독서의 미덕이겠다.



**운영시간** 화요일~토요일 낮 12:00~저녁 7:00(일-월요일 휴관)

**문의 서점 크레타** [instagram.com/bookspace.crete](https://www.instagram.com/bookspace.crete)

#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World EXPO 2030  
BUSAN, KOREA

OPERA & ART  
LECTURE CONCERT



## 나비부인 & 투란도트

기다림과 불멸의 또다른 이름, 사랑

2023. 8. 31. Thu. 19:30 |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미술관장인 이주현



해설가인 손지현

주최 | 부산문화회관

티켓 | R석 50,000원 / S석 30,000원

예매 | 부산문화회관

INTERPARK 티켓

문의 | 051) 607-6000 (ARS 1번)

# INVITATION TO THE

## G

가람아트홀	621-6669
가온아트홀	1600-1602
경성대학교 콘서트홀	663-5361
공간소극장	611-8518
국립부산국악원	811-0114
글로벌아트홀	505-5995
금정문화회관	519-5661-2

## D

동래문화회관	550-6611
대동대학교 D'ART홀	510-4838, 010-9429-7014
드림씨어터	1833-3755

## M

무지크바움	070-7692-0747
-------	---------------

## B

부산메트로홀	1600-0316
부산광역시 학생교육문화회관	605-5114
부산광역시 학생예술문화회관	366-8114
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북구문화예술회관	309-4081
부산민주공원	790-7400
부산시민회관	630-5200
부산예술회관	612-1372

## S

성원아트홀	1899-5435
소극장 6번출구	010-5232-1350
소민아트센터	991-2200
소향씨어터 신한카드홀	1644-2963

수아트홀	744-1415
시네바움	010-2774-3455
신명천지소극장	515-7314
스페이스 뭉	557-3369

## E

엑터스소극장	611-6616
에저포소극장	852-9161
얼린아트홀	527-0123
영도문화예술회관	419-5561
영화의전당	780-6000
용천지랄소극장	625-0767
울속도문화회관	220-5812
일터소극장	635-5370

## C

차성아트홀	728-0993
청춘나비아트홀	070-8241-2560
초콜릿팩토리	621-4005

## H

해운대문화회관	749-7651
효로민락소극장	623-6232

## B

BEXCO 오디토리움	740-7369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588-2757
BOF아트홀	0507-1330-3001

## K

KBS부산홀	620-7181
--------	----------

## 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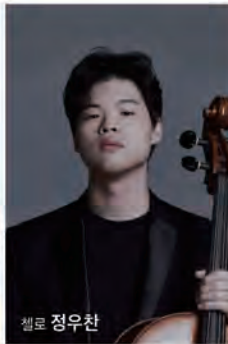
SM아트홀	1600-1602
-------	-----------

# ARTS

##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지휘 백승현



첼로 정우찬

★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깨 저녁 9시, 평소 공연장을 찾기 힘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가 8월 18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지난 2019년 첫 선을 보인 '심야음악회'는 그동안 실험적인 레퍼토리를 통해 관객들을 새로운 음악세계로 안내하면서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음악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한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우찬이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첼리스트 정우찬의 협연으로 연주되는 생상스 '첼로협주곡 제1번 가단조'는 프랑스 음악 특유의 세련되고 개성 있는 음색을 갖고 있으며, 3개의 악장이 마치 단일악장처럼 연속적으로 연주된다. 첼로의 음역대를 넓게 사용하고 다양한 연주 테크닉을 필요로 하기에 활을 능수능란하게 다룰 수 있는 비르투오소 연주가들이 선호하는 작품이기도 하다.

협연자 정우찬은 2022년 세계적인 권위의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

쿠르에서 입상하며 음악계의 주목을 받은 후 2022 윤이상국제콩쿠르에서 2위 및 윤이상 특별상을 수상하며 그 실력을 인정받았다. 2009년 만 10세에 금호영재콘서트로 데뷔한 정우찬은 2014년 제8회 영차이콥스키 국제콩쿠르 2위(모스크바)를 시작으로 2015년 제7회 신한음악상 수상, 2016년 동아음악콩쿠르 2위, 2017년 중앙음악콩쿠르 1위, 2018년 프라하 봄 국제 콩쿠르 심사위원 특별상, 2018년 KBS한전음악콩쿠르 은상 등 어려서부터 국내외 다수의 콩쿠르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며 두각을 나타냈다. 솔리스트로서 KBS교향악단, 경기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수원시립교향악단 등 국내 우수 오케스트라와 협연했으며, 이든 콰르텟 멤버로 실내악에도 꾸준한 관심을 가지며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다. 정우찬은 한국예술종합학교 예술사과정을 졸업한 후 현재 독일 베를린 한스아이슬러 음악대학 석사과정에 재학 중이다. 마지막 곡인 스트라빈스키의 '폴치넬라 모음곡'은 18세기 초의 이탈리아의 옛 음악들을 토대로 재구성된 신고전주의 양식의 발레 모음곡으로, 발레 초연 당시 레오니드 마신의 안무, 파블로 피카소의 미술 등 걸출한 예술가들의 협업으로 무대에 올라 화제가 됐다. '불새', '페트루슈카', '봄의 제전' 등 여타의 스트라빈스키 발레 음악과는 달리 옛스럽고 명량한 성격의 음악들로 이루어져 있다.

일 시 8월 18일 금요일 오후 9: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전석 1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 어린이 전용극장인 사랑채극장에서는 8월 18일부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가 무대에 오른다.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콘텐츠와 프로그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사랑채극장은 지난 2017년 개관 후 그동안 어린이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수성 발달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다양한 프로그램을 선보여왔다.

한국 최초 그림자극단인 극단 영의 '피터와 늑대'는 클래식을 처음 접하거나 익숙하지 않은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무대로,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 작품인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피터와 늑대'는 프로코피예프가 어렸을 때 어머니로부터 즐겨 들던 러시아의 옛이야기를 떠올리며 직접 이야기를 만들고 작곡한 작품이다. 지난 1936년 모스크바 음악원이 개최한 어린이 음악회에서 초연된 후 이듬해 미국 초연무대에서도 큰 호평을 받으면서 오늘날까지도 영국 작곡가 브리튼의 '청소년을 위한 관현악 입문'과 더불어 어린이를 위한 음악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피터와 늑대'는 용감한 소년 피터가 숲속의 늑대와 싸워 착한 동물을 구한다는 내용으로, 주인공 피터와 늑대, 할아버지, 새, 고양이 등 여러 등장인물을 각기 다른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작품에서 용감한 소년 피터는 현악 5부 합주로 표현하고 완고한 할아버지는 바순, 피터의 친구인 작은 새는 플루트, 이 작은 새를 호시탐탐 노리는 고양이는 클라리넷, 무서운 늑대는 3개의 호른, 늑대에 게 잡아먹히는 오리는 오보에, 그리고 늑대를 잡는 사냥꾼의 총소리는 팀파니와 큰북으로 묘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는 대사가 있는 그림자 인형극으로 진행되면서 어린이들을 풍부한 상상력의 세계로 초대한다.

지난 1984년 창단 후 그림자극과 인형극을 주로 제작해온 극단 영은 '피터와 늑대', '동물의 사육제', '불새', '비발디의 사계' 등 클래식과 그림자극이 함께하는 특별한 무대로 관객들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왔다.

일 시 8월 18일(금)-9월 24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관람 시간 상이)

장 소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입장료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 ◆ 제주의 아픈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킨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이 부산을 찾는다.

'순이삼촌'은 제주4·3이 여전히 끝나지 않은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사실을 알리기 위한 4·3창작오페라로, 2021년 경기아트센터, 2022년 세종문화회관 공연에 이은 3번째 전국무대이다.

4·3이 금기시되던 시절, 제주4·3을 세상에 널리 알린 현기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제주4·3 당시 제주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바탕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 '순이삼촌'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영상과 삽화, 낭송, 자막 등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하여 웅장하고 섬세한 오페라와 세련된 뮤지컬의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제주4·3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지난해는 한국문화콘텐츠비평협회가 주최, 주관하는 '제1회 세상을 바꾼 콘텐츠·망각을 일깨운 콘텐츠 상'을 수상한 바 있다.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총 4막로 구성되어 있다. 1막에서 할아버지의 제사를 지내기 위해 8년 만에 고향 북촌으로 돌아오게 된 주인공 상수가 먼 친척이었던 순이삼촌이 자살했다는 비극적

인 소식을 듣게 되면서 그동안 외면했던 자신의 기억 속 북촌을 떠올린다. 2막에서는 과거 1948년, 군 소개령 이후 자행되었던 집단학살의 현장으로 관객들을 이끌고 3막에서는 폐허로 변해버린 마을에서 살아남은 노인들과 부녀자, 아이들은 군인들의 삼엄한 감시 속에 새로운 성을 쌓는다. 다시 현재로 돌아온 4막에서는 과거 아이를 잃고 유령처럼 살아남은 순이삼촌이 깊은 회한에 잠겨며 쓸쓸히 생을 마감하는 장면으로 막이 내린다.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은 원작자인 현기영과 강해명 예술총감독을 비롯해 제작진 및 배우 등 제주의 문화예술인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면서 우리나라를 대표할 수 있는 공연 콘텐츠로 탄생시켰다. 시인 김수열의 대본, 제주교향악단 상임 편곡자 최정훈 작곡가의 음악에 제주 출신의 화가 강요배, 사진작가 강정효, 그리고 제주 출신의 배우들까지 대거 참여했다.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오페라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제주를 넘어 부산시의 청년 예술가 및 공연팀, 청소년들이 함께하면서, 예술을 통해 4·3의 역사를 공감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소통의 의미를 더한다.

**일 시**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초대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 **어린이를 위한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가 8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서울시발레단이 제작한 이번 무대는 '쌍구엄마'로 유명한 KBS 성우 송연희가 직접 들려주는 힐링 동화극으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발레에 연극적인 요소와 내레이션이 더해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발레의 교과서적인 작품으로 꼽히는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프랑스 작가 샤를 페로가 쓴 동명의 동화를 모티브로 한 작품으로, 마녀의 저주에 걸려 긴 잠에 빠진 오로라 공주가 이웃나라 데지레 왕자의 키스로 깨어난다는 이야기를 담고 있다. '백조의 호수', '호두까기 인형'과 더불어 차이콥스키의 3대 발레음악으로 꼽히는 작품으로, 특히 초연에서 실패했던 '백조의 호수'와는 달리 차이콥스키 생전 흥행을 거두었던 유일한 작품으로 알려져 있다.

지난 2019년과 2021년에 이어 올해 방방곡곡 문화공감사업에 선정된 '잠자는 숲속의 미녀'는 기존의 전막 공연이나 갈라 무대가 아닌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로 작품을 새롭게 구성, 프로 무용수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발레 공연 외에도 성우와 아역배우의 컬래버레이션, 인형극,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져

관극의 재미를 더한다.

엄마가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는 프로그램을 시작으로 총 3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특히 3막에서는 기존 발레공연에 등장하는 오로라 공주와 데지레 왕자의 그랑파드되(2인무) 외에도 마법사, 원숭이, 강아지, 다람쥐, 사슴 인형의 춤과 고양이 2인무, 파랑새 2인무, 빨간 두건을 쓴 소녀와 늑대 2인무 등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다양한 동물 친구들이 등장, 보다 친근하게 다가간다.

지난 2009년 창단한 (사)서울시발레단은 클래식 발레를 바탕으로 한 수준 높은 컨템포러리 레퍼토리를 보유한 단체로,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으로 발레 대중화에 앞장서왔다. 특히 어린이, 청소년, 가족 단위의 관객들이 공연장을 찾을 수 있도록 명작동화를 기반으로 한 독창적인 작품을 선보여왔으며, '효녀 심청', '깨비와 흑부리 영감', '흥부와 놀부' 등 한국의 전래동화를 소재로 한 발레극을 통해 한국 전통의 소리와 아름다움, 효를 알리며 한국 창작 발레의 세계화를 위해 꾸준한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한편, 이번 공연은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의 일환으로 사업비의 일부를 문예진흥기금으로 지원 받아 진행된다.

**일 시** 8월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장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4만원, 5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 Beyond The Magic



◆ 디즈니의 꿈과 희망을 음악으로 전하는 마법같은 무대 '2023 디즈니 인 콘서트'가 8월 26일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콘서트로, 눈부시게 선명한 대형 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30인조 디토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그동안 미국, 영국 및 유럽, 일본, 홍콩, 대만, 카타르 등 세계 유명 공연장에서 150회 이상 공연해오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2014년 올림픽공원 잔디마당에서 열리는 크레디아 파크콘서트에서 첫 내한 공연을 가진 이후, 매년 호평과 열광 속에서 흥행을 이어오고 있다. 지난 2018년부터는 실내 무대인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일부 회차를 조기 매진시키며 디즈니 팬들의 결집력을 보여주었으며, 2020년 11월에 열린 내한 공연은 팬데믹으로 지친 한국의 관객들에게 잊을 수 없는 마법같은 시간을 선사하며 뜨거운 환호를 이끌어냈다. '디즈니 인 콘서트'는 2021년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으로 부산시민들과 첫 만남을 가진 후 매년 부산에서도 콘서트를 가져오고 있다.

'Beyond the Magic'이라는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인어공주', '라이온 킹', '알라딘', '미녀와 야수' 등 오랜 기간 전 세계인의 사랑을 받아온 클래식 명작부터 '라퐁젤', '모아나', '겨울왕국', '엔칸토' 등 최근에 개봉하여 꾸준히 사랑받고 있는 작품의 수록곡까지 한 편의 뮤지컬 같은 생생함으로 디즈니가 선사하는 특별한 감동을 만날 수 있다. 특히 영화 '알라딘'에서 '알라딘' 역으로 우리말 노래 더빙에 참여하고 뮤지컬 '킹키부츠', '몬테크리스토' 등에서 대체 불가능한 매력을 보여준 뮤지컬 배우 신재범과 뮤지컬 '하데스타운', '킹키부츠'의 히로인이자 '2022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을 통해 이미 실력을 입증한 김한희, 그리고 김한희와 함께 지난해 무대에 함께 섰던 매력적인 목소리의 홍경아, 뮤지컬계의 라이징 스타 이종석이 더욱 탄탄하고 실감나는 연기와 노래를 선보인다.

일 시 8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Ⅱ 나비부인&투란도트



해설 이주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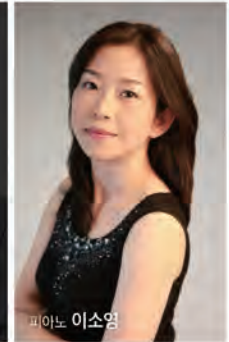
진행 손지현



소프라노 정혜민



테너 허동권



피아노 이소영

◆ 오페라와 미술이 만나는 특별한 시간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두 번째 무대가 8월 31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 펼쳐진다.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시리즈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는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로 활동하고 있는 이주현이 해설하고 아나운서 손지현이 진행하는, 오페라와 그림, 그리고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로, 종합무대예술이라 할 수 있는 오페라를 그림과 함께 친절한 해설로 유쾌하게 풀어낸다. 이번 무대에서는 일본, 중국을 배경으로 이국적이고 다채로운 연출이 더해져 매 공연마다 관객들의 눈과 귀를 사로잡는 푸치니의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가 무대에 오른다. 푸치니가 가장 사랑한 오페라 '나비부인'은 일본 나가사키를 배경으로, 돌아오지 않을 미국 해군장교 핑커톤 중위를 홀로 기다리다 비극적 최후를 맞이하는 초초상의 이야기를 푸치니 특유의 서정적이고 극적인 선율로 그려낸 작품이다. 푸치니 최후의 역작인 오페라 '투란도트'는 고대 중국 베이징의 냉혹한 공주 투란도트와 그녀의 사랑을 얻기 위해 세 가지 수수께끼에 도전하는 칼라프 왕자의 이야기로, 극적인 음악과 화려한 연출로 유명하다. 특히 이번 무대

에서는 푸치니가 작곡한 두 오페라의 아름다운 아리아와 함께 당시 서양사람들이 오리엔트 지역에 품었던 환상이 고스란히 담겨진 작품을 소개한다. 더불어 오페라 주제와도 관련된 자포니즘(Japonism)과 남녀간의 밀당을 주제로 한 신화 그림도 함께 살펴본다. 관객들을 미술관으로 안내할 이주현은 홍익대학교 서양화과를 졸업하고 한겨레신문 문화부 미술 담당 기자, 미술 잡지 편집장을 거쳐 학교재 갤러리와 서울미술관 관장을 역임했다. 이번 무대에서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의 주요 아리아는 소프라노 정혜민, 테너 허동권이 들려준다. 이탈리아 라 페니체 국제콩쿠르, 아르데인 칸토 국제콩쿠르, 브레시아 마리아 칼라스 콩쿠르에서 입상하고 제54회 베니스 비엔날레 국제음악제 오페라 주역으로 무대에 선 소프라노 정혜민은 오페라 '나비부인'의 유명 아리아 '어느 개인 날'을, 이태리 카루소, 알카모, 비씨 다르페, 브린디시 국제콩쿠르에서 입상하고 현재 서울 이마에스트리 단원으로 있는 테너 허동권은 오페라 '나비부인' 중 '잘 있오라, 행복했던 집이여', 오페라 '투란도트' 중 '공주는 잠 못이루고'를 들려준다. 피아노 반주는 경남오페라단 음악감독, 아토오페라 앙상블 예술감독, 부산반주연구회 회장으로 있는 피아니스트 이소영이 맡는다.

일 시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정 소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입장료 R석 5만원, 5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 가을의 시작을 알리는 여성 재즈의 향연,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가 9월 1일과 2일 이틀간 부산시민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는 (재)부산문화회관이 지난해 새롭게 선보인 대중음악 축제의 장으로 락, 재즈, 팝 등 다양한 음악을 선보였던 2022년 무대와는 다르게 올해는 여성 재즈보컬리스트들의 축제로 꾸며진다.

첫날인 9월 1일에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디바 이은미와 파워풀하면서도 유니크한 목소리의 위나, 특유의 파스함으로 감성 깊은 재즈음악을 노래하는 최은아가 관객과 만난다. 명실상부 최고의 보컬리스트 이은미는 이번 무대에서 오랜 시간 호흡을 맞춰온 민경인 트리오와 함께 재즈음악으로 자신의 이야기를 전한다. 재즈 피아니스트 민경인은 다양한 장르를 자유자재로 소화해내는 한국에서 드문 재즈피아니스트로, 기타리스트 찰리 정, 드러머 한웅원, 베이스리스트 최진배와 함께 민경인 트리오를 구성, 탁월한 곡 해석 능력과 화려한 무대 매너로 많은 팬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재즈보컬리스트 위나는 6집 정규앨범을 통해 더욱 단단히 결속된 조운성 트리오와 무대를 꾸민다. 미국 재즈계에서 인정받은 피

아니스트 조운성과 드러머 신동진, 베이스리스트 황호규로 구성된 조운성 트리오가 이번 무대에서 역동적인 색션연주와 즉흥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을 예정이다. 더불어 재즈보컬리스트 최은아와 피아니스트 장세연, 드러머 곽영일, 베이스리스트 신세영으로 구성된 최은아 콰텟은 정통 스탠다드 재즈넘버를 스윙과 보사노바로 새롭게 편곡, 대중들에게 가깝게 다가간다.

둘째 날인 9월 2일에는 '스캇의 여왕' 재즈보컬리스트 말로가 무대에 선다. 가장 예술적이면서도 가장 한국적인 보컬로 평가받는 말로는 이번 무대에서 피아니스트 이명건, 기타리스트 황이현, 드러머 이도현, 베이스리스트 정영준과 함께 압도적인 무대를 펼친다. 지난해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를 찾아 많은 박수를 받았던 일본을 대표하는 재즈보컬리스트 시호도 드러머 시게키, 피아니스트 민주신, 베이스리스트 김대경과 함께 관객과 만난다. 시호는 지난 2001년, 재즈 듀오 'Fried Pride'의 보컬로 데뷔한 후 독보적인 가창력과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무대매너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재즈 싱어송라이터로 자신만의 색을 구축해온 이효정과 피아니스트 김대규, 베이스리스트 박주민, 드러머 피오토르 파블락으로 구성된 이효정 밴드는 개성 강한 자작곡들과 다채롭게 편곡된 커버곡들로 깊은 울림을 주는 무대를 선사한다.

**일 시** 9월 1일 금요일 오후 7:00, 2일 토요일 오후 3:00    **장 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8만원, S석 5만원, A석 3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IV

###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2회 정기연주회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 부산시립교향악단이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제602회 정기연주회이자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로 관객과 만난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지난 2010년 첫 발을 내딛은 후 그동안 부산을 대표하는 클래식 음악축제로 자리매김해오고 있으며, 지난 2021년부터는 부산시립교향악단이 공동주관으로 매년 메인콘서트 무대에 서오고 있다.

최수열 예술감독이 지휘하는 이번 공연은 작곡가들의 마지막 작품들을 소개하는 '6 Last Works' 시리즈의 네 번째 무대로, 메시앙과 쇼송, 라벨, 비제 등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 네 명의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자크 티보, 지네트 느브, 크리스티앙 페라스로 이어지는 프랑스 바이올린의 계보를 잇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가 협연한다.

첫 곡인 '미소(Un Sourire)'는 20세기 프랑스를 대표하는 작곡가인 올리비에 메시앙이 생애 마지막으로 위촉받아 쓴 작품으로, 1991년 '모차르트 서거 200주기'를 기념하기 위해서 작곡된 곡이다. 작품 속에 간결함과 복잡함, 경건과 익살, 희극과 비극의 공존을 단아한 형식미로 담아냄으로써 모차르트 음악의 정신

을 기리고 있다. 이어지는 곡은 19세기 후반 낭만주의와 인상주의를 잇는 가교 역할을 한 쇼송의 바이올린과 관현악을 위한 '시(Poème)'로, 44세라는 아까운 나이에 작고한 쇼송이 남긴 작품들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명곡이다. 또 다른 바이올린 협주곡인 '치간(Tzigane)'은 관현악법의 대가 라벨이 집시음악의 정신을 형상화한 곡으로, 프랑스어로 '집시'를 의미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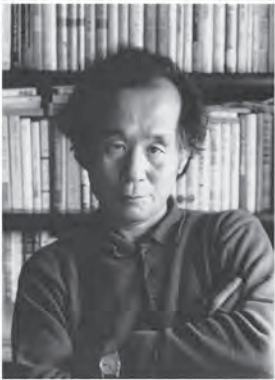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지난 2008년에 이어 두 번째로 부산시립교향악단과 호흡을 맞추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의 협연으로 '시(Poème)'와 '치간(Tzigane)'을 들려준다.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뮌헨, 몬트리올, 시벨리우스 콩쿠르와 인디애나 폴리스 등에서 입상하며 이름을 알렸고 프랑스 국립오케스트라, 런던 필하모닉, BBC 필하모닉, 베를린 심포니, 등 세계 유수의 오케스트라들과 협연무대를 가졌다. 첼리스트 양성원이 결성한 트리오 오원의 멤버로 한국에서도 친숙한 올리비에 샤를리에에는 현재 프랑스 파리국립고등음악원에서 후학양성에도 힘쓰고 있다.

마지막 곡으로는 비제의 오페라 '카르멘' 모음곡 중에서 발췌한 '투우사', '전주곡', '투우사의 노래', '세기달라', '아라곤 여인', '아바네라', '집시의 춤'을 통해 프랑스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일 시 9월 7일 목요일 오후 7:30 장 소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R석 2만원, 5석 1만5천원, A석 1만원, B석 5천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의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 최민식과 다큐멘터리 사진전



“나는 50여 년간 <인간>을 찍어왔다. 얼마나 많은 시간을 길 위에서 보냈으며,  
허기진 배를 안고 잠든 소년은 벌써 노인이 되었다. 사진은 순간으로 남아  
우리에게 영원이라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나의 정신과 그 시대상을 드러내며, 이는 역사의 기록으로 남긴다.”

<최민식, 2012>

1	2	3	4
5			6
7	8	9	

- 1 최민식, 부산, 1963 ©CHOIMINSHIK
- 2 최민식, 부산, 1967 ©CHOIMINSHIK
- 3 최민식, 부산, 1969 ©CHOIMINSHIK
- 4 최민식, 부산, 1970년대 ©CHOIMINSHIK
- 5 최민식

- 6 임종진
- 7 임종진, 르완다, 2018 ©LIMJONGJIN
- 8 임종진, 필리핀, 2018 ©LIMJONGJIN
- 9 임종진, 캄보디아, 2019 ©LIMJONGJIN



<b>일시</b>	8월 4일(금)-9월 8일(금)
<b>장소</b>	부산시민회관 제1, 제2전시실
<b>운영 시간</b>	오전 10:00~오후 6:00 (입장마감 오후 5:00) ※ 매주 월요일, 8월 15일 휴관
<b>관람료</b>	무료
<b>문의</b>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 전시 프로그램

- 제1전시실  
최민식 사진전 '소년시대 少年時代'
- 제2전시실  
최민식 이어보기  
-임종진 시선전 '사람이 사람을 보다'

#### 특별 프로그램

- 나의 아버지, 최민식을 말하다  
8월 4일(금), 9월 1일(금) 오후 2:00
- 임종진 작가의 '시선'  
8월 19일(토) 오후 2:00

#### 전시해설 프로그램

매주 금·토·일요일 오후 2:00, 4:00(2회)  
※ 8월 4일(금), 8월 19일(토), 9월 1일(금)  
오후 2:00 전시해설은 특별 프로그램으로  
대체됩니다.

#### 체험 프로그램

테이크 어 픽처 쇼 Take a Picture Show  
※ 전시기간 중 상설운영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을 맞아 부산의 반세기를 사진에 담은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과 그의 정신을 잇고 있는 사진치유자 임종진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전을 개최한다.

### 가장 한국적인 사진작가 최민식

올해는 최민식 작가가 작고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로,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을 '인간'에 천착하며 '시대의 그늘과 애환'을 담아온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주로 힘없고 소외된 사람들의 남루한 일상을 찍으며 '가장 한국적인 사진작가'로 불렸던 최민식 작가는 1967년, 영국 사진연감에 '카메라계의 렘브란트'라 불리며 한국작가로서는 처음으로 6점의 작품이 수록되기도 했으며 이후 전 세계에 한국을 대표하는 다큐멘터리 사진가로 이름을 알렸다. 대한민국 사진계의 1세대이자 거장으로서 지역사회에서 정기적으로 사진 특강을 개최하거나 여러 대학에 출강을 나가는 등 후학 양성에 힘을 쏟았으며, 2000년에는 그의 공로를 높이 기려 옥관문화훈장을 수여받기도 했다.

이번 회고전에서는 최민식 작가의 작품 중에서도 특히 '소년少年'을 찍은 사진들을 중점적으로 모아 소개한다. 여기서 소년은 단순히 '남자아이'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어린아이', '유년의 시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작가가 지난 60여 년 동안 자갈치시장, 광안리해변, 영도골목, 부산역 등지에서 촬영한 각계 각층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긴 160점의 작품을 소개한다. 특히 이번 전시를 통해 주로 한국 근현대사의 민낯을 보여주었다는 최민식 사진에 대한 선입견을 불식시키고, '어린'이라는 접근하기 쉬운 주제를 통해 그가 추구했던 생명에 대한 '존엄'과 '사랑'을 보여준다. 최민식 사진전 '소년시대 少年時代'는 제1전시실에서 열린다.

### 최민식 작가의 정신을 잇는 사진치유자 임종진

제2전시실에서는 최민식 작가의 정신을 잇는 이 시대의 시인, 임종진 작가의 대표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본인 스스로 '사진치유자'로 이름 붙인 임종진 작가는 사진기자로 일하던 시절, 어려운 상황에 놓인 이들을 취재하면서 사진의 쓸모를 고민하기 시작했으며, 언론사를 그만둔 후에는 캄보디아의 국제구호기관에서 활동하면서 무료 사진관을 열기도 했다. 귀국 후에는 사진이 지닌 치유와 회복의 힘을 전하는 전문 사진심리상담가로 국가폭력이나 부실한 사회안전망으로 상처를 입은 이들, 그리고 마음 회복을 필요로 하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사진치유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최민식이 '인간이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셔터를 눌렀다면, 임종진 작가는 '어떻게 사람을 바라볼 것인가?'를 두고 셔터를 누른다. 사회적 약자들을 연민과 동정의 대상이 아닌 존귀한 실체적 존재로 담아내는 임종진의 사진과 글은 최민식 사진의 정신을 이어 이 시대 사진의 역할을 고민하게 한다.

특히 8월 4일과 9월 1일에는 최민식 작가의 유가족이 직접 들려주는 '나의 아버지, 최민식을 말하다', 8월 19일에는 임종진 사진치유가가 직접 자신의 이야기를 들려주는 '시선' 등 특별 프로그램이 진행된다.

##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2023 14th Busan Maru International Music Festival

# 희망을 그리다

DRAWING HOPE

8월 31일(목)~9월 22일(금)

부산문화회관,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區 문화회관 외 부산 전역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문화도시 부산을 위한 최정상의 클래식 음악축제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가 8월 31일 그 화려한 막을 연다. 지난 2010년 첫걸음을 내딛은 후 그동안 국내뿐 아니라 세계의 관심 속에 눈부신 성장을 거듭해온 부산마루국제음악제는 2020년 코로나19의 대유행으로 공연규모가 축소되는 등 한 동안 어려움을 겪었지만 지난해부터 차츰 정상 궤도에 오르면서 올해부터는 더욱 업그레이드된 모습으로 관객과 만난다.

올해 부산마루국제음악제의 주제는 '희망을 그리다 Drawing Hope'. 코로나19를 극복하고 그동안 꿈꿔왔던 예술의 세계를 음악제 기간 동안 희망차게 펼쳐간다는 의미를 포함하고 있다.

올해는 불가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와 천부적인 음악적 재능을 바탕으로 세계 무대에서 활약하고 있는 러시아 피아니스트 소피아 바쉐룩, 독일 쾰른음대 동문인 피아노듀오 신왕&플로리안 콜튼, 프랑스 바이올린의 계보를 잇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 중국에서 가장 뛰어난 피아니스트로 사랑받는 지에 위안과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우승자 바리톤 김태한 등 세계적인 연주자, 성악가들이 부산을 찾아 클래식 음악의 진수를 선사한다.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대표하는 **메인콘서트**는 8월 31일 개막 콘서트를 시작으로 모두 5차례 펼쳐진다.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개막콘서트의 주인공은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로,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소피아 바쉐룩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18'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는 2000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지휘자로 임명된 후 약 20년간 수석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판초 블라디게로프 음악원 전임 교수이자 2005년부터 파자르지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 총감독을 맡고 있다.

9월 1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메인콘서트 두 번째 무대는 예선을 걸쳐 선발된 본선 진출자들이 경연을 펼치는 콘체르토 컴피티션 본선무대로, 황예빈(바이올린), 임효린(오보에), 정윤제(바이올린), 박지수(트럼본), 안려홍(피아노), 박지영(피리), 크레시다 샤프(소프라노), 윤유리(비올라), 윤기훈(피아노)이 지휘자 최영선이 이끄는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와 협연무대를 갖는다. 지휘자 최영선은 오페라와 고전 및 낭만음악은 물론 현대음악, 크로스오버, 팝, 가요 등 여러 장르를 두루 소화하고 있으며, 작곡과 편곡능력은 물론 피아노 연주에도 탁



그리고르 팔리카로프



최영선



최수열 ©황인철



서희태

월한 재능을 보이고 있다. 밀레니엄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03년 창단한 순수 민간교향악단으로 대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오케스트라로 성장해왔다.

9월 2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가 지휘하는 중국 난징 장쑤 심포니오케스트라가 메인콘서트 세 번째 주자로 무대에 선다. 이날 무대에서는 독일, 스위스,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프랑스,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스페인, 중국, 홍콩에서 괄목할 연주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피아노 듀오 신왕&플로리안 콜튼의 협연으로 체르니 '네 손을 위한 피아노 협주곡 작품 153'과 브루크너 교향곡 제1번을 들려준다. 1979년 창단된 장쑤 심포니오케스트라는 2019년 뉴욕 링컨 센터, 베를린 국립 오페라 하우스, 함부르크 엘필하모니 콘서트 홀 등 유명 공연장에서의 성공적 연주 투어를 통해 현지 음악인들과 음악 애호가들로부터 극찬을 받은 바 있다.

메인콘서트 네 번째 무대는 9월 7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펼쳐진다. 부산시립교향악단 제602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바이올리니스트 올리비에 샤를리에의 협연으로 프랑스를 대표하는 네 명의 작곡가, 메시앙의 '미소와 쇼송 시', 라벨 '치간', 비제 '카르멘 모음곡'을 들려준다. 지난해 창단 60주년을 맞은 부산시립교향악단은 국내에서 세 번째로 오랜 역사를 지닌 부산의 자존심으로, 1997년에는 대한민국 교향악단 최초로 미국 카네기홀 무대에 오른 바 있다.

9월 20일 부산문화회관 중극장에서는 피아니스트 지에 위안이 협연하는 KNN방송교향악단의 연주로 메인콘서트 마지막 무대가 펼쳐진다. 2016년 창단한 KNN방송교향악단은 부산, 경남 지역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와 인재 육성에 힘써왔으며, 다양한 무대를 통해 지역주민과 함께하는 교향악단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다. 지난해부터 교향악단을 이끌고 있는 상임지휘자 서희태는 (사)뉴서울필하모닉오케스트라 음악감독 겸 수석지휘자, (사)한국오페라단 음악감독으로도 활동하며 클래식 음악의 대중화에 앞장서고 있다.

초청연주자들의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만날 수 있는 **앙상블 콘서트**는 올해 모두 7차례 펼쳐진다. 9월 6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에서는 탁월한 감성과 뛰어난 앙상블 연주로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피아노 듀오 실버&가버그의 무대가, 7일 BNK 부산은행 본점 오션홀에서는 일본 필하모닉 교향악단의 솔로 트럼페터인 오타비아노 크리스토포리의 음악 교육 아카데미에서 시작된 뮤직 시스템 재팬(Music System Japan)의 무대가 펼쳐진다. 9월 13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운사당 대표이자 국가무형문화재 가야금산조 및 병창 이수자인 정자경과 박혜선, 장유리(가야금병창), 김지윤, 최광자, 정지혜(무용), 소민영(판소리), 윤승환(고수)이 출연, 우리의 멋과 흥이 살아있는 전통국악과 무용을 선보인다.

또, 같은 날 동래문화회관에서는 이석중, 반선경(바이올린), 진덕(비올라), 윤여훈(첼로), 피터 오브차로프(피아노), 9월 15일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에서는 김동욱, 프레드릭 모로(바이올린), 최영식(비올라), 강윤선(첼로), 이지영(플루트), Cristian Marcia(기타), Marco Schirru(피아노) 등 실력있는 솔리스트들이 환상적인 앙상블 무대를 선사하며, 같은 날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실내악 경연인 부산국제실내악컴피티션 위너 콘서트가 열린다. 9월 19일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에서는 앙상블 콘서트 마지막 무대로, 김현오(바이올린), 김지영(첼로), 김정권(피아노), 키슈(피아노), 슈 지희(피아노), 하나와 미사토(색소폰), 코야마 노도카(피아노)가 함께하는 한·중·일 프렌드리 콘서트가 펼쳐진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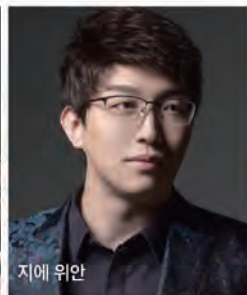
소피아 바쉐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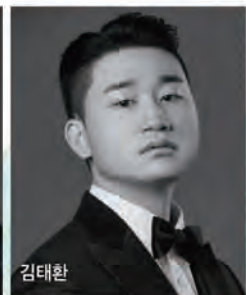
신왕&플로리안 콜튼



올리비에 샤를리에



지에 위안



김태환

관객에게 더욱 가깝게 다가가기 위한 ‘프롬나드 콘서트’는 올해 5차례 진행된다. 작곡가이자 더블베이스스트 장 펠릭스 마이유가 이끄는 앙상블 CORDÂME와 Music Sytem Japan은 9월 8일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9일 동래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시민들과 만나며, 12일 영도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최종완(바이올린), 나윤채(비올라), 이에성(첼로), Marco Schirru(피아노)의 피아노 사중주와 호흡을 맞춘다. 9월 15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는 열리는 ‘지브리 음악 대축전’에 이어 20일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에서는 BMIMF 빅밴드의 흥겨운 무대가 펼쳐진다.

올해 **스페셜 콘서트**에서는 차세대 연주자에서부터 중견음악인까지 지역 음악인들의 열정 넘치는 무대 ‘부산음악인 시리즈’를 비롯해 부산지역 내 특정장소를 직접 찾아가 공연하는 ‘아웃리치 콘서트’, 그리고 실력있는 앙상블팀의 경연무대 ‘제2회 부산국제실내악컴피디션’ 본선 갈라콘서트,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즈콘서트 in Busan이 펼쳐진다. 특히 9월 1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에서 열리는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즈콘서트 in Busan에서는 올해 6월, 벨기에 브뤼셀에서 폐막한 2023 퀸 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성악부문에서 1위 입상한 바리톤 김태환과 소프라노 콘트랄로 재스민 화이트(2위), 소프라노 율리아 무치첸토(3위)가 지휘자 서희태가 지휘하는 KNN방송교향악단 연주로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특히 팬데믹을 계기로 2020년부터 새롭게 기획된 **국제영상음악제**는 올해 영화의전당 야외극장에서 9월 13일과 19일 이틀간 진행된다. 이번 국제영상음악제에서는 지난해 상영되어 뜨거운 호응을 얻었던 세계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로얄콘서트헤보우오케스트라와 런던심포니오케스트라의 또 다른 연주실황을 실감나는 영상과 음향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이밖에 2006년 전국시도 교육청 최초로 창단된 청소년오케스트라인 부산교문청소년오케스트라 무대로 펼쳐지는 ‘스쿨 콘서트’, 차세대 오케스트라 육성을 위한 드림 프로젝트 등 청소년들을 위한 다채로운 프로그램도 진행된다.

주요 행사일정

☆ 메인콘서트

-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9월 1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9월 2일(토)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9월 7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9월 20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

☆ 부산 국제 실내악 컴피디션 갈라콘서트

- 9월 2일(토) 오후 5: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앙상블콘서트

- 9월 5일(화)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9월 7일(목) 오후 7:30 BNK부산은행 본점 오션홀
- 9월 13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9월 13일(수) 오후 7:3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9월 15일(금) 오후 7:30 을숙도문화회관 대공연장
- 9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9월 19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

☆ 프롬나드콘서트

- 9월 8일(금)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9월 9일(토) 오후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 9월 12일(화) 오후 7:30 영도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
- 9월 15일(금)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9월 20일(수) 오후 7:3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 국제영상음악제

- 9월 13일(수), 19일(화) 오후 8:00 영화의전당 야외극장

☆ 부산음악인시리즈

- 9월 14일(목)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 9월 21일(목)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9월 22일(금)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 퀸엘리자베스 국제콩쿠르 위너즈콘서트 in Busan

- 9월 14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문예회관, 예술단체 공연콘텐츠 공동제작·배급 프로그램

어린이 뮤지컬 **초록별 튼튼 모험대**

**일정** 8월 25일(금) 오후 7:30, 26일(토)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9월 1일(금) 오후 7:30, 2일(토) 오후 4: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9월 8일(금) 오후 7:30, 9일(토) 오후 4:00 영도문화예술회관 봉래홀

**입장료** 전석 2만원(5세 이상 관람)

**문의** 해운대문화회관(749-7651), 동래문화회관(550-6611)  
 영도문화예술회관(419-5571~4), 영아츠컴퍼니(1544-4641)



2023년 어린이 최고의 기대작으로 꼽히는 창작뮤지컬 '초록별 튼튼 모험대'가 부산의 각 권역을 대표하는 해운대문화회관, 동래문화회관, 영도문화예술회관에서 어린이 관객과 만난다.

이번 무대는 지역의 문화토양을 구축하고 함께 상생할 수 있는 방향에 대해 고민해오던 해운대, 동래, 영도의 3개 구 문화회관의 기 통합하여 제작한 협력 프로그램으로, 지난해에도 3개 구 문화회관이 창작극 '왕국의 전설-잃어버린 이야기'를 제작, 무대에 올려 많은 박수를 받은 바 있다. 특히 이와 같은 협력프로그램은 지역의 구 문화회관이 기술적, 인적 교류를 통한 동반 성장은 물론, 지역예술인을 살리고 지역문화 발전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의미를 담고 있다.

이번 '초록별 튼튼 모험대'는 올해 3개 구 문화회관이 부산에서 새롭게 주목받는 음악단체인 영아츠컴퍼니(대표 김태영)와 젊고 재기 발랄한 뮤지컬단체 아트레볼루션의 대표 박정우와 함께 손을 잡고 제작한 어린이뮤지컬로, 미래의 희망인 어린이들에게 변이바이러스, 자연환경 파괴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극복을 담은 메시지를 전하고 있다. 특히나 길고 길었던 팬데믹의 어두운 터널을 통과하고 일상을 회복한 지금,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면역력과 깨끗한 자연환경의 소중함을 이야기함으로써 현재 인류와 지구가 처한 상황을 극복할 수 있는 해법을 제시한다. 더불어 극중 조부모의 손에서 자



란 주인공을 긍정적으로 그려내면서 이 시대 사회적 약자에 해당하는 편부, 편모, 다문화, 조부모 가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교육적인 메시지도 관객들에게 전한다. 특히 이번 작품에서는 악당인 우주바이러스를 괴물의 형상이 아니라 기괴한 입자 또는 분자 등으로 표현하면서 상상력을 자극하며, 스크린 무대를 활용한 숲 배경에 빛을 품어 반딧불을 형상화한 조명장치로 아름다운 자연과 그 속의 순수하고 맑은 영혼을 연출함으로써 깨끗한 지구와 건강한 인간이 가지는 무한한 힘을 표현한다.

이번 작품에서 연출을 맡은 아트레볼루션의 박정우 대표는 뮤지컬 '복순이 할배', '구름 위를 걷는 자', '나에게만 들리는 목소리' 등 다수의 연극과 뮤지컬을 제작한, 부산 뮤지컬계의 대표적인 극작가이자 연출가이다.

## 영화와 연극

###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 허은 연극평론가, 전 경성대 연극과 교수

#### 1

시작부터 끝까지 장소 변화는 없다. 배심원으로 등장하는 12명의 인물은 각기 다른 성격과 직업을 지니고 있다. 그들은 배심원실의 제한된 공간에서 전원 일치의 유·무죄의 결론이 날 때까지 머물러야 한다. 미국의 배심원 제도가 우리에게 다소 생소한 것이긴 하지만 1970년대 중반에 이 영화(12 Angry Men/1957년 개봉)를 보면서 연극으로 무대에 올린다면 시나리오 수정 없이 공연할 수도 있겠다고 지극히 평면적으로 생각했다. 감독 역시 이 영화의 연극적 요소를 구태여 숨기려 하지 않았다.

이 영화의 시나리오를 쓴 레지날드 로즈(Reginald Rose)는 사회적 정치적 이슈를 끈질기게 드라마로 탄생시킨 작가로서 널리 알려져 있다. 1964년 당시 이미 TV 드라마 작가로서 명성을 얻고 있었고 영화는 물론 연극에서도 희곡작가로서 탄탄한 기반을 확보하고 있었다. 영화 <12 Angry Men>은 베를린 영화제에서의 금곰상 수상을 필두로 아카데미상 등 각종 영화제에서 우수한 상을 받았다. 물론 이 영화의 감독 시드니 루멧(Sidney Lumet)의 연출력이 영화를 명작의 반열에 올린 큰 힘이었다는 것도 분명하다.

과거 개인적으로 막연히 연극무대에서의 이 작품을 생각했던 때가 있었다면 이번의 무대는 영화와는 다른 공연적 특성을 발견하게 된 기회였다. 작품의 주제나 연출 의도와 같은 내용적인 측면보다는 연극과 영화 형식의 차이점을 더 명확하게 보여준다. 관객 또한 연극의 공연 형식이 가지고 있는 공연

예술로서의 특별한 의미를 발견했으리라 믿는다. (영화와 연극 그리고 시나리오를 모두 읽고 비교해 보았다면 더욱).

물론 연출(류주연)의 글이나 한국에서의 이 작품 공연 리플릿에 있는 공연에 대한 짧은 글들이 모두 무의미하다는 뜻은 아니다. 특히 “이 작품이 2023년 혹은 공연이 되는 시점에서 현재적 가치가 있을 것일까? 가짜 뉴스가 판을 치고, 상식이 무시되는 사회는 필연적으로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들 수밖에 없다. 나아가 다시금 민주주의의 한계를 또한 생각하게 한다”라는 연출의 고민과 주장에 동의하면서 등장인물들이 보여주는 자기주장의 반복과 무죄로 설득되어 가는 과정을 통해 자기 확증이나 신념, 생각, 주장들이 지닌 함정들을 발견했다. 11대 1로 유죄가 되었던 상황에서 전원일치의 무죄에 이르는 논쟁 과정은 ‘합리적 의심’이라는 다소 역설적인 최근 정치판의 유행어를 떠올리게 한다.

#### 2

이 연극은 일종의 재판극 형식을 가지고 있다. 사건이나 상황에 대한 객관적 판단을 위한 논쟁을 극 진행에 활용한다. 이때 관객은 극 중 배심원들의 논쟁에 무의식적으로 관여하게 된다. 물론 관객의 물리적 참여까지 만들어지지는 않지만, 심리적으로는 깊숙이 참여한다.

무대와 객석 사이에는 펜스가 놓여 있다. 이 펜스는 무대와 객석을 구분하는 물리적 경계선이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를 둘러싸고 있는 보이지 않는 가뒤편 자기중심적 세계로 확대된다. 물리적 장치이자 심리적 장치다. 제한된 배심원실 공간은 내가 보고 있지만, 우리 모두를 가두어 놓는 공간으로 다가온다. 극 중 상황에 관해 관객들은 심리적으로 동조하거나 찬성과 반대의 내면적 대답을 수시로 되뇌는다. 심리적 참여가 과도할 경우 이른바 몰입의 상태로 가게 된다. 몰입의 상태는 과도한 감정이입이 만들어지고 감정이입은 객관화와 비판적 태도를 방해한다. 그러나 수시로 만들어지는 의도적인 희곡적 요소들은 몰입의 상태를 차단하는 기능이 된다. 야구 시합에만 관심이 있는 배심원과 엉뚱한 소리를 늘어놓는 배심원들을 적절하게 활용함으로써 과도한 몰입에서 오는 주관적 개인화의 함정을 적절하게 피해간다. 몰입과 객관화와 감정이입과 낯설게 하는 소외의 순간이 교차되어 만들어진다.



공연공간은 단순히 관객이 바라보는 무대만이 아니라 객석 또한 공연공간 일부가 된다. 관객은 배심원의 일부가 되며 무대 위의 배심원에 대한 또 다른 관찰자가 되게 함으로써 공연장 전체가 하나의 공간으로 변화된다. 관객은 무대에서 흘러 내리는 이데올로기를 수동적으로 수용하는 집단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능동적 집단으로 변모한다. 말하자면 관객은 13번째 배심원의 역할을 하는 참여 집단이 되는 것이다.

### 3

카메라의 움직임이나 클로즈업을 통해 상황이나 배심원의 성격을 표현한 영화의 장면들이 연극에서는 배우의 다양한 동선을 통해 표현되었다. 체스판 같은 배심원실 바닥은 이 연극을 게임처럼 보이게 한다. 극 중 인물의 감정이나 의견 대립을 다양하게 시각화하였고 화장실 앞쪽의 돌출 공간을 배치해 인물의 감정 상태를 보다 적극적으로 관객에게 보여준다. 무대 오른쪽 출구를 철문으로 만들어 내부 인물들이 제한된 공간 속에 고립되어 있음을 수시로 상기시킨다. 배심원들의 공간이 지닌 상황을 암시한다. 한 번의 입실과 퇴실 그리고 법원

직원과의 연락을 위하여 그 문을 두드리는 쇠소리 역시 긴장감을 높이는 은유적 표현임과 동시에 현실감을 깨우쳐 준다. 특히 배심원들의 일상적인 의상과 말투는 특별히 선정된 배심원이 아니라 우리 주변의 인물들처럼 친근감을 주고 현실성을 획득한다. 지금 이곳 우리 현실과 극 중 상황이 서로 관련되어 있음을 상기시킨다. 이 모든 것들은 연출에 의해 '공연화' 되어 생동감을 주었다. 영화적인 형식미가 연극적 형식으로 무난하게 변화되었다.

다양한 영상 시대의 환경 속에 흔들리고 있는 위기의 연극 시대에서 연극적 형식미를 볼 수 있었다. 거대한 스크린과 손바닥에서 너무나 쉽게 소비되는 엄청난 영상물에 포위된 이 시대에 우리가 연극공연장을 찾게 되는 그리고 찾아야만 하는 이유를 만들어 준다.

영화는 카메라가 움직였다면 무대공연에선 인물들이 움직인다. 그들의 움직임에 따라 관객은 그를 따라갈 수밖에 없다. 영화 관객이 수동적이라고 한다면 연극 공연에 있어서 관객은 능동적이다. 관객이 극 완성의 일부로서 적극적이며 비판적으로 동참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을 준 무대였다.

부산문화회관

**(재)부산문화회관 기획전**  
**상상을 찍는 작가에릭 요한슨 사진展**

일 시 | 6월 27일(화)-10월 8일(일) **전시실**  
 입장료 | 일반(만 19세 이상) 1만8천원  
 청소년(중·고등학생) 1만5천원  
 어린이(36개월~초등학생) 1만2천원  
 문 의 | Hteam 070-7008-8905



스웨덴을 대표하는 초현실주의 사진작가, 에릭 요한슨(Erik Johansson) 사진전.

여타 초현실주의 작가의 작품처럼 단순한 디지털 기반의 합성 사진이 아닌, 작품의 모든 요소를 직접 촬영함으로써 현실에서는 불가능한 세계를 사진 속에 가능한 세계로 담아내고 있는 요한슨은 특히 상충된 개념의 이미지를 통해 현실 세계를 풍자하고 해학적으로 표현함으로써 관람객들에게 신선한 문화적 충격을 안겨주고 있다.

특히 이번 부산 전시에서는 한국에서 최초로 신작 3점이 전시되며, 유명 도슨트의 해설프로그램도 진행된다.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일 시 | 8월 18일 금요일 오후 9: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기존 공연시간의 틀을 깨 저녁 9시, 평소 공연장을 찾지 힘든 시민들을 위해 부산시립교향악단이 마련한 특별한 무대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올해 무대에서는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지휘자 백승현의 지휘로, 음악애호가들은 물론 일반 관객들도 함께 즐길 수 있는 대중적인 레퍼토리로 한 여름 밤의 낭만을 선사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국내외 우수 콩쿠르에서 입상하며 라이징 스타로 주목받고 있는 첼리스트 정우찬이 부산관객과 첫 만남을 갖는다.

**프로그램**  
 생상스/첼로협주곡 제1번 가단조  
 스트라빈스키/폴치넬라 모음곡  
 • 지휘/백승현(부지휘자) • 협연/정우찬(첼로)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일 시 | 8월 18일(금)-9월 24일(일)  
 주말 오전 11:00, 오후 2:00(평일 단체 관람 시간 상이) **사랑채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36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5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ARS 1번)



어린이들이 클래식과 친해질 수 있도록 기획된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한국 최초 그림자극단인 극단 영의 '피터와 늑대'는 어린이들을 위한 대표적인 입문용 클래식 작품인 프로코피예프의 '피터와 늑대'를 그림자극으로 풀어낸 작품이다. 러시아 작곡가 프로코피예프가 자라나는 아이들에게 꿈과 희망을 심어주기 위해 작곡한 '피터와 늑대'는 여러 등장인물을 각기 다른 악기로 표현함으로써 어린이들이 클래식 악기의 음색과 특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4·3창작오페라 순이삼촌**

일 시 | 8월 19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초대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제주 4·3을 세상에 널리 알린 현기영 작가의 동명 소설을 원작으로 한 '순이삼촌'은 제주 4·3 당시 제주 조천면 북촌리에서 벌어진 집단학살을 바탕으로, '아이를 잃은 어머니' 순이삼촌의 비극을 다루고 있다.

특히 이번 작품은 영상과 삽화, 낭송, 자막 등 다큐멘터리 형식을 차용하여 웅장하고 섬세한 오페라와 세련된 뮤지컬의 연극적 요소가 어우러지면서 제주 4·3의 역사를 예술로 승화시켰다는 호평을 받았다.

특히 이번 부산공연에서는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오페라합창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등 부산시의 청년 예술가 및 공연팀, 청소년들이 함께 하면서, 예술을 통해 4·3의 역사를 공감하고 세대를 이어가는 소통의 의미를 더한다.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일 시 | 8월 20일 일요일 오전 11:00,  
 오후 3:00 **중극장**  
 입장료 | R석 4만원, S석 2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3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어린이를 위한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서울시발레단이 제작한 이번 무대는 '짱구엄마'로 유명한 KBS 성우 송연희가 직접 들려주는 힐링 동화극으로, 차이콥스키의 아름다운 발레에 연극적인 요소와 내레이

션이 더해져 온 가족이 함께 즐길 수 있다. 특히 이번 무대는 기존의 전막 공연이나 갈라 무대가 아닌 엄마가 들려주는 동화 이야기로 작품을 새롭게 구성, 프로 무용수들이 펼치는 수준 높은 발레 공연 외에도 성우와 아역배우의 컬러 버라이어션, 인형극, 아크로바틱 등 다양한 볼거리가 더해져 관객의 재미를 더한다.

• 연출, 안무/김광진 • 내레이션/송연희

**음악실험실 짜임 정기연주회**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III**

일 시 | 8월 20일 일요일 오후 5:00 **챔버홀**  
 입장료 | 일반 2만원, 학생 1만원  
 (네이버 예매 시 50% 할인)  
 문 의 | 음악실험실 짜임 010-8212-0222



기존의 클래식음악을 다양한 악기편성으로 실험하여 보다 새로운 짜임으로 재창작하여 연주하는 음악실험실 짜임의 정기 연주회.

솔로악기로 저평가 받고 있는 악기들의 곡을 현악앙상블과의 협주곡으로 재창작, 관객들에게 선보이는 'New Solo Pieces with Strings' 시리즈의 세 번째 무대로, 음악실험실 짜임 대표 황선영의 편곡과 앙상을 아토의 현악반주, 박승훈(트럼펫), 황여진(비올라), 이건용(트롬본), 고관수(오보에), 배기태(더블베이스)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센트렘버소사이어티 제12회 정기연주회 The Rising Generation SeriseII

일 시 | 8월 22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부산시립교향악단 이은옥 부악장을 리더로 부산, 경남의 연주자들로 결성된 센트렘버소사이어티가 지역의 청년 음악가들을 위해 마련한 'The Rising Generation Serise' 두 번째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지역 청년 음악가들의 협연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엘가/현을 위한 세레나데 마단조 작품 20  
베버/클라리넷협주곡 작품 26  
모차르트/교향곡 제25번 사단조 K.183 등
- 바이올린/이현우, 진혜빈
  - 비올라/권덕진 • 첼로/조명찬
  - 클라리넷/문진성

### 2030 부산월드엑스포 유치 기원 2030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과 함께하는 Friendship Concert

일 시 | 8월 23일 수요일 오후 7:00 **중극장**  
입장료 | VIP석 5만원,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주)다소니 328-9998



지역 청년 전문예술가 중심으로 결성된 IYSO 오케스트라가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을 초청하여 마련하는 Friendship Concert. 한국인 지휘자 임재식 단장이 지난 1999년 창단한 스페인 밀레니엄 합창단은 외국인 단원들이 한복을 입고 한국민요와 가곡을 한국어로 부르는 등 그동안 한국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부산지역 장애인복지관 음악교육생들로 구성된 위글위글양상불합창단과 함께 한국민요의 아름다움과 다채로움을 알리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후 브라스 콰이어 제11회 정기연주회 HOPE

일 시 | 8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만 5세 이상 입장, 청소년 50% 할인)  
문 의 | 후 브라스 콰이어 010-8733-7438



지난 2011년 진지한 음악정신을 바탕으로 부산, 경남의 우수한 연주자들로 창단한 후 브라스 콰이어 정기연주회. 2012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다양한 무대에서 온 후 브라스 콰이어는 현재 20명의 단원들이 5중주에서부터 20중주까지 다양한 편성과 레퍼토리로 관객과 만나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뛰어난 실력을 지닌 젊은 연주자들의 협연무대와 더불어 금관양상불이 빛어내는 다채로운 매력을 만날 수 있다.

- 지휘/김기울
- 피아노/성민주 • 해설/김윤선
- 작곡/김우진
- 트럼펫/주현빈, 류지노

### 제5회 포르투나 앙상블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4일 목요일 오후 7:30 **첼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사)부산문화 1600-1803

바이올리니스트 박미정, 홍기정, 김다경, 이상엽 등 부산에서 유일하게 바이올린으로만 구성된 포르투나 앙상블의 무대. 포르투나 앙상블은 지난 2011년 창단 이후 정기 연주회, 마루국제음악제 프린지 콘서트, 문화가 있는 날 등 다양한 무대를 통해 대중과 소통하며 인간의 목소리와 가장 닮은 바이올린의 매력을 전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부산공연에 앞서 8월 21일 김해 남명아트홀에서도 만날 수 있다.

**프로그램**  
요셉 헬메스베르거/로망스 작품 43 제2번  
칼 뵘/4대의 바이올린을 위한 사중주  
볼컴/우아한 유령 등 수곡



###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 고전&현대의 공간 [The, 세계]

일 시 | 8월 25일 금요일 오후 7:30 **중극장**  
문 의 |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  
010-6689-6096



다양한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호흡하는 12인조로 구성된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대표 김주리)의 특별한 무대. 우리에게 친숙한 비발디의 '사계' 음악에 넷스 크린 홀로그램과 알파 웨이브 기술을 도입, 현대적인 시각 요소를 통해 미래 감각의 공연을 선보이고자 마련한 무대로, 무대 위 연주자의 퍼포먼스가 스크린에 투영된 형상과 함께 연동되어 관객들에게 다가간다. 특히 화려한 비발디 사계의 선율을 알파파로 생성, 시각화하여 미래지향적이고 현대적인 무대를 관객들에게 선보인다. 이번 무대에서는 인제대학교 교수로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이석중이 해설 및 협연을 맡아 유토피안 클래식 앙상블과 호흡을 맞춘다.

### 2023 부산오페라시즌 오페라 '토스카'

일 시 | 8월 26일-27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4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오페라 '토스카'는 (재)부산문화회관이 2019년 베르디 '리골레토', 2021년 모차르트 '피가로의 결혼', 2022년 푸치니 '라보엠'에 이어 네 번째로 선보이는 제작오페라로, 국내 최정상급 출연진들과 제작진들이 참여하여 최고의 무대를 선사한다.

- 연출/정선영 • 지휘/김현수
- 출연/소프라노 서선영, 테너 신상근, 바리톤 안세범, 베이스 김경대, 테너 안형일, 바리톤 최모세, 베이스 김영수(26일), 소프라노 정혜민, 테너 허동권, 바리톤 박정민, 베이스 손상혁, 테너 정다훈, 바리톤 황동남, 베이스 김영수(27일)

## 소프라노 이수정 귀국 독창회

일 시 | 8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학생 50% 할인)  
 문 의 | 아트뱅크코리아 442-1941



연세대학교를 졸업하고 동대학원에 재학 중 도독, 라이프치히 국립음대 마스터과정을 최우수 점수로 입학하고 전액 장학생으로 졸업한 소프라노 이수정 귀국 독창회.

독일 라이프치히 심포니오케스트라와의 협연 후 세계적인 지휘자 마티아스 뢰니(Matthias Foremny)로부터 '더 이상의 코멘트가 필요 없는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이수정은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EMW, Paul Weigold, Cheryl Studer, Roland Schubert 등 마스터 클래스에도 참가해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으며, 귀국 후에는 관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셀과 도니제티, 풀랑크, 스트라우스, 우도 짐머만의 가곡과 오페라 아리아를 들려준다.

연 후 세계적인 지휘자 마티아스 뢰니(Matthias Foremny)로부터 '더 이상의 코멘트가 필요 없는 연주'라는 극찬을 받은 이수정은 음악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으로 오스트리아에서 열리는 EMW, Paul Weigold, Cheryl Studer, Roland Schubert 등 마스터 클래스에도 참가해 음악적 견문을 넓혀왔으며, 귀국 후에는 관객과 소통하며 다양한 무대에 서오고 있다.

##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 제4회 정기연주회 Of the Busan, By the Busan, For the Busan

일 시 |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문 의 | SPO 010-8277-9765



부산지역 출신의 연주자들이 모여 수준높은 음악을 들려주기 위해 창단된 더 솔로이스츠 필하모닉 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첫 무대 'Of the Busan'에서는 부산을 대표하는 작곡가 하순봉의 교향시 '바다에 부치는 송가'를 들려주며, 'By the Busan'에서는 팬데믹으로 힘들어진 부산시민을 위로하는 모차르트 곡 '피아노 협주곡 제24번'을 피아니스트 김정권의 협연으로 연주한다.

마지막 무대인 'For the Busan'에서는 베토벤 교향곡 제8번으로 팬데믹에서 벗어나 일상에서 돌아가고자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들려준다.

- 지휘/서진(상임지휘자, 계명대학교 교수)
- 피아노/김정권(부산대학교 교수)

## 제63회 부산 독일가곡연구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9일 화요일 오후 7:30 **중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독일가곡연구회 010-8455-2383



한·독 수교 140주년을 맞아 부산독일가곡연구회가 마련하는 특별한 무대. 음악의 본고장인 독일과 오스트리아에서 수학하고 귀국한 부산의 음악가들로 구성된 부산독일가곡연구회는 지난 1997년 창단 후 매년 2회 이상 정기연주회와 특별연주회를 개최하며 독일 예술가곡을 연구, 보급하는데 앞장서왔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현지에서 활동 중인 독일인 성악가를 초청, 한국가곡과 독일가곡을 회원들과 함께 번갈아 들려주며, 기존의 독일가곡 중 피아노 솔로곡으로 편곡된 곡들을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일가곡의 매력을 전한다.

이번 무대에서는 독일 현지에서 활동 중인 독일인 성악가를 초청, 한국가곡과 독일가곡을 회원들과 함께 번갈아 들려주며, 기존의 독일가곡 중 피아노 솔로곡으로 편곡된 곡들을 연주하는 등 다채로운 무대를 통해 시민들에게 독일가곡의 매력을 전한다.

## 2023 제14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1개막공연

일 시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R석 3만원, S석 2만원 A석 1만원  
 문 의 | (사)부산마루국제음악제 조직위원회 516-8293~4, www.bmimf.co.kr



축제의 문을 여는 이번 무대에서는 불가리아 출신의 세계적인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가 지휘하는 BMIMF 페스티벌 오케스트라의 연주, 러시아 출신의 피아니스트 소피아 바체록 협연으로 라흐마니노프 '피아노협주곡 제2번 작품 18'과 드보르작 교향곡 제9번 '신세계로부터'를 들려준다.

지휘자 그리고르 팔리카로프는 2000년 불가리아 소피아 국립 오페라 발레단의 지휘자로 임명된 후 약 20년간 수석지휘자로 활동했으며, 현재 판초 블라디게로프 음악원 전임교수이자 2005년부터 파자르치크 심포니 오케스트라 예술 총감독으로 활동하고 있다.

##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기다림과 불멸의 또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일 시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대극장**  
 입장료 | 전석 1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2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재)부산문화회관이 올해 새롭게 선보이는 기획 시리즈로, 미술평론가이자 아트 스토리텔러인 이주현이 해설하고, 아나운서 손지현이 진행하는 오페라와 그림, 공연이 어우러지는 렉처콘서트.

이번 무대에서는 오페라 '나비부인', '투란도트'의 주요 아리아인 '어느 개인날', '잘 있노라, 행복했던 집이여', '이 궁정 안에서', '공주는 잠 못 이루고'를 들려주며, 모네의 '기모노를 입은 카미유', 반 고흐의 '게이샤' 등 19세기 자포니즘(Japonism)의 영향을 많이 받은 작품들과 앵그르의 '오달리스크' 등 서양인들이 바라본 오리엔트의 이미지를 담은 작품들을 감상한다.

## 제9회 장재혁 클라리넷 독주회 클라리넷과 함께 떠나는 세계여행 시리즈1 유럽의 변방

일 시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챔버홀**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Kongnamul 010-3146-8434



부산시립교향악단 수석, 대구클라리넷앙상블 솔리스트로 다양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장재혁 독주회. 클라리넷의 본고장인 프랑스로 유학길에 올라 파리 국립음악원을 거쳐 파리 국립고등음악원 학석

사과정을 최우수성적으로 졸업한 장재혁은 프랑스 최고의 오케스트라인 파리오케스트라, 라디오프랑스 오케스트라에서 객원단원을 역임했다. 2015년 부산시립교향악단의 새로운 클라리넷 수석으로 발탁되어 귀국길에 오른 장재혁은 솔리스트로서도 다양한 무대에 서며 관객들과 소통을 이어가고 있다.

- 피아노/김재원

부산시민회관

제10회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뮤지컬 데스노트

일 시 | 7월 26일(수)-8월 6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7:00(월요일 공연 없음, 7월 26일·8월1일 오후 2:30, 7:30) **대극장**  
입장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2022 시즌 역대 최단기 전회 전석 매진의 흥행 신드롬을 일으켰던 뮤지컬 '데스노트' 부산공연. 특히 극중 개성 넘치는 캐릭터와 긴장감 넘치는 스토리, '지킬 앤 하이드', '황태자 루돌프', '웃는 남자' 등 수많은 흥행작을 작곡한 프랭크 와일드혼의 드라마틱한 음악, 그리고 경사진 바닥과 벽면, 천장 3면을 LED 1,380장으로 채운 무대와 6톤에 달하는 조명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극의 재미를 더한다.

- 출연/김준수, 김성철, 고은성, 홍광호,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재, 이영미, 장은아 외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최민식과 다큐멘터리 사진전

일 시 | 8월 4일(금)-9월 8일(금) 오전 10:00~ 오후 6:00(입장마감 오후 5:00, 매주 월요일, 8월 15일 휴관) **제1, 제2전시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부산의 반세기를 사진에 담은 1세대 다큐멘터리 사진작가 최민식과 그의 정신을 잇고 있는 사진취미자 임종진의 작품을 소개하는 특별전. 올해는 최민식 작가가 작고한 지 10주기가 되는 해로, 이번 전시에서는 평생 '인간'에 천착하며 '시대의 그늘과 애환'을 담은 그의 작품세계를 소개한다. 특히 작가가 지난 60여 년 동안 자갈치시장, 광안리해변, 영도골목, 부산역 등지에서 촬영한 각계 각층의 어린이들의 모습을 담기 160점의 작품이 제1전시실에서 전시되며, 제2전시실에서는 최민식 작가의 정신을 잇는 이 시대의 시인가, 임종진 작가의 대표작 60여 점을 선보인다.

원추리 1

일 시 | 8월 5일 토요일 오후 4:00 **소극장**  
입장료 | R석 5만원, S석 3만원  
문 의 | 성민주무용단 010-7706-3238



아름다운 전통무용과 클래식 음악의 만남 '원추리' 첫 번째 무대. '하루만의 아름다움'이라는 꽃말을 지닌 원추리 꽃처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순간들을 느끼고 즐기자는 뜻으로 붙인 이번 무대에서는 청주무용협회 회장이자 PFA 창작안무상(2021)을 수상한 춤꾼 성민주를 비롯해 부산성악가협회, 독일가곡연구회 회원으로 활동하며 다수 무대에 서온 소프라노 장은영, 바이올리니스트 이숙영, 피아니스트 류연주, 그리고 삼현육각을 들려줄 피리 김세현, 대금 변석준, 장구 김기호, 가야금 정영신이 멋과 흥이 넘치는 무대를 선사한다.

**프로그램**  
사랑의 인사(엘가), 태평무, 율관(베토편), 그리운 금강산, 난 밤새도록 춤출 수 있는데(뮤지컬 '마이 페어 레이디' 중), 교방검무, 부채춤, 아리랑 등

제13회 선소리산타령 정기공연

일 시 | 8월 23일 수요일 오후 7:00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남구지부 010-9611-3489



그동안 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의 전승과 보급에 힘써온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남구지부가 마련한 13번째 정기공연. 선소리산타령은 서울·경기 지역과 서도지방에서 불리는 잡가 중 서서 소리하는 선소리의 대표곡으로, 경기 산타령과 서도 산타령으로 구분된다. 이번 무대에서는 신명언국악원 원장이자 (사)선소리산타령보존회 부산남구지부장인 신명언을 비롯해 회원들이 경기선소리타령을 시작으로 경기소리와 서도소리를 들려준다.

- 초대명창/김경민(국가무형문화재 제19호 선소리산타령 이수자), 유지숙(국립국악원 민속악단 예술감독), 김보연(국가무형문화재 제57호 경기민요 이수자)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일 시 | 8월 26일 토요일 오후 3:00 **대극장**  
입장료 | V석 10만원, R석 8만원, S석 6만원, A석 4만원(48개월 이상 관람,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디즈니의 꿈과 희망을 전하는 마법같은 무대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디즈니 애니메이션에 삽입되었던 히트곡들을 만날 수 있는 이번 무대는 디즈니 공식 라이선스 콘서트로, 눈부시게 선명한 대형LED 스크린에 펼쳐지는 디즈니 애니메이션과 30인조 디오오케스트라가 만들어내는 웅장한 사운드와 화려한 조명, 그리고 국내 최고 뮤지컬 배우로 구성된 디즈니 싱어즈가 아름다운 하모니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연주/디오오케스트라
- 디즈니 싱어즈/신재범, 김한희, 이종석, 홍경아

부산시민회관 배시시 명품극장  
시크릿 뮤지엄

일 시 | 8월 30일 수요일 오후 7:00 **소극장**  
입장료 | 무료(지정좌석제)  
문 의 | (재)부산문화회관 607-6000



서울 예술의전당에 열린 우수 공연, 전시 콘텐츠를 대형 스크린을 통해 만날 수 있는 부산시민회관 배시시 명품극장. 특히 10대 이상의 카메라 앵글로 만들어내는 역동적인 화면과 현장감 넘치는 입체 서라운드 음향으로, 아티스트의 생생한 표정과 몸짓은 물론 객석에서 볼 수 없는 무대 구석구석과 공연의 흥미로운 뒷이야기를 만날 수 있다. 8월에는 프랑스 파리의 5대 박물관인 프리팔레의 디지털 명화 전시 'Revelation\_레벨라시옹' 한국투어전이었던 '시크릿뮤지엄'을 상영한다. 이번 '시크릿 뮤지엄'은 서양미술사에 혁신을 이끌었던 가장 중요한 회화를 고해상도 디지털 재현을 통해 작품의 디테일과 숨은 의도를 관객들에게 소개한다.

음악

### 스페이스 옴 8월 음악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후 7:30 **스페이스 옴**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스페이스 옴 557-3369

누구나 쉽게 예술문화를 접하고 소통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연, 전시, 강좌 등을 열어온 스페이스 옴 8월 음악회.



#### 4일(제509회) 앙상블 아인스

작곡가 박명훈을 예술감독으로 바이올리니스트 강민정, 송화현, 비올리스트 이상민, 첼리스트 주윤아로 결성된 앙상블 아인스(Ensemble Eins)의 무대.

지난 2013년 창단연주회를 시작으로 그동안 다양한 앙상블 무대를 통해 관객과 만나온 앙상블 아인스는 Bernd Richard Deutsch, Caroline Shaw, Frank Bedrossian, Gerard Pésson, Helmut Lachenmann, Mark Andre, Simon Steen-Andersen 등 해외 작곡가의 현악 작품을 한국에 소개하는가 하면 한국 작곡가의 현악4중주 작품을 위촉, 초연하며 레퍼토리를 늘려가고 있다.

#### 11일(제510회) 소리치레 제3회 정기연주회 '풍류살롱'



소리꾼 김재은을 리더로 아쟁 권다정, 베이스 최형석, 대금 김의진, 건반 최예찬으로 구성된 조선팝밴드 '소리치레'의 무대.

소리치레는 한국적인 요소를 유지하면서 대중들에게 익숙한 콘텐츠와 다양한 장르와의 융합을 통해 새로운 음색, 구성, 연출기법을 시도하고 도전하는 퓨전국악밴드이다. 국악에서 노래를 뜻하는 '소리'에 접미사 '-치레'를 더한 파생어로, '모든 소리를 꾸며 음악으로 전하다'는 뜻을 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밴드와 전통국악기가 만나 국악의 정서도 도드라지는 소리치레만의 창작음악과 재즈곡을 들려준다.

#### 프로그램

풍류살롱(최예찬 편곡), 새타령, 아리랑랩소디, 슬과 장미의 나날(맨시니 곡), All the things you are(Jeremy kern 곡), 밤내려온다(이날치밴드) 등

#### 18일(제511회) Ensemble Belle Équipes

대구와 부산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피아니스트 박현우, 바이올리니스트 김지수, 진건혜, 비



올리스트 오지환, 첼리스트 이슬루 구성된 '앙상블 벨 에킵'의 무대.

프랑스어로 '좋은 한 팀'이라는 뜻을 지닌 벨 에킵(Belle équipe)은 서로 다른 색깔을 지닌 연주자들이 하나의 아름다운 한 팀이 되어 음악으로 함께 호흡하며, 청중들과도 음악으로 하나될 수 있는 다양한 무대를 선보이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대중들이 사랑하는 아카데미한 클래식부터 다양한 구성의 실험적인 곡들까지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25일(제512회) 마음버스 타고 음악 여행

부산에서 활동 중인 뮤지션들이 모여서 만든 어쿠스틱 밴드 '마음버스'의 무대.

20여 년전부터 백혈병 어린이들을 위해 모금 공연을 펼쳐온 하늘타리 멤버들이기도 한 '마음버스'는 일상에 지친 사람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유하기 위해 오늘도 열심히 노래하며 달려가고 있다.

- 노래, 기타/차음결, 최근호, 이경은
- 퍼커션/이영훈

### 게네랄파우제 8월 공연

일 시 | 8월 4일(금), 18일(금) 오후 8:00, 5일(토), 19일(토) 오후 2:00, 7:00, 15일(화) 오후 7:00, 24일(목) 오후 8:00

#### 게네랄파우제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게네랄파우제 070-4177-3927

클래식부터 재즈 및 크로스오버까지 다양한 장르의 무대를 만날 수 있는 게네랄파우제 8월 무대.

#### 4일(금) 오후 8:00 Jazz and Music of South America

미국에서 활동 중인 싱어송라이터이자 피아니스트 주하은과 기타리스트 Saul Cosme 부부의 무대.

한국에 잠시 머무는 동안 마련된 특별한 무대로, 남아메리카의 재즈 음악들을 그들만의 호흡으로 들려 준다.

#### 5일(토) 오후 7:00 재즈기타리스트 이달현 트리오의 Funk#49

재즈기타리스트 이달현을 주축으로 드럼 윤혁성, 베이스 박지원으로 구성된 이달현 트리오가 하드락밴드 James Gang의 'Funk#49'을 비롯해 강렬한 사운드를 들려준다

#### 15일(화) 오후 7:00 Rhythmes of the night



재즈 보컬리스트 앵구 송과 피아니스트 민주신, 콘트라베이스리스트 박주민, 드럼주자 알라인 오르티즈 사마다로 구성된 앵구 송 퀸텟의 무대.

현재 국악과의 크로스오버 작업을 통해 해외에 우리 전통음악을 알리는 데 힘쓰고 있는 앵구 송은 이번 한국 방문 기간 동안 다수의 무대를 통해 관객들에게 재즈의 매력을 선사할 예정이다.

#### 18일(금) 오후 8:00 Charlie Parker & Maceo Parker Tribute Concert 'Two Parker'



두 명의 전설적인 색소피니스트 찰리 파커와 마세오 파커를 위한 트리뷰트 무대.

색소폰 손태호, 피아노 김대규, 기타 김경모, 베이스 박경윤, 드럼 홍영호로 구성된 홍영호퀸텟이 비밥의 창조자이자 모던 재즈의 시작을 알린 불세출의 재즈 뮤지션 찰리 파커와 펑크와 소울을 대표하는 색

소피니스트 마세오 파커의 곡을 통해 서로 다른 장르의 온도차를 직접 느껴 볼 수 있다.

#### 19일(토) 오후 2:00 유지훈의 해설이 있는 음악회 '낭만주의 시대 피아노의 시인, 프레데릭 쇼팽'

콘서트가이드로 활동하고 있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이 매일 토요일 낮 한차례 시리즈로 진행하는 렉처콘서트.

피아노의 시인 쇼팽을 만날 수 있는 8월 무대에서는 클라리네티스트 유지훈이 쇼팽에 얽힌 재미있는 일화와 더불어 피아니스트 이혜경, 김나현과 함께 그의 시와 같은 음악을 들려준다.

#### 19일(토) 오후 7:00 Hygge

부산의 재즈를 30년 이상 지키며 노래해온 재즈 보컬리스트 최은아의 감수성 가득한 재즈무대를 만날 수 있는 무대.

보컬 최은아, 피아노 장세연, 콘트라베이스 신세영으로 구성된 최은아 트리오가 바쁜 일상 속에서 위안과 힐링을 전할 수 있는 따뜻한 무대를 선사한다.

#### 24일(목) 오후 8:00 민주신의 재즈피아노 이야기

재즈피아니스트 민주신과 함께 재즈피아노의 매력 속으로 떠나는 특별한 무대.

부산에서 15년 이상 재즈피아니스트로 활동해온 민주신이 삶과 그의 음악에 대한 생각을 관객과 함께 공유하는 시간을 갖는다.



## 2023 부산기타페스티벌

일 시 | 8월 6일 일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전석 2만원(초중고생 1만원)  
 문 의 |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  
 010-5489-2913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이 매년 여름, 전국의 유명 클래식 기타리스트들을 초청하여 마련하는 클래식 기타의 향연 '2023 부산기타페스티벌'.

올해는 기타리스트 김태호, 홍원영으로 결성된 다운기타듀오와 한국예술종합학교와 독일 뒤셀도르프 음대를 졸업하고 독일 Gevelsberg 국제공쿠르 1위, 스페인 Gredos san Diego 국제공쿠르 3위 입상한 기타리스트 김윤호, 친친탱고 대표이자 웨스턴심포니오케스트라 전속작곡가로 있는 반도네오리스트 김종완, 그리고 부산페스티벌기타양상블(지휘/김경태, 김현아)이 출연, 클래식 기타의 매력을 들려준다.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제7회 영아티스트 협주곡의밤

일 시 | 8월 8일 화요일 오후 7:3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5세 이상 관람)  
 문 의 |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  
 010-8733-7438



1995년 동아윈드오케스트라로 창단한 후 시노두스 윈드오케스트라를 거쳐 2019년부터 지금의 이름으로 활동을 펼쳐온 시노두스 심포니 오케스트라가 차세대 연주자들과 함께하는 영아티스트 협주곡의 밤.

- 지휘/이동신(국립창원대학교 교수)
- 협연/김지현(첼로·반디기독교학교 3학년), 김주하(바이올린·해원초 6학년), 장희주(플루트·브니엘예중 3학년), 조해인(피아노·부산예고 2학년), 박주선(클라리넷·양산남부고 3학년), 이예빈(바이올린·부산예고 3학년), 이하성(호른·대양고 3학년), 하다은(피아노·계명대 4학년), 박수민(피아노·계명대 4학년)

## 울속도문화회관 한여름밤 Ice Coffee 콘서트

일 시 | 8월 11일 금요일 오후 7:30  
 울속도문화회관 야외특설무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울속도문화회관 220-5811~4



뜨거운 여름밤을 시원하게 해줄 특별한 음악선물 '한여름밤 Ice Coffee 콘서트'.

야외조각공원과 아름다운 정원을 가진 울속도문화회관 야외무대에서 마련되는 이번 무대는 인생의 희노애락을 노래하는

명품 소리꾼 장사익과 천재 전자바이올리니스트 유진박, 소프라노 윤선기, 박성의, 테너 이우정, 이상훈과 부산최고의 연주력을 자랑하는 오케스트라 Ari-클래식의 무대로 꾸며진다. 특히 이번 무대는 공연장 개관 20년 만에 첫 리모델링을 하는 울속도문화회관이 공사 중에도 관객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자 마련한 무대로,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더위를 날려줄 음료를 무료로 제공한다.

## 8월 금정수요음악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후 7:30(2일 공연 없음)  
 금정문화회관 은빛생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4

올해로 20주년을 맞은 금정문화회관의 대표적 인 브랜드공연 '금정수요음악회' 8월 무대.

### 9일 양수연 대금 독주회 '延'



한국예술종합학교와 한양대학교 석, 박사과정을 졸업하고 현재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을 펼치고 있는 대금주자 양수연 독주회.

제33회 전국국악대제전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한 양수연은 그동안 정악, 민속악, 창작음악 등 다양한 장르와의 협업을 통해 활발한 활동을 이어오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가야금과 타악이 어우러지는 특별한 무대를 선사한다.

### 프로그램

대바람소리(이상규 곡), 풍류(이준호 곡), 파문(김

영동 곡, 토분(이상규 곡), 자시(황병기 곡)  
 • 가야금/황인유 • 타악/손혁진



16일 플레이어즈 벅 제9회 정기연주회 부산, 경남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클라리네티스트가 모여 결성한 플레이어즈 벅 정기연주회.

플레이어즈 벅의 'BEC'는 프랑스로 클라리넷의 마우스 피스를 뜻하며, 클라리넷을 부는 사람들이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다. 지난 2014년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년 정기연주회와 특별 연주회, 기획 연주회를 통해 클라리넷의 매력을 전하며 저변확대를 위해 노력해온 플레이어즈 벅은 이번 무대에서 홀스트, 토다, 모차르트, 멘델스존 등 다양한 작곡가들의 곡을 들려준다.

- 플루트/김아영 • 클라리넷/문예란, 이주아
- 연주/황남용, 권진우, 유지훈, 김다솜, 장일훈, 박은정, 김정민, 이성은

### 23일 라 플루티시모 '플루트의 색채'

2005년 창단 후 국내외 무대에서 활발한 활동을 펼치고 있는 플루트 앙상블 '라 플루티시모'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색채의 마술사라 부르는 모네의 그림을 표현한 미우라의 '판타스틱 모네' 초연과 더불어 다양한 작품을 영상과 함께 연주함으로써 관객들의 눈과 귀를 즐겁게 해준다.

- 피아노/문정재
- 플루트/김란도, 신주연, 김은기, 신승민



30일 헤르만트리오 정기 연주회 'The Ghost' 바이올리니스트 임정은, 첼리스트 안수빈, 피아니스트 조민현 등 부산 출신의 세 음악가가 유럽에서 만나 서로의 음악을 공유하고 배우고자 모인 헤르만트리오의 무대.

이번 무대에서는 현과 건반의 아름다운 선율이 어우러지는 베토벤 피아노 3중주 '유령'과 쇼스타코비치 '피아노 3중주 제2번 각곡 67'를 들려준다.

###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12회 정기연주회 3가지 꿈

일 시 | 8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의 |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010-3203-1020



부산지역 소외계층 출신의 연주자들과 음악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실력 있는 연주자들이 모여 감동의 무대를 선사해온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정기연주회.

사회적, 지역적 소외계층 출신의 재능있는 연주자들을 발굴, 음악가로서 사회에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2011년 결성된 월드브리지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그동안 다양한 무대를 통해 실력과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부산교육대학교 박성민 교수가 지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월드브리지 영재발굴로 선발된 바이올리니스트 이유정, 부산 출신의 에트르나 트리올라가 보르딘과 베토벤의 곡을 들려준다.

### 유니세프와 함께하는 옥셈 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 나눔 음악회

일 시 | 8월 12일 토요일 오후 3:00  
동래문화회관 대극장

입장료 | 무료

문의 | 예술기획 010-4909-7444



동래초등학교 재학생과 졸업생으로 구성된 옥셈 하모닉 오케스트라 여름 나눔 음악회.

지난 2005년 결성된 옥셈 하모닉 오케스트라는 매년 동래음악제와 여름 나눔 음악회, 옥셈 가을 음악회, 학예제 등의 학내 행사와 장애인 복지시설, 노인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하는 찾아가는 음악회, 부산마루국제음악제를 비롯한 외부 연주회를 통해 아름다운 하모니를 선사하고 있다.

- 지휘/박진홍
- 협연/강명주, 김민서, 김서현
- 독주/김아진, 김유리, 김윤서, 김하진, 박시윤, 박주형, 허찬홍

### 제49회 짜장콘서트 광복절 제78주년 기념 노래여, 겨레의 노래여

일 시 | 8월 12일 토요일 오후 5:00  
부산예술회관 공연장

입장료 | 전석 1만원(사전예약, 청소년 및 5명 이상 단체 50% 할인)

문의 | 음악풍경 기획실 987-5005



전문예술단체 음악풍경(대표 김창욱)이 지난 2019년부터 매달 가져온 짜장콘서트 49번째 무대.

지난 2015년 한국예술종합학교 음악원에서는 과거 남과 북이 함께 불렀고, 지금도 애창하고 있는

500여 곡의 노래를 연구·채집한 후 이 중 특히 역사적 의미와 음악적 완성도가 높고, 통일 지향적인 100곡을 선정한 바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그 곡들 중에서 음악풍경이 엄선한 10곡과 남북이 함께 부르기에 좋은 2곡을 자체적으로 추가, 소프라노 왕기현, 박현진, 테너 양승엽, 버리튼 시영민, 피아니스트 정은희의 연주로 들려주며 광복절 제78주년을 기념한다.

### 창작음악소 물레와 함께하는 부산 동네 한바퀴

일 시 | 8월 13일 일요일 오후 3: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문의 | 창작음악소 물레 010-3048-7918



부산을 거점으로 경남 및 서울에서 활동하는 작곡가들로 구성된 창작음악소 물레는 그동안 예술 음악 연구 및 다양한 장르의 창작곡을 통해 많은 사람들과 소통해왔다.

특히 이번 무대는 부산의 각 명소에 대한 소개를

음악과 극이 결합된 음악극 형식으로 공연하는 순수 창작무대로, 남포동, 아미동, 영도, 해운대, 동래 등 각 지역의 독특하고도 개성이 넘치는 이야기를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 작곡/김에스터, 김혜영, 문우희, 송영윤, 신동진, 양진경, 양희영, 유은선, 이상준, 이소진, 정지원, 최소영
- 출연/거제시소년소녀합창단, 거제시민합창단(지휘/이형예), 문백현(배우)

### 버선길 전통소리를 담다

일 시 | 8월 17일 목요일 오후 6:30  
해운대문화회관 교운홀

문의 | (사)버선길 소리단 010-4997-4925



우리에게는 다소 낯선 서도민요를 널리 알리고자 결성된 버선길 소리단의 창단공연.

서도민요는 평안도와 황해도 지방을 중심으로 불리던 민요로, 경기민요와는 다르게 호탕하고 한편으로는 여성스러운 섬세

함의 굴림으로 다른 민요와는 다른 매력을 느낄 수 있다.

특히 버선길 소리단은 부산, 경남지역을 주축으로 서도민요와 경기민요가 좋아 문친 소리 세대 기들의 모임단체로, 그동안 우리 이웃을 찾아가 노래하는 봉사단체로도 다양한 활동을 펼쳐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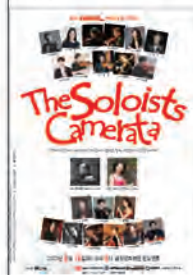
이번 무대에서는 서도민요의 대표곡인 개성난봉가를 비롯해 몽금포타령, 해주아리랑 등 다양한 서도민요를 통해 지금은 갈 수 없는 북한을 소리로나마 여행해보는 특별한 시간을 갖는다.

### 제7회 더 솔로이스츠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19일 토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초대

문의 | 더 솔로이스츠카메라타 010-8277-9765



클래식 연주를 좋아하는 아마추어 연주자들로 결성된 더 솔로이스츠 카메라타 정기연주회.

지난 2015년 창단한 후 음악적 양상불을 이뤄내는 조율과정을 통해 한 곡을 완주했다는 기쁨과 무대에 오르는 설렘을 즐

겨운 더 솔로이스츠 카메라타는 이번 무대에서 팬데믹 종식을 축하하는 밝고 아름다운 곡으로 관객과 만난다.

특히 이번 무대에서는 서울대학교와 독일 만하임 국립음대를 졸업하고 현재 충신대학교 교수로 있는 첼리스트 김성영의 협연으로 하이든 '첼로협주곡 제1번'을 비롯해 다채로운 곡을 들려준다.

- 지휘/정성흠(더 솔로이스츠 대표)

###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제5회 꼬꼬마 음악회

일 시 | 8월 24일 목요일 오후 6: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생츨  
 입장료 | 전석 1만원  
 (5세 이상 관람, 다자녀 할인 50%)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금정문화회관 상주단체로 있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가 평소 공연장 입장이 어려운 어린이들을 위해 마련한 어린이 음악회.

매년 정기연주회뿐 아니라 초청공연, 국내외 순회공연, 살롱음악회 등 연간 20회가 넘는 무대에 서온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는 이번 무대에서는 뽀로로, 캐치 티니핑, 꼬마버스 타요, 헬로카봇, 주토피아, 알라딘 등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애니메이션 주제곡을 오케스트라 연주로 들려준다.

- 단장/김종선 • 지휘/우성일

###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on brio 제17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7일 일요일 오후 5:00  
 금정문화회관 금빛누리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Con brio 010-2699-7596



음악을 전공하지 않는 부산대학교 재학생으로 구성된 부산대학교 아마추어 오케스트라 Con brio의 정기연주회.

지난 2013년 3월 창단 연주회를 시작으로 매학기마다 다양한 주제의 연주회를 개최하고 있는

Con brio는 다양한 전공의 학생들이 오직 음악을 향한 열정과 합주를 위한 하나된 마음으로 주 2회 정기 합주를 진행하고 있다. 'Con brio'는 '생기있게'라는 뜻의 이탈리아어.

작곡가 슈만을 테마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는 슈만의 유일한 오페라인 '게노베바' 서곡을 시작으로 'Overture, Scherzo and Finale 작품 52', 마지막 교향곡인 '교향곡 제3번 라인'을 들려준다.

- 지휘/정현진 • 지도교수/차의영

###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 기념 시민음악회

일 시 | 8월 27일 일요일 오후 7:30  
 스포원파크 분수대 광장  
 입장료 | 무료  
 문 의 | (사)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  
 070-88997308



부산을 대표하는 민간 오케스트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부산네오필하모닉오케스트라의 정기연주회.

한여름 밤 낭만을 즐길 수 있는 야외에서 열리는 이번 음악회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 유치를 지원하는 무대로, 연합합창단 100여 명과 국내 최정상의 성악가들이 참여하는 '한국환상곡'과 우리 귀에 친숙한 영화음악 OST, 뮤지컬 넘버, 오페라 아리아 등으로 꾸며진다.

- 예술감독, 상임지휘자/홍성택
- 소프라노/김순영 • 테너/김지호
- 합창/2030 부산세계박람회 연합합창단

### S.Modern 타악앙상블 제13회 정기연주회

일 시 | 8월 28일 월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S.Modern 타악앙상블 010-3376-2246

지난 2010년 타악연주자 송희철을 주축으로 부산 경남지역을 주 무대로 활동하는 타악연주자들로 결성된 S.Modern 타악앙상블 정기연주회. S.Modern 타악앙상블은 매년 정기연주회에서는 국내에서 처음 연주되는 작품들을 선보이며 다양한 음악적 시도를 펼치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드보르작의 '유모레스크'를 비롯해 2002 부산아시아게임 공식 주제가 '프론티어', 브라스 밴드 스타일의 원곡을 비브라폰 솔로 연주로 편곡한 Jan Fericher의 'Spring the Sky', 그리고 영화 '마블' 시리즈 OST 등 우리 귀에 친숙한 곡들로 프로그램을 구성, 흥겨운 타악의 세계로 안내한다.



###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여름날의 환상곡

일 시 | 8월 29일 화요일 오전 11: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생츨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플루트와 첼로, 피아노 선율이 어우러지는 아름다운 환상곡을 만날 수 있는 금정문화회관 11시 브런치 콘서트 8월 무대.

음악평론가 조희창의 해설로 진행되는 이번 무대에서는 한국예술종합학교 교수이자 Dolce-

Powell Flute Artist 예술감독으로 있는 플루티스트 이예린, 서울시립교향악단 첼로 수석을 역임하고 현재 칼라치 콰르텟, 클림M 멤버로 있는 첼리스트 심준호, 정확한 곡 해석과 정교한 터치로 관객들을 사로잡은 피아니스트 신재민의 앙상블로 한여름 밤을 아름답게 수놓는다.

- 프로그램  
 루이스/봄 모음곡 4악장  
 클라크/오펜저 여명 등

### 부산가야금연주단 제18회 정기연주회 별 헤는 썩

일 시 | 8월 30일 수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부산가야금연주단 010-9669-7922



최미란 음악감독을 주축으로 30여 명의 가야금 전공자들로 구성된 부산가야금연주단 정기연주회.

1부 무대에서는 여창 객 아미와 함께 하는 맑고 청아한 '평릉'을 시작으로 무용가 허경미와 함

께 하는 '밤의 소리', 가야금 3중주 '회전목마'를 연주한다.

가야금 합주 편성의 2부 무대에서는 대금주자 손한별의 협연으로 들려주는 대금 협주곡 '비류(황호준 곡)'에 이어 작곡가 이은경의 '별 헤는 썩' 위촉 초연무대, 그리고 영화 '라라랜드' OST(번재벽 편곡), 한여름 밤을 가득 채우는 별 이야기로 관객과 함께한다.

### 2023 영화의전당 11시 음악회 8월 탱고 그리고 영화음악 with 친친탱고

일 시 | 8월 30일 수요일 오전 11:00  
 영화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2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부산을 대표하는 탱고양상블 친친탱고가 함께하는 이번 무대에서는 탱고의 정석이자 탱고를 대표하는 영화 '여인의 향기' 수록곡인 'Por Una Cabeza'를 비롯해 영화 '탱고레슨', '탱고' 등 영화 OST와 익숙한 선율로 기억되는 영화 '대부', '기쿠지로의 여름', '시네마천국', '해피투게더' 등 다양한 영화 속의 음악들을 강렬한 악센트의 탱고곡으로 편곡, 탱고의 세계로 관객들을 이끈다.  
 친친탱고는 지난 2020년, 작곡가이자 반도네오니스트 김종완을 중심으로 창단된 후 탱고의 아름다움을 알리는데 앞장서 왔다.

### 제9주년 부산예술성악회 정기공연

일 시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6:0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문 의 | 부산예술성악회 010-3884-4623



소프라노 조신미성악아카데미 회원들로 구성된 부산예술성악회 정기공연 TDC 챔버오케스트라의 협연으로 열리는 이번 무대에서 회원들은 그동안 갖고 닦은 실력으로 다채로운 무대를 선사한다.

- 지휘/조신욱
- 음악감독/조신민
- 테너/신재철, 배부현
- 바리톤/김유환, 강양수, 이수용
- 소프라노/이경순, 오경숙, 박양미, 김기향, 말녀, 신순애, 최창숙, 박정수, 강여순
- 중창/여성중창단

### 제495회 가람초청음악회 박필은&김진희 피아노 듀오 리사이틀

일 시 | 8월 31일 목요일 오후 7:30  
 가람아트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가람아트홀 010-3855-8604



부산대학교 음악학과 동문인 피아니스트 박필은, 김진희의 듀오 무대로 마련되는 제495회 가람초청음악회. 박필은은 독일과 한국에서 수차례 독주회 및 실내악 연주, 성악반주 등 다양한 무대에서 활동해 왔으며, 김진희는 아인클랑 피아노 앙상블을 대표, 부산 현대음악앙상블을 단원으로 다양한 무대에 서고 있다.  
 이번 무대에서는 피아노 듀오 음악을 대표하는 작곡가 슈베르트, 라흐마니노프의 네 손을 위한 작품과 피아노 독주곡과 오케스트라를 네 손을 위한 작품으로 편곡한 리스트와 생상스의 곡을 들려준다.

### 앙상블 We & 무지카비바 앙상블동행

일 시 | 9월 1일 금요일 오후 7:30  
 해운대문화회관 해운홀  
 입장료 | 초대  
 문 의 | 앙상블 We 010-4254-5586



2019년 부산, 경남지역 출신의 발달장애 연주자들로 구성된 앙상블 앙상블 We와 이들의 지도를 맡고 있는 바이올리니스트 박경희 예술감독이 리더로 있는 무지카비바 앙상블의 합동무대.  
 2019년 결성된 후 지속적인 연주활동을 이어오고 있는 앙상블 We의 단원들은 현재 디지털 장애인 HR 솔루션 기업 (쥬브이드림)의 지원을 받아, 태가비엔(주)와 재택근무 형태로 근무하면서 발달장애인의 자립을 위한 전문 음악인 일자리 창출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다.  
 이번 무대는 발달장애인 앙상블과 전문 앙상블의 협연이라는 특별한 시도로, 서로 다른 분위기와 스타일을 가진 연주를 즐길 수 있다.  
 • 예술감독, 리더/박경희 • 첼로, 해설/전명희

### 연극

#### 연극 이머시브 연극 아이 좀비

일 시 | 6월 15일(목)-9월 24일(일) 화·목요일 오후 8:00, 토요일 오후 2:00, 5:30, 일요일 오후 3:00(매월 마지막 주 수요일 오후 8:00) 어댑터 플레이스  
 입장료 | 전석 3만 5천원(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예술은 공유다 010-3850-1447



한국과 영국의 예술가들이 공동제작하는, 관객 참여형 연극(Immersive) '아이 좀비'. 집 안에 갇힌 앙숙 형제가 좀비세상에서 서로를 지켜내며 관계를 회복해 가는 '아이 좀비'는 특히 국내에서는 보기 드문 좀비 장르와 코미디가 어우러진 작품으로, 생생한 입체음향과 특수장장으로 울려 퍼지는 공연장을 찾은 관객들에게 오싹한 공포를 선사한다.  
 • 작/세바스찬 가드너, 다니엘 케틀  
 • 연출/심문섭  
 • 협력연출/세바스찬 가드너, 나니엘 케틀, 주현준

#### 연극 새빨간 거짓말

일 시 | 6월 23일(금)-9월 3일(일)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부산메트로홀  
 입장료 | 전석 3만 5천원(만 13세 이상 관람)  
 문 의 | (주)플레이 더 부산 1600-0316



오감을 자극하는 스릴러 연극 '새빨간 거짓말'. 모든 것이 부족함이 없는 완벽주의자 이유리. 어느 날 그녀는 심각한 상해를 입게 되고 그녀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용의선상에 오르지만 뚜렷한 증거가 없어 사건은 미궁 속으로 빠진다. 과연 이들 중 범인은 누구이며, 그녀의 잘린 신체는 어디로 사라졌을까. 특히 이번 무대는 탄탄한 스토리와 예측 불가능한 전개, 실 들 없이 조여 오는 긴장감으로 차원이 다른 공포를 선사한다.

### 연극 기억의 숲

일 시 | 7월 20일(목)~9월 2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공휴일 오후 3:00, 6:00(월요일 공연 없음)  
**BNK부산은행조은극장 1관**  
 입장료 | 전석 4만원(15세이상 관람)  
 문 의 | 조은극장 1588-2757



공포 연극의 선두주자인 연극 '홍터' 제작진의 기억 3부작 중 두 번째 작품인 연극 '기억의 숲'. 이번 작품은 17명을 살해하고 소년교도소로 수감되어 재판을 기다리는 '재용'과 남편을 살해하고 수감된 '엄마', 그리고 그들의 정신과 치료를 하게 된 '의사'를 둘러싼 심리 스릴러 연극으로, 특히 어린 시절의 암울한 학대와 잔혹한 가족사로 인해 사이코패스가 된 연쇄살인마의 심리 치료 과정을 통해 사건 속의 또 다른 진실이 밝혀지면서 관객들에게 정통 심리 스릴러의 진수를 선사한다.

- 작, 연출/서복준

### 뮤지컬 시카고 25주년 기념 오리지널 내한

일 시 | 8월 11일(금)~20일(일) 평일 오후 7:30, 토·공휴일 오후 2:00, 6:30, 일요일 오후 2:00(8/18일 오후 3:00, 7:30, 월요일 공연 없음) **드림씨어터**  
 입장료 | VIP석 17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14세 이상 관람)  
 문 의 | 장터미디어(주) 1588-0766



지난 25년간 브로드웨이를 점령한, 브로드웨이 뮤지컬 역사상 최장 공연 기록에 빛나는 뮤지컬 '시카고' 내한공연. 브로드웨이의 전설적 안무가 밥 파시의 관능미 넘치는 무대로 가득한 '시카고'는 1920년대 농염한 재즈 선율과 갱 문화가 만연했던 시카고의 어두운 뒷골목, 그곳에서 벌어진 관능적 유희과 살인을 뮤지컬로 풀어낸 작품이다. 특히 이번 무대는 시선을 땔 수 없는 관능적인 배우들과 스타일리쉬한 무대, 14인조 빅밴드의 멋진 라이브 연주로 관객들을 사로잡는다.

### 가족뮤지컬 바다탐험대 옥토넷 시즌2

일 시 | 8월 12일(토), 15일(화) 오전 11:00, 오후 2:00, 4:00, 13일(일) 오전 11:00, 오후 2:00, 14일(월) 오후 2:00, 4:00  
**신세계센텀시티 문화홀**  
 입장료 | 전석 5만 5천원 (20개월이상 관람, 예매 시 2만 5천원)  
 문 의 | (주)전공이엔티 1522-2061



TV애니메이션을 통해 오랜기간 어린이들의 친구였던 바다탐험대 옥토넷 대원들을 무대에서 만날 수 있는 가족뮤지컬. 아름다운 산호초로 뒤덮인 호주 대산호초에는 다양한 바다생물들이 함께 모여 살고 있다. 그러던 중 가시관 불가사리 무리들이 몰려 오고, 과연 옥토넷 대원들은 바다생물들을 보호할 수 있을까? 화려한 영상으로 구현한 바다속 풍경과 생생한 바다생물들이 관객의 시선을 사로잡는 이번 무대는 옥토넷 대원들과 떠나는 대산호초 보호를 통해 자연환경 보호의 소중함을 배울 수 있다.

### 연극 축하케이크

일 시 | 8월 24일~25일 목~금요일 오후 8:00, 26일 토요일 오후 3:00, 27일 일요일 오후 4:00 **해운대문화회관 고운홀**  
 입장료 | 전석 3만원(만 12세 이상 관람)  
 문 의 | 극단 잠방 25 010-8209-7019



2020 밀양공연예술축제 대학전 작품상 및 우수 연기상 수상, 2022 제19회 부산국제연극제 청년 지원 챌린지 선정작인 극단 잠방 25의 '축하케이크'. 원로 극작가 이백문의 집. 아내의 생일임에도 이백문은 자신의 친구 김진해와 술을 먹고 있다. 어머니의 생일에도 아버지가 친구랑 술 먹고 있다는 사실에 분노가 차오른 아들 이우석은 만만한 여동생 이체린에게 화풀이를 하면서 싸움이 일어나는데... 이번 작품은 소통되지 않는 부모와 자녀, 서로의 말만 하는 남성과 여성을 가족이라는 키워드로 묶어내어 세대 갈등, 젠더 갈등과 같은 심각한 사회문제를 유쾌하게 풀어낸다.

### NEW 뮤지컬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일 시 |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4:00 **KBS부산홀**  
 입장료 | 전석 6만 5천원(24개월 이상 관람)  
 문 의 | 동그라미그리기 1577-4868



TV애니메이션으로 많은 사랑을 받은 미니특공대 시리즈를 가족뮤지컬로 제작한 '미니특공대 브이레인저스'. 악단 바쿠스의 감옥 이송 작전을 시작하는 브이레인저스는 스파크단의 비열한 계략으로 전투에서 패배하고 모든 것을 잃게 된다. 평소 과거에 대한 기억상실로 괴로워하던 특공대 리더 볼트는 옛 기억이 떠오르고, 과연 브이레인저스는 바쿠스를 물리치고 평화를 지킬 수 있을까? 미니특공대는 악당으로부터 지구를 지키기 위해 활약하는 특공대원들의 흥미진진한 모험담을 그린 작품으로, 한시도 눈을 땔 수 없는 화려한 특수효과와 생동감 넘치는 퍼포먼스로 관객들의 시선을 사로잡는다.

### 테이블 인형극 꼬마오즈

일 시 | 8월 26일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금정문화회관 은빛샘홀**  
 입장료 | 전석 1만원  
 문 의 | 금정문화회관 519-5661



테이블에서 펼쳐지는 도로시와 친구들의 모험 이야기, 테이블 인형극 '꼬마오즈'. 전 세계인이 사랑하는 '오즈의 마법사'를 바탕으로, 2년여간의 제작기간을 거쳐 완성한 테이블 인형극인 '꼬마오즈'는 기존 동명의 작품과 확연히 차별화되는 작품 구성으로, 단순한 인형극이 아닌 총체극이라는 평가를 받으며 2003 춘천인형극제를 비롯해 서울아동청소년공연예술축제, 아시테지여름겨울축제, 거창연극제, 거제여름축제, 밀양연극제 등 수많은 축제에 초청받으며 작품성을 인정받았다. 특히 애니메이션으로 제작된 각 인물의 화상 장면이 스크린에 투사되고 스크린을 이용한 그림자극이 첨무되는 등 다양한 볼거리로 극의 재미를 더했다.

무용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산불

일 시 | 8월 4일 금요일 오후 7:30, 5일 토요일 오후 5:00 **영광의전당 하늘연극장**  
 입장료 | 전석 3만원  
 문 의 | (재)영화의전당 780-6060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등 현 인류가 겪고 있는 심각한 과제들을 컨템포러리 서커스, 현대무용, 연극, 창작음악 등 다양한 장르의 예술협업으로 선보이는 인터랙티브 퍼포먼스 '산불'.

지난 2020년 호주에서 6개월간 이어진 사상 초유의 산불로 인하여 죽어간 동물들을 생각하며 제작한 '산불'은 자연과 인간, 지구와 미래에 대한 이야기를 기존 무대예술의 장르적 틀에서 벗어난 새로운 무대로 관객들에게 들려준다.

김남진피지컬씨어터 예술감독, 부산국제무용제 운영위원장으로 있는 김남진의 안무로 벨기에, 프랑스에서 함께한 세계적인 아티스트와 서울, 부산의 퍼포머들이 호흡을 맞춘다.

영화

어린이를 위한 체험형 오페라  
마술피리·아이다

일 시 | 8월 5일 토요일 오후 1:00, 3:30  
 키자니아 부산 극장  
 문 의 | ㈜사콘느 746-2018



영화관에서 즐기는 특별한 키즈 오페라.

문화로 도시를 재생하는 부산 문화 로컬크리에이터 도시 재생 전문기업 ㈜사콘느가 어린이들을 위해 기획한 행사로, 모차르트가 음악으로 그려낸 환상적인 이야기 '마술피리'(오후 1:00)와 고대 이집트를 배경으로 이집트의 장군 라다메스와 에티오피아 공주 아이다와의 비극적 사랑을 그린 오페라 '아이다'(오후 3:30)를 애니메이션 영화로 만날 수 있다.

특히 부산시 소통 캐릭터인 부기가 영상 속 주인공 공으로 등장하여 어린이들을 오페라 세계로 안내한다.

행사

8월 오페라바움 해설이 있는 클래식 & 오페라 감상회

일 시 | 매주 화요일·금요일·토요일  
 오후 2:00, 7:00 **오페라바움**  
 입장료 | 전석 1만 5천원  
 문 의 | 오페라바움 실장 010-4205-1039



오페라바움이 마련하는 8월 감상회.

매주 화요일에는 멘델스존 특집을, 금요일에는 베르디 오페라를, 매주 토요일에는 직장인을 위한 특별 편성으로, 오페라바움 대표 심성섭의 해설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오페라(베르디 탄생 210주년 특집)/에르나니(4일~5일), 포스카리가의 두사람(11일~12일), 시칠리아섬의 저녁기도(18일~19일), 시몬 보카네그라(25일~26일)  
 콘서트(멘델스존 특집)/교향곡 제3, 4번(1일, 5일), 교향곡 제5번, 소품(8일, 12일), 바이올린 협주곡, 소품(15일, 19일), 피아노협주곡, 무연가(22일, 26일), 한여름밤의 꿈(29일, 2일)

해설과 함께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일 시 | 매주 수요일 오전 10:30, 오후 2:00  
**무지크바움 음악홀**  
 입장료 | 월 4회 5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음악전문감상 오디오 시스템을 갖추고, 음반 및 영상물 4,000장이 상을 소장하고 있는 전문 음악감상 홀이자 다양한 예술 인문학 강좌도 열리는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진행하는 클래식 음악 감상회.

매주 수요일 두 차례, 르네상스 및 바로크, 고전주의, 낭만주의 작품들을 중심으로 클래식 음악의 명반을 소개하고, 다양한 콘서트 실황 및 음악 페스티벌, 오페라, 재즈 및 월드뮤직, 예술영화 등을 영상으로 감상한다.

김옥균의 클래식뮤직감상이가  
데미 클래식음악 영상해설감상회

일 시 | 매주 금요일 오전 11:00  
**영광도서 문화홀 1관**  
 입장료 | 2개월 10만원  
 문 의 | 김옥균 010-6367-0149



MBC 부산문화방송 'FM 가정음악실', '별이 빛나는 밤에' 등 음악프로그램을 연출한 前 MBC PD이자 현재 클래식 해설가, 시인, 음악 치료사로 활동하고 있는 김옥균의 해설로 진행되는 '클래식 뮤직아카데미'.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 특강'과 함께 유명 작곡가의 탄생지 기행, 국내외 최신 클래식 음악의 해외연주회 실황을 영상으로 감상할 수 있다.

프로그램

알기 쉬운 서양음악사특강(4)·국민음악파의 이해&스메타나 '몰다다우 강', 무소르그스키 모음곡 '전람회의 그림'  
 모차르트 피아노협주곡 제23번, 베토벤 교향곡 제7번

클래식음악영화, 말러(영국 영화)  
 영국음악기행, 헨델 '수상음악', 엘가 첼로협주곡, 크로스오버 클래식의 매력, 안드레아 보첼리의 뉴욕 콘서트  
 특집 '한국 가곡의 소역사', 흥난파 가곡, 이수인, 윤용하 가곡 감상회

제188회 알바트로스 시낭송  
콘서트 여름, 바다, 주제 시낭송회

일 시 | 8월 19일 토요일 오후 2:00  
**영광도서 문화홀**  
 입장료 | 무료  
 문 의 | 알바트로스 시낭송문학협회  
 010-63670-0149

- 출연/정서연 시인 외 회원, 초대시인
- 초청음악가/김기범(베이스바리톤), 조형식(색소폰)

### 8월 시네바움 아카데미

일 시 | 매주 월요일 오후 7:00, 17일 목요일 오전 11:00 **시네바움**  
 문 의 | 시네바움 010-2774-3455

#### 7일(월)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쇼펜하우어와 김훈의 만남'

• 강사/김영진(대구대 창조융합학부 교수)

#### 14일(월) 신경과학 시대에 인간을 다시 본다

• 강사/김남호(울산대 철학 상담학과 교수)



17일(목) 낭독과 낭송 그리고 시조창(時調唱)과 詩수다.애초에 하늘을 날던 물고기(강혜성 著, 2022)

21일(월) 영화의 바다에서 만난 문학 'M. Butterfly와 오리엔탈리즘'

• 강사/홍옥숙(한국해양대 글로벌해양인문학부 교수)



28일(월) 수많은 자아와 마주하는 순간 나 그리고 또 다른 나 '화이트헤드와 한강의 만남'

• 강사/ 김영진(대구대 창조융합학부 교수)

### 무지크바움 성악/노래 클래스

일 시 | 8월 10일(목), 24일(목) 오후 2:00  
**무지크바움**  
 입장료 | 월 2회 5만원  
 문 의 | 무지크바움 070-7692-0747



복합문화공간인 무지크바움이 매월 둘째 주와 넷째 주 마련하는 성악/노래 클래스.

계명대학교 성악과 및 동대학원을 졸업하고 이탈리아 파르마 국립음악원, 밀라노 시립음악원에서 수학한 테너 김준태가 진행하는 이번 강좌는 레슨 형식의 수업을 통해 한국가곡 및 영미가곡, 이탈리아가곡, 독일가곡, 세계민요 등 다양한 장르의 가곡을 배워볼 수 있다.

특히 발성연습을 시작으로 디క్ష-영어, 이탈리아어, 독일어 배우기, 노래부르기 등 단계별 학습과 정을 통해 전문적인 실력을 쌓을 수 있다.

### 2023 상지인문학아카데미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음악책에서 소리를 듣다

일 시 | 8월 30일 수요일 오후 6:30  
**상지건축 대학의실**  
 입장료 | 무료  
 문 의 | 상지건축 대외협력본부 240-1526, 1529



매월 넷째 주 수요일에 만나는 문화유목민 정두환의 음악으로 본 세상 이야기.

천재라는 분야가 유일하게 남아있는 '음악', 그 음악의 본질은 사람을 이해하는 것이다. 동시대의 삶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장르가 필요하며 각각의 지성과 이성, 그리고 본성이 만날 때 시대를 뛰어넘는 힘은 더욱 커질 것이다. 이는 각자의 삶을 풍요롭게 하고 동시에 더불어 살아가는 사회의 중요성을 느끼게 되는 길이다.

이번 강좌는 음악이라는 소재로 세상을 살펴보는 시간으로, 음악을 통해 서로를 위로하고 위안 받을 수 있는 자리이다.

### 전시

#### 부산시립미술관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3 슬픈 나의 젊은 날

일 시 | 3월 10일(금)-8월 6일(일)  
 부산시립미술관 3층 대전실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부산을 기반으로 활동하는 신진 작가의 실험 정신과 독창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젊은 시각 새로운 시선 2023'. 김덕희, 오민욱, 조정환 등 작가 3인의 회화, 미디어, 설치, 영상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신작을 포함한 70여 점을 소개한다.

#### Sacred Land

일 시 | 4월 13일(목)-10월 15일(일)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문 의 | 랄프 김슨 사진미술관 747-1939

#### 요시고 사진전 따뜻한 휴일의 기록

일 시 | 5월 27일(토)-9월 3일(일)  
 KT&G 상상마당 부산  
 입장료 | 1만 5천원  
 문 의 | KT&G상상마당 부산 070-8893-0892-4

#### 부산시립미술관 소장품 기획전 영점

일 시 | 6월 16일(금)-8월 27일(일)  
 부산시립미술관 2층  
 문 의 | 부산시립미술관 0507-1404-2602

#### Re: 새새정글

일 시 | 6월 21일(화)-9월 3일(일)  
 부산현대미술관 야외조각공원  
 문 의 | 부산현대미술관 220-7400~1

#### 김티나 초대개인전

일 시 | 8월 10일(목)-8월 27일(일)  
 갤러리 한스  
 문 의 | 갤러리 한스 784-0233



설치미술가로 활동하는 작가 김티나 초대 개인전.

평소 시간을 기록하기 위한 메모의 행위를 반복한다는 김티나 작가는 메모의 행위가 망각과 기억 사이의 결핍을 보완하기도 하지만, 스스로에게 물음을 하게 한다며, 그 물음은 주변 세계(감상자, 관객)와의 소통을 도우며, 끊임없는 '감각'을 찾아 나서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고 한다.

이번 전시에서 작가는 기록을 위해 행해졌던 일련의 행위를 작품에 있어 테이프(Masking Tape)의 흔적으로 표현하는 등 작품을 통해 감상자(작품 설치참여)와 함께 하며 서로의 다른 시간을 마주하고, 새로운 변화의 시간을 마주한다.



**진절하 미술관**

정연은 지음 / 북클로스 / 2만2천원

눈으로 감상하는 그림을 라디오 방송으로 소개하는 일은 쉽지 않다. 하지만 정연은 미술칼럼니스트의 그림 이야기는 재미있다. 정연은 저자는 cpbc 부산 가톨릭 평화방송 '화요명화산책', KBS1라디오 '라디오도슨트'에서 그림을 소개해왔다. 그동안 모아온 방송원고 중 30여 점을 골라 엮어낸 책이 <진절하 미술관>이다. 저자는 라디오를 통해 들어도 대부분 알 수 있는,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유명작품을 선정했다. 하루를 열심히 보내고 잠시 라디오를 듣는 시간만이라도 명화 이야기에 위안을 받았으면 하는 마음에서였다. 작품에 얽힌 당대의 역사적 상황이나 작품에 담긴 다양한 관점의 해석도 놓치지 않았다. 저자는 우리가 그림을 감상하면서 궁금해 하던 명화 속에 숨겨진 이야기를 쉽고 명료하게, 때론 깊이 있게, 때론 유쾌하게 전달한다. 그의 그림 이야기는 우리 안에 감춰져 있던 예술적 감각과 새로운 일상을 깨워준다. 라디오를 통해 귀로 들어도 재미있었는데, 책을 펼쳐 그림을 보며 저자의 글을 읽으면 미술이 한층 더 가까운 세계로 다가온다. 책에는 명화도 풍부하게 수록했다. 충실한 내용의 글 읽는 재미, 아름다운 그림 보는 재미를 함께 느낄 수 있다.



**궁으로 관 최순이**

양지선 지음 / 지앤유 / 1만8천원

"조선시대 진주 최고의 예인", "칼춤으로 고종 앞에 선 열세 살 소녀". 궁중의 검무를 국가무형문화재 '진주검무'로 전승하기 위해 치열하게 살아온 최순이를 일컫는 말이다. 이 책은 조선시대에 태어나 대한제국과 일제강점기, 현대를 거치며 관기의 삶을 살아온 최순이에 대한 대서사이며 '현사'이다. 저자 양지선은 최순이의 춤과 삶을 알리고, 조선시대 전문 예술인이었던 기생에 대한 편견을 없애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진주검무 이수자인 저자는 경상국립대학교 인문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로 재직 중이다. 책의 전반부는 최순이의 궁중 생활기다. 조선 왕실 연향의 격식과 예에 맞춘 궁중음식 코스, 꽃장식 등도 사료를 찾아 생생하게 그려냈다. '의궤'와 진찬도병(그림) 등의 기록을 고증하여 궁중의 무희들이 어떤 종류의 춤을 추었고, 몇 명이 추었는지 어떤 복식을 했는지도 흥미롭게 서술한다. 최순이의 이야기이면서 동시에 조선의 예성 예술인 이야기이다. 후반부는 최순이가 진주로 내려 온 후의 활동이다. 최순이는 궁중에서 배운 춤을 제자들에게 가르치며 스승의 길을 걸었다. 최순이의 삶은 진주검무가 국가무형문화재로 지정되어 교방문화라는 꽃을 피워내는 데 씨앗이 된다.



**인간의 눈물**

유승환 옮김 / 두두 / 1만8백원

부산의 출판사 '두두'에서 펴내는 딱지본 소설 번역 시리즈 다섯 번째. 이 시리즈는 딱지본 소설을 현대어로 번역하여 선보인다. 딱지본 소설은 20세기 초 많은 대중에게 사랑받았으나 이후 근대 소설에 미달한다는 평가를 받으며 문학장에서 잊힌 작품군이다. '미달'이라고 평가하며 우리가 잃어버린 이야기에는 어떤 삶과 욕망들이 있을까. <인간의 눈물>은 1936년 홍문서관에서 발행됐는데, 원작자의 이름은 남아있지 않다. 소설의 배경은 대공황을 맞은 1930년대이자, 일제강점기이다. 이 억압한 시대에 하원근의 가족들은 전기도 끊기고 물건도 저당 잡힌 채 배를 굶으며 살아간다. 이때 하원근에게 수상한 제안이 들어온다. 누군가 다른 사람인 척 연기해 주지만 하면 매달 큰 돈을 벌 수 있다는 것이다. 가난한 나로 살 것인가? 부유한 위조 인간으로 살 것인가? 1930년대 대표 작가들이 쓴 노동 소설과 달리 <인간의 눈물>은 사회적 약자로서 노동자가 느끼는 비애와 공포에 보다 집중하고 있다. 또한 주인공이 저항적인 투사가 아니라 연약하고 인간적인 보통의 사람이라는 점은 다른 소설들과 차별화되는 지점이자, 당대 대중 독자에게 사랑받은 이유이기도 하다.



### 부산시립예술단,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과 업무협약



부산시립예술단이 국제도시 부산의 관문인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김해국제공항)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지난 7월 21일 김해공항 국제선 의전실에서 열린 협약식에서 부산시립예술단은 월 2회, 찾아가는 예술단 공연을 김해국제공항에서 진행하고, 한국공항공사 김해공항은 공항 내 공연 부대시설을 지원하며 안내 DID모니터, 셔틀버스 등 홍보채널을 통해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홍보를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번 업무협약에 따라 팬데믹 종식 이후 증가하고 있는 공항 이용객들에게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을 제공함으로써 문화도시 부산으로서 이미지를 향상시키고 양 기관의 대외홍보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김해국제공항은 지난 1958년 8월 부산 수영비행장을 최초로 개설한 후 1963년 9월 부산국제공항으로 승격되었다. 공항시설 확장을 위하여 1976년 8월, 강서구 대저동의 현 위치로 이전, 김해국제공항으로 개칭했으며, 현재 연간 1,000만 명의 여객이 이용하고 있다.

### 2023년 부산시립예술단 숏폼 콘텐츠 공모전 개최

부산시립예술단에서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부산시립교향악단,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무용단,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부산시립극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총 7개 예술단을 홍보하는 숏폼 콘텐츠를 공모한다.

공모기간은 9월 24일까지이며, 1분 내외의 짧은 세로형 영상을 본인 영상 플랫폼에 게시하고 해당 플랫폼의 URL을 구글 폼으로 제출하면 된다.

- 문의/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607-3112

### 제9기 SNS서포터즈 출범



SNS(소셜 네트워크 서비스)를 기반으로 한 다양한 홍보활동을 펼칠 (재)부산문화회관 제9기 SNS서포터즈가 지난 7월 7일 발대식을 갖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이번 제9기 SNS서포터즈는 모두 24명이 선발됐으며, 오는 12월까지 6개월간, (재)부산문화회관의 주요 행사와 소식을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등 다양한 SNS 매체를 통해 공유, 홍보한다. 활동 기간동안에는 서포터즈들에게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전시,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등 일부 공연 및 전시 관람 기회를 제공하며, 수료시 수료증을 발급한다.

한편, 지난 7월 25일에는 제8기 SNS서포터즈의 활동을 마감하는 수료식이 열렸다.



## 2023년 제34회 부산합창제 참가단체 모집

부산시립합창단에서는 합창문화 활성화를 위해 2023년 제34회 부산합창제에 참가할 부산지역 내의 합창단을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 ● 모집부문 및 전형내용

- 행사명 : 합창으로 하나되는 부산 <제34회 부산합창제>
- 모집부문 : 부산지역을 연고로 한 20인 이상 합창단(혼성/시니어/남성/여성)
- 제출서류 : 참가신청서 및 악보, 사진 제출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최근 3년 이내 연주한 4분 이내 동영상) 제출  
※ 참가단체는 합창제 3일간 총 36팀(1일 12팀)이내로 제한  
- 신청단체 中 소정심사를 거쳐 참가팀 결정(모집부문별 신청수를 비례 조정함)  
※ 동일 지휘자 출연은 1일 1회로 제한

### ● 행사일 : 2023년 10월 17일(화)~2023년 10월 19일(목) 19: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 ● 전형일시

- 접수기간 : 2023년 7월 17일(월)~2023년 9월 1일(금) 18:00까지
- 구비서류 : 신청서 1부, 악보·지휘자·합창단·반주자·단장 사진 각 1장, 연습실황 or 공연 동영상 1개  
(신청서는 한글파일 / 사진, 악보는 jpg 및 pdf / 동영상은 mp4 형식으로 제출)  
※ 구비서류 누락 시, 심사에서 제외 될 수 있음
- 접수 : 전자우편(bschorus3132@bscc.or.kr)만 접수 가능  
※ 메일명은 [참가희망일] 단체명으로 접수 요망 ⇨ 예) [10월 17일] 부산시립합창단
- 적격단체 발표 : 2023년 9월 8일(금) 17:00(예정),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
- 참가단체 예비모임 : 2023년 9월 25일(월) 14:00(예정), 부산시립합창단 연습실

### ● 접수 및 문의사항 : 부산시립합창단 담당자 ☎ 051) 607-3132

# 2023년 부산시립예술단 숏폼 콘텐츠 공모전

2023. 7. 24.월  
~ 9. 24.일



**부산 문화예술의 중심, 부산을 대표하는 문화예술단체인  
부산시립예술단의 매력을 1분 안에 담아내주세요!**

## 공모주제

- 부산시립예술단의 매력을 1분 안에 담은 영상
- 부산시립예술단을 홍보하는 1분 영상
- 부산시립예술단에 대한 애정을 담은 1분 영상

## 참가자격

부산시립예술단에 관심 있는 누구나 참여 가능(개인 또는 팀)

## 참가방법

- 1분 내외의 짧은 세로형 영상을 본인 영상 플랫폼에 게시 (필수 해시태그 포함)  
※ 필수 해시태그 : #부산시립예술단 #부산시립예술단숏폼공모전
- 해당 게시물 URL을 구글 폼으로 제출
- 1인(또는 1팀)당 최대 3개 작품 출품 가능(중복 수상 불가)

## 제출형식

- 영상장르 : 장르불문(브이로그, 패러디, 애니메이션, 스케치코미디 등)
- 영상장비 : 제한 없음
- 영상길이 : 작품 길이 60초 내외, 최대 90초 미만
- 파일형식 : mov, mp4 등 동영상 파일 형식
- 해상도 : 1080p(1920\*1080픽셀) 이상의 세로형 영상  
※ 출품 규격에 맞지 않는 출품작은 탈락 또는 감점 처리

## 시상내역

구분	상금(상품)	수상 인원	비고
최우수상	1,000,000원	1명(팀)	
우수상	500,000원	3명(팀)	
장려상	300,000원	5명(팀)	
참가상	모바일 쿠폰(2만원 상당)	30명(팀)	랜덤 추첨
합계	총 4,100,000원	39명(팀)	

※ 심사기준 미달 시 시상 규모 변동될 수 있음

※ 제세공과금 발생 시 본인부담

## 수상작 발표 및 시상식 : 10월 초(예정)

## 문의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사업팀  
051) 607-3112 또는 beautifully44@bscc.or.kr

# BSCC

P R O G R A M

## (재)부산문화회관·부산시립예술단 2023 시즌 프로그램

### 예매 방법

온라인 예매 |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에서 24시간 예매 가능합니다.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로 인터넷 및 모바일 예매 시, 1,000원 추가 할인

전화예매 | 고객센터(Tel.051-607-6000)로 전화하시면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예매 가능합니다.

한국어 문의 | ARS 1번 | 외국어 문의 | ARS 2번

티켓수령 | 관람 당일 공연장 로비 매표소에서 수령할 수 있습니다.

### 예매 취소 및 변경

취소·변경 안내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또는 전화(051-607-6000)로 예매 취소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매는 공연 전날 14시에 종료되며, 취소는 공연 전날 17시까지 가능합니다. 이후, 취소 및 변경은 불가합니다.

취소내역은 홈페이지의 '마이 페이지'에서 반드시 본인이 확인하셔야 합니다.

수수료 티켓환불규정에 따라 수수료가 일부 발생할 수 있으며, 공연 당일에는 취소, 변경, 환불이 불가능합니다.

구분	취소수수료	비고
공연 7일 전~2일 전까지	티켓 가격의 10% 공제 후 환불	• 예매 당일 취소 시, 수수료 없이 전액 환불(단, 공연 당일 불가) • 예매 마감은 공연 1일 전 14:00 • 취소 마감은 공연 1일 전 17:00
공연 1일 전 취소마감 17시까지	티켓 가격의 20% 공제 후 환불	
취소마감 17시 이후부터 공연당일	취소 및 환불 불가	

※ 프로그램 일정 및 내용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재)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매 문의 : 051) 607-6000(ARS 1번)

# 2023. 7-12월

July - December

## (재)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 부산문화회관

소프라노와 12명의 첼리스트가 빚어내는 천상의 하모니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문화 | 대극장 2023. 7. 4.(화) 7:30pm  
VIP 160,000원 R 120,000원 S 8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출연 | 소프라노 조수미, 베를린 필 12첼리스트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오페라 <카르멘>**

문화 | 중극장 2023. 7. 13.(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제주시아트센터·제주4·3평화재단 공동기획 및 제작  
**4·3창작오페라 <순이상춘>**

문화 | 대극장 2023. 8. 19.(토) 3:00pm  
무료 ※티켓오픈 추후공지,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총감독, 연출 | 강혜영

• 원작 | 현기영

• 대본 | 김수열

• 작곡 | 최정훈

• 출연 | 부산시립합창단,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극단가람, 밀물현대무용단, 순이상춘오페라합창단



호기심을 자극하는 그림자극과  
클래식 음악이 함께하는 공연

**음악동화 그림자극 <피터와 늑대>**

문화 | 사랑채 2023. 8. 18.(금)-9. 24.(일)  
평일 11:00am 주말 11:00am, 2:00pm

※월-화요일 공연없음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영

• 출연 | 최진희, 원우연, 이송, 이한강, 이명진 외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KBS 성우 정구영마 송연희가 들려주는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문화 | 중극장 2023. 8. 20.(일) 11:00am, 3:00pm  
R 40,000원 S 20,000원 ※만 5세 이상 관람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문화 | 대극장 2023. 8. 26.(토)-27.(일)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곡 | G.푸치니 • 연출 | 정선영

• 지휘 | 김현수

• 합창·연주 | 2023부산오페라하우스 합창단·오케스트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문화 | 중극장 2023. 8. 31.(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 미술관장역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역 | 손지현



선물처럼 찾아온 특별한 하루!  
**뮤지컬 <이상한 엄마>**

문화 | 중극장 2023. 9. 9.(토)-10.(일)  
11:00am, 2:00pm, 4:00pm

R 60,000원 S 40,000원

※12개월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원작 | 백희나



© 할리퀸크리에이션즈(주)

세기의 오페라 대결이 시작된다!

**뮤지컬 <파리넬리>**

문화 | 대극장 2023. 9. 23.(토)-24.(일)

※중학생 이상 관람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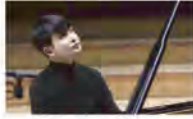
**안드라스 쉬프**

문화 | 대극장 2023. 10. 4.(수) 7:30pm



월드 콩쿠르 우승자 시리즈 IV  
**선우예권 피아노 리사이틀**

**문화 | 대극장** 2023. 10. 6.(금) 7:30pm  
R 6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예측할 수 없고 알려지지 않은 무언가에 온 맘이 들끓어  
**뮤지컬 <마리 퀴리>**

**문화 | 대극장** 2023. 10. 14.(토)-15.(일)  
VIP 99,000원 R 88,000원 S 66,000원

- ※중학생 이상 관람
- ※공연회차, 출연진 및 티켓오픈 추후공지
- 프로듀서 | 강병원
- 극작 | 천세은
- 작곡 | 최중윤
- 연출 | 김태형
- 안무 | 신선호
- 음악감독 | 신은경
- 제작 | 라이브(주)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문화 | 중극장** 2023. 10. 19.(목) 7:30pm  
R 50,000원 S 30,000원 ※만 7세 이상 관람

- 미술관장 | 이주현
- 오페라 해설가 | 손지현



2023년 문예회관과 함께하는 방방곡곡 문화공감 사업  
익숙하고 편안한 음악을 통한 추억 여행  
**<모던 애프터눈>**

**문화 | 챔버홀** 2023. 10. 21.(토) 5:00pm  
전석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 출연 | 김소영, 박강현, 이호찬, 오신영



부산 지역 예술단체의 저력을 볼 수 있는 공연예술축제  
**2023 부산공연콘텐츠페스타**

**문화 | 중극장** 2023. 11. 2.(목), 5.(일), 9.(목)



NHK 다큐멘터리 '대황하'의 주인공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11. 9.(목) 7:30pm  
R 40,000원 S 20,000원 ※초등학생 이상 관람



**2023 대학 교향악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18.(토)-26.(일)  
평일 7:30pm, 주말 3:00pm  
전석 10,000원 ※티켓오픈 추후공지

- 11. 18.(토) 3:00pm | 경성대학교
- 11. 19.(일) 3:00pm | 동의대학교
- 11. 24.(금) 7:30pm | 인제대학교
- 11. 25.(토) 3:00pm | 동아대학교
- 11. 26.(일) 3:00pm | 부산대학교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유자 왕**

**문화 | 대극장** 2023. 11. 28.(화) 7:30pm



공개 오디션을 통한 청년 희망 날개 프로젝트  
**부산, 노래로 하나되다**

**문화 | 대극장** 2023. 12. 2.(토) 5:00pm  
전석 30,000원

- ※초등학생 이상 관람, 티켓오픈 추후공지
- 출연 | 청년 성악가(공모) 및 부산성악가협회원



평범한 오늘 시작된 특별한 시간여행  
**뮤지컬 <렛미플라이>**

**문화 | 중극장** 2023. 12. 15.(금)-16.(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60,000원 S 50,000원 ※8세 이상 관람

- 작 | 조민형
- 작곡 | 민찬홍
- 연출 | 이대웅



러시아 극작가 안톤 체홉의 대표작!  
시나위의 감성으로 풀어낸 명작의 연극미학  
**<벚꽃동산>**

**문화 | 중극장** 2023. 12. 22.(금)-23.(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30,000원 S 2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작 | 안톤 체홉
- 연출 | 이기호
- 기획 | 극연구집단 시나위
- 출연 | 박상규, 우명희, 박창화 외 11명



2023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크ристи안 집머만**

**문화 | 대극장** 2023. 12. 27.(수) 7:30pm



예술의전당 우수 예술콘텐츠 상영프로젝트  
**배시시 명품극장**

**시민 | 소극장** 2023. 6. 28.(수), 8. 30.(수),  
10. 25.(수), 11. 29.(수) 매주 수요일 7:00pm  
무료



2030세계박람회 부산유치기원 페스티벌!  
**부산버스킹페스타**

**시민 | 소극장** 2023. 7. 1.(토) 3:00pm  
전석 20,000원

- 출연 | 2023년 버스킹 예선 통과팀(10개팀)
- 예술감독 | 김종근
- 협력 | 부산정보산업진흥원, 2030부산월드엑스포범시민유치위원회
- 게스트 | 덕펄스



한때 우리는 모두 '야구왕'이었다!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시민 | 대극장** 2023. 7. 5.(수)-16.(일)  
수·목요일 10:30am, 금요일 7:30pm,  
토요일 11:00am, 2:00pm, 일요일 11:00am  
VIP 70,000원 R 50,000원 S 30,000원  
※5일 10:20am, 12월 2:00pm(월·화 공연없음)  
※48개월 이상 관람  
• 작 | 김정민 • 음악감독 | 성찬경  
• 연출 | 이대웅



관객과 평단을 동시에 사로잡은 수작!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시민 | 소극장** 2023. 7. 7.(금) ~ 8.(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부산시민회관 소극장  
전석 20,000원 ※중학생 이상 관람  
• 작가 | 레지날드 로즈(Reginald Rose) • 연출 | 류주연  
• 번역 | 김용준  
• 출연 | 이현경, 오재균, 민병욱, 최명경, 이재인, 방기범, 김애진, 반인환, 홍성호,  
김용식, 김서아, 황비홍, 허준호  
• 후원 | 예술경영지원센터



어른들을 위한 그때 그 시절 이야기!  
**연극 <검정 고무신>**

**시민 | 소극장** 2023. 7. 22.(토) 3:00pm  
전석 20,000원 ※8세 이상 관람  
• 제작 | 극단 예저또  
• 작 | 김지연 • 연출 | 최재민



부산시민들의 유쾌한 문화놀이터  
**2023 시민뜨락축제**

**장소 미정** 2023. 8. 19.(토)-9. 2.(토)  
매주 토요일 12:20pm  
\*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무료



디즈니의 마법, 그 이상을 경험하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시민 | 대극장** 2023. 8. 26.(토) 3:00pm  
VIP 100,000원 R 80,000원 S 60,000원 A 40,000원  
※48개월 이상 관람  
• 출연 | 디토 오케스트라, 디즈니 싱어즈(신재범, 김환희, 이종석, 홍경아 외)



2023 부산 인터네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시민 | 대극장** 2023. 9. 1.(금)-2.(토)  
평일 7:00pm, 주말 3:00pm

- R 80,000원 S 50,000원 A 30,000원 ※8세 이상 관람  
• 출연 | 이은미&민경인트리오, 말로, 시호&시게키, 최은아, 위나&조운성트리오,  
이효정



2023년 국립발레단이 야심차게 선보이는 신작,  
부산에서 만나자!  
**발레 <돈키호테>**

**시민 | 대극장** 2023. 9. 16.(토)-17.(일)  
토요일 5:00pm, 일요일 2:00pm  
VIP 90,000원 R 70,000원 S 40,000원 A 20,000원  
• 음악 | 루트비히 민쿠스 • 원안무 | 마리우스 프티파  
• 재안무 | 송정빈 • 각색 | 정다영  
• 작, 편곡 | 김인규  
• 주최 | (재)부산문화회관, (주)화승



©손지인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시민 | 대극장** 2023. 9. 19.(화) 7:30pm  
R 140,000원 S 110,000원 A 80,000원  
• 지휘 | 피에타리 잉키넨 • 피아노 | 손열음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  
**위대한 유산**

**시민 | 대극장** 2023. 10.10(화) 19:30



관객이 뽑은 '국립극단에서 보고 싶은 연극 1위'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시민 | 대극장** 2023. 11. 3.(금)-4.(토)  
평일 7:30pm, 주말 3:00pm  
R 50,000원 S 30,000원 ※14세 이상 관람  
• 원작 | 기군상 • 각색, 연출 | 고선웅



동화구연을 활용한 우화와 무용의 만남!  
**무용 <여우와 돌고래>**

**시민 | 소극장** 2023. 11. 18.(토) 3:00pm  
전석 20,000원 ※36개월 이상 관람  
• 안무 | 임진호, 이경구 • 드라마트루그 | 지경민  
• 제작 | 고블린파티



**부산시립예술단 정기·특별공연**

※ **문화** 부산문화회관 / **시민** 부산시민회관

**부산시립교향악단**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I**

**문화 | 대극장** 2023. 1. 18.(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제596회 정기연주회

**신년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1. 19.(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첼로 심준호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

**문화 | 챔버홀** 2023. 2.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597회 정기연주회

**사랑의 죽음**

**문화 | 대극장** 2023. 2. 21.(화)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홍석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줄인 I**

**문화 | 챔버홀** 2023. 3. 3.(금)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 II**

**문화 | 대극장** 2023. 3. 21.(화)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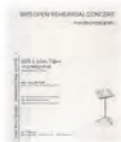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3. 22.(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8회 정기연주회

**브람스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3.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제599회 정기연주회

**멘델스존과 버르토크**

**문화 | 대극장** 2023. 4.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금노상  
• 바이올린 나승준(2023 정기연주회 오디션 합격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실내악 공장 II**

**문화 | 챔버홀** 2023. 5. 4.(목)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우리아이음악회**

**문화 | 대극장** 2023. 5. 19.(금) 11:00am, 7:30pm

전석 10,000원



기획음악회

**미완성음악회 II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6. 14.(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기획음악회

**BPO Odyssey**

**문화 | 대극장** 2023. 6. 15.(목) 7:30pm

전석 10,000원



제600회 정기연주회

**말리의 마지막 교향곡**

**문화 | 대극장** 2023. 6. 16.(금)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1회 정기연주회

**쇼스타코비치와 프로코피예프**

**문화 | 대극장** 2023. 7. 21.(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서진 | 바이올린 김재원



기획음악회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 I**

**문화 | 대극장** 2023. 8. 18.(금) 9:00pm

전석 10,000원

• 지휘 백승현 | 첼로 정우찬



제602회 정기연주회(2023 부산마루국제음악제 메인콘서트)

**네 개의 프랑스 관현악**

**문화 | 대극장** 2023. 9. 7.(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바이올린 올리비에 샤를리에



제603회 정기연주회

**부산시향의 차이콥스키**

**시민 | 대극장** 2023. 9. 22.(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백승현 | 피아노 세르게이 타라스프





기획음악회

### 제79회 청소년 협주곡의 밤

문화 | 중극장 2023. 10. 6.(금) 7:30pm  
전석 5,000원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포니아(夜)III

문화 | 중극장 2023. 10. 25.(수)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최수열 | 해설 이준형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II \*오픈리허설

문화 | 중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4회 정기연주회

### 손민수의 브람스 협주곡

문화 | 중극장 2023. 10. 2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줌인II

문화 | 펠버홀 2023. 11. 3.(금) 7:30pm  
전석 10,000원



제605회 정기연주회

### 프로코피예프와 라흐마니노프

문화 | 대극장 2023. 11. 17.(금)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사오치아 루 | 바이올린 백주영



기획음악회

### 부산시향의 심야음악회II \*오픈리허설

문화 | 중극장 2023. 12. 1.(금) 9:00pm  
전석 10,000원  
• 피아노 손민수(2023 올해의 예술가)



기획음악회

### 미완성음악회IV \*오픈리허설

문화 | 대극장 2023. 12. 13.(수) 7:30pm  
전석 5,000원  
• 지휘 최수열



제606회 정기연주회

### 영웅의 생애

문화 | 대극장 2023. 12. 14.(목) 7:30pm  
R 20,000원 S 15,000원 A 10,000원 B 5,000원  
• 지휘 최수열



## 부산시립합창단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 I '사랑의 노래'

문화 | 중극장 2023. 3. 23.(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창은 | 클라리넷 이효주  
• 바이올린 이소정 | 타악 성형원



특별연주회

### 어린이 뮤지컬 '옛날 옛적에'

문화 | 대극장 2023. 5. 4.(목) 7:30pm, 5.(금) 11:00am  
R 20,000원 S 10,000원  
• 지휘 이기선



제190회 정기

### 모차르트 레퀴엠

문화 | 대극장 2023. 6. 22.(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특별연주회

### 2023 Summer Fantasy

문화 | 대극장 2023. 7. 20.(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임희준



특별연주회

### 유명지휘자 초청연주회II

문화 | 중극장 2023. 9. 21.(목) 7:30pm  
전석 10,000원  
• 지휘 손동현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0. 17.(화)-19.(목) 7:00pm  
무료



특별 및 교류연주회

### 현대합창의 밤

문화 | 대극장 2023. 10. 20.(금) 7:30pm  
전석 10,000원



제191회 정기

### 엔델스존 엘리야

문화 | 대극장 2023. 11. 23.(목) 7:30pm  
R 30,000원 S 20,000원 A 10,000원  
• 지휘 이기선



부산시립국악관현악단

특별연주회

**2023 신년음악회**

문화 | 클래식 2023. 2. 2.(목) 7:30pm  
 전석 10,000원  
 • 사회 백규진



특별연주회

**감각, 생명**

문화 | 대극장 2023. 3. 31.(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Muy bien, 열씨구 좋다!**

문화 | 중극장 2023. 4. 28.(금)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19회 정기연주회

**Insight Music: 통찰의 시간**

문화 | 대극장 2023. 5. 18.(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퇴근길 음악회, 국악 힐링 타임**

문화 | 클래식 2023. 6. 22.(목) 7:30pm  
 전석 10,000원



제220회 정기연주회

**예술감독 이동훈 취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7. 27.(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1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13.(수) 7:30pm  
 R 20,000원 S 10,000원



특별연주회

**제48회 청소년 협연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10. 26.(목) 7:30pm  
 전석 5,000원



제222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1. 16.(목) 7:30pm  
 R 20,000원 S 10,000원



제223회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2.(화) 7:30pm  
 R 20,000원 S 10,000원



부산시립무용단

창단 50주년 기념 특별공연

**The 50\_Time to Dance**

시민 | 대극장 2023. 2. 25.(토) 3:00pm  
 전석 20,000원



제87회 정기공연

**1002 Nights\_천 두번 패의 밤**

시민 | 대극장 2023. 5. 12.(금)-13.(토)  
 금요일 7:3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운(부산시립무용단 예술감독)  
 • 지휘 최수열(부산시립교향악단 예술감독)  
 • 협연 부산시립교향악단



특별공연회

**이정운의 댄스살롱\_The50/그 동안**

문화 | 중극장 2023. 7. 22.(토) 5:00pm



제88회 정기공연

**The Legacy**

문화 | 대극장 2023. 10. 27.(금)-28.(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R 30,000원 S 20,000원  
 • 안무 이정운(예술감독)



특별공연

**안무가 육성 프로젝트 '디딤&Step'**

문화 | 중극장 2023. 12. 8.(금)-9.(토)  
 금요일 8:00pm, 토요일 4:00pm



부산시립극단

특별공연

**어린이 뮤지컬 아카데미 '피터팬'**

문화 | 중극장 2023. 2. 25.(토) 4:00pm, 7:00pm  
 2. 26.(일) 1:00pm, 4:00pm  
 전석 10,000원  
 • 원작 J.M.베리 | 각색 강보람  
 • 작곡 전현미 | 연출 김지용



제74회 정기공연

**집집 : 하우스 소나타**

문화 | 중극장 2023. 3. 30.(목)-4. 1.(토)  
 평일 7:30pm, 주말 5:00pm  
 전석 20,000원  
 • 작 한현주 | 연출 주혜자



특별공연

### 뮤지컬 '미운오리새끼'

문화 | 사랑채 2023. 5. 3.(수)-28.(일)  
• 원작 H.C.안데르센 | 각색 신서영  
• 작곡 진소영 | 연출 김지용



특별공연

### 소년B가 사는 집

시민 | 소극장 2023. 6. 14.(수)-17.(토)  
수·목요일 10:30am, 2:00pm(단체관람),  
금요일 10:00am, 2:00pm(단체관람), 7:30pm, 토요일 5:00pm  
전석 20,000원  
• 극작 이보람 | 연출 최용혁



제75회 정기공연

### 스타프로젝트 <극작가-김문홍전>

안개주의보-강성우/사자의 편지-윤준기/  
목련꽃 그늘 아래서-권삼우

시민 | 소극장 2023. 9. 7.(목)-9.(토), 14.(목)-16.(토),  
21.(목)-23.(토) 평일 7:30pm, 토요일 5:00pm



제76회 정기공연

### 크리스마스 캐롤

문화 | 대극장 2023. 12. 7.(목)-10.(일)  
평일 7:30pm, 주말 5:00pm



##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제70회

### 정기공연

문화 | 대극장 2023. 3. 28.(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2023 솔로리스트들의 축제

문화 | 대극장 2023. 5. 23.(화) 7:30pm  
전석 5,000원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6. 17.(토) 5:00pm  
무료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7. 22.(토) 5:00pm  
무료



### 특별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0. 31.(화) 7:3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유망주 음악회

문화 | 챔버홀 2023. 11. 11.(토) 7:30pm  
전석 2,000원



제72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26.(화) 7:30pm  
전석 2,000원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특별연주회

### 우리들의 작은 음악회 '희망을 노래하다'

문화 | 챔버홀 2023. 2. 21.(화) 7:30pm  
초대



특별연주회

### 가정의 달에 부르는 우리들의 노래

문화 | 챔버홀 2023. 5. 27.(토) 5:00pm  
무료



제163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9. 9.(토) 5:00pm  
전석 2,000원



특별연주회

### 제34회 부산청소년합창제

문화 | 대극장 2023. 11. 3.(금) 7:30pm,  
11. 4.(토) 5:00pm  
무료



제164회

### 정기연주회

문화 | 대극장 2023. 12. 16.(토) 5:00pm  
전석 2,000원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게만 드리는

# 특별한 혜택



## 우크라이나 이바노프랭키 필하모니 챔버 오케스트라 초청 음악회 **종료**

6월 28일(수)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40매)

## 2023 부산버스킹페스타 **종료**

7월 1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40매)

## 조수미 & 베를린 필 12 첼리스트 **종료**

7월 4일(화)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10매)

## 뮤지컬 <야구왕, 마린스> **종료**

7월 5일(수)-16일(일) 수·목요일 오전 10:30, 금요일 오후 7:30,  
토요일 오전 11:00, 오후 2:00, 일요일 오전 11:00  
※ 5일 오전 10:20, 12일 오후 2:00(월-화 공연없음)  
부산시민회관 대극장(금·일요일 공연에 한해 회차별 R석 20매)

## 연극 <12인의 성난 사람들> **종료**

7월 7일(금)-8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회차별 초대권 20매)

다양한 할인혜택으로 문화생활의 필수품으로 자리 잡은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제도는 높은 할인율과 초대권 증정 등 다양한 혜택으로 보다 많은 관람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부산문화회관 VIP회원에 가입하시면 지정 기획공연 중 관람권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관람권 사용이 가능한 공연은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나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http://www.bscc.or.kr))를 통해 공지되며, 공지된 공연 중 원하는 공연을 선택하셔서 전화로 사전 예약하시면 됩니다. 아래 공연은 2023년 예약이 가능한 기획공연으로 공연예매 시작과 함께 전화로 예약 가능하며 선착순 마감입니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

**<운명을 불사른 정열의 붉은꽃 - 오페라 카르멘> 종료**

7월 13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연극 <검정 고무신> 종료**

7월 22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동화발레 <잠자는 숲속의 미녀>**

8월 20일(일) 오전 11:00,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R석 20매)

**2023 부산 오페라 시즌 오페라 <토스카> 종료**

8월 26일(토)-27일(일)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2023 디즈니 인 콘서트: Beyond The Magic 종료**

8월 26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

**<기다림과 불멸의 또 다른 이름, 사랑  
- 오페라 나비부인&투란도트>**

8월 31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2023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페스타(BIMF)**

**<디바(Diva) in 재즈>**

9월 1일(금)-2일(토) 평일 오후 7:0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국립발레단 <돈키호테> 종료**

9월 16일(토)-17일(일) 오후 2: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16일자 공연 5석 20매)



**미술관 옆 오페라하우스 III**

**<동백꽃 질 무렵 -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10월 1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5석 30매)

**음악을 통한 추억여행 <모던 에프터눈>**

10월 21일(토)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챔버홀(초대권 20매)

**연극 <조씨고아, 복수의 씨앗>**

11월 3일(금)-4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대극장(회차별 R석 40매)

**오카리나의 장인 <소지로 내한공연>**

11월 9일(목) 오후 7:30  
부산문화회관 대극장(R석 40매)

**가족을 위한 무용 동화 <여우와 돌고래>**

11월 18일(토) 오후 3:00  
부산시민회관 소극장(초대권 20매)

**뮤지컬 <렛미플라이>**

12월 15일(금)-16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3: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회차별 5석 20매)

**연극 <벚꽃동산>**

12월 22일(금)-23일(토) 평일 오후 7:30, 주말 오후 5:00  
부산문화회관 중극장(R석 30매)

\* 1인 1매에 한해 예약 가능하며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 공연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문의 | 문화예술팀(051-607-6000)



# 일상에 문화를 더하다, 문화생활의 필수품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 회원가입

가입신청 (재)부산문화회관 051) 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단체가입 할인 20명 이상(10%), 30명 이상(20%), 50명 이상(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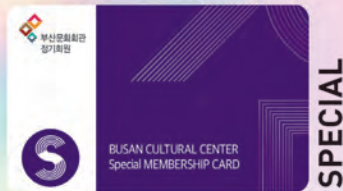
## 공통혜택

- 가입 기간(1년)
- 정기회원 카드발급 우송(10일 이내)
-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우송
- 선예매 서비스 제공(일부 공연 제외)
- 공연정보(SMS) 제공(대관공연 제외)
- 문화예술아카데미 수강료 10% 할인
- 부산문화회관 주차요금 50% 할인(입차 시 회원카드 제시)
- 정기회원 전용 라운지 이용(대극장 3층/회원카드 제시 시/음료 등 제공)
- 부산시내 외부 공연 및 대관공연 입장료 할인(주최 측 협의에 한함)



**연 회 비** : 10만원  
**초 대 권** : 8매(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공연 4매,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6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지정된 기획공연 초대권 4매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지정된 기획공연, 지정된 객석 수, 지정된 좌석에 따라 선착순 마감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10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50%)  
※ 지정된 기획공연 안내: 홈페이지 및 월간예술정보지 '예술의 초대' 게재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연 회 비** : 5만원  
**초 대 권** : 4매(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 공연 4매)  
**할인매수** : 4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초대권 4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공연은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 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6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연 회 비** : 3만원  
**초 대 권** : 2매(부산시립예술단 가입단체 공연 2매)  
**할인매수** : 2매(공연당)  
**특별혜택**

- 부산시립예술단공연(5개 단체) 중 가입 단체 초대권 2매 제공
- 부산시립예술단 5개 단체(교향악단, 국악관현악단, 합창단, 무용단, 극단) 중 가입 단체 지정된 객석 수, 선착순 마감  
※ 초대권은 가입한 날로부터 1년 이내 사용(전화 사전예약, 선착순 마감)
- 부산문화회관 무료주차권 4매 증정
- 부산문화회관·부산시민회관 기획(전시)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입장료 할인(10~30%)

### (재)부산문화회관 유료회원을 위한 선예매 서비스 제공

(재)부산문화회관에서는 정기(유료)회원에게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선예매 제도를 도입합니다. 선예매는 일반 예매에 앞서 유료회원에게 사전 예매기간을 제공함으로써 회원들이 보다 좋은 좌석을 미리 예매할 수 있습니다. 대상공연은 부산문화회관 기획공연 및 부산시립예술단 공연(일부 공연 제외)입니다. 부산문화회관은 앞으로도 유료회원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입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051)607-6200 \*평일 09:00~18:00(토·일·공휴일 제외) ※ 회원가입 취소 시(가입한 날로부터 5일 이내/입장권 구입 시 불가능)

비즈니스 성공을 위해 함께 합니다

## (재)부산문화회관 법인회원 멤버십

법인회원을 위한 비즈니스 멤버십은 문화 혜택과 더불어 회관의 홍보 채널을 제공합니다.

한 장의 카드로 혜택을 모으고, 문화를 즐기고, 기쁨을 나눕니다.

기업의 품격을 높여줄 재단법인 부산문화회관 비즈니스 멤버십에 가입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주요 혜택

#### 부담은 줄이고 문화는 풍성하게

공연과 전시(20~50%), 아카데미 수강(10%), 회관 주차장(50%) 등을 할인된 가격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최고의 혜택과 홍보를 한 번에

회관의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을 이용해 기업을 홍보할 수 있습니다.  
월간 <예술의초대>, 회관 내 DID, 회관 홈페이지 및 SNS를 통해 기업을 홍보하세요.

### 비즈니스 멤버십 등급별 혜택

등급 (가입기간 1년)	루비 레드 (Ruby Red)	에메랄드 그린 (Emerald Green)	사파이어 블루 (Sapphire Blue)
연회비	500만 원	300만 원	100만 원

#### 공통혜택

공연 초대권 제공(등급별 상이) | 공연 및 전시 할인(20~50%) | 아카데미 수강료 할인 | 월간지 <예술의초대> 매월 발송 | 회원라운지 무료 이용(음료 및 다과 제공) | 주차요금 할인(50%, 회원카드 제시) | 제휴업체 할인 (사정상 변경, 조정될 수 있음) | 회원대상 초청 이벤트 실시(별도계획에 의함) | 법인회원 네임 플레이트 제작 및 비치(대극장 로비 벽면) | 법인회원 현판 제공(법인회원 기업 설치) | 초대권 제공(협의 공연) | 문화회관 주차장 정기이용 등록

#### 등급별 추가 혜택

회관 홈페이지 배너 광고	3개월	2개월	1개월
월간 예술정보지 <예술의초대> 광고	1회	-	-
회관 내 DID 법인 홍보	2개월	1개월	-
회관 공식 SNS 홍보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카카오스토리, 블로그)	3개월	2개월	1개월

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홍보마케팅팀(051-607-6041, www.bscc.or.kr)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회장 도용복**  
(주)사라토가 회장



**명예회장 최수기**  
(주)휴넷 회장



**명예회장 변원탄**  
의료법인 양산병원 이사장

## \*부 회장

**김창환** 국제아트센터협동조합  
**장문호** (주)천영스틸 대표이사  
**박정삼** 백송건설 회장  
**김정기** (주)경동건설 대표이사  
**박정오** (주)삼정기업 회장  
**박재복** 지원건설(주) 회장  
**조흥수** 후소산기(주) 대표이사  
**이원우** 한성테크(주) 회장  
**권홍사** (주)반도건설  
**임현경** 신주레약국  
**임현숙** (사)아름다운 사람들 이사장  
**권정미** 고신의료원 임상교수  
**임미정** (주)창창아이씨티 대표  
**김충석** 국제로타리3661 부산지구 총재  
**임말섭** (주)미성하이텍

## \*이사회원

**강대일** 웰딩시스템 대표  
**강서룡** 효승테크 대표이사  
**곽국민** (주)파크랜드 대표이사  
**권한상** 부경대학교 교수  
**김기호** (주)이디에스 보안물류 대표이사  
**김성우** (재)해뜨락 요양병원 이사장  
**김암우** 세무법인 중추 대표이사  
**김홍재** (전)연제구의장  
**김홍재** (주)식스데이 대표이사  
**류용주** 삼신교통(주) 회장  
**서현석** 한국고무산업 대표이사  
**손명찬** 서원건설산업(주) 대표이사  
**윤철원** (주)정우 대표이사  
**이수영** (주)유한 대표이사  
**이진영** 돌고래마취통증의학과의원 원장  
**임정덕** 예술과부산 대표이사  
**장세비** 우리은행 부산금융센터 및 부산영업 그룹장  
**정문홍** (주)태영버스 대표이사  
**정연택** 디씨엠(주) 대표  
**정용환** 서번산업엔지니어링(주) 대표이사

## 조기종 황성환

조기종치과의원 원장  
부산제2항운병원 원장

## \*일반회원

**강득용** (주)프리미엄 에셋 대표이사  
**김말순** 인창요양병원 대표이사  
**김영수** 세종월드건설 대표이사  
**김종부** 다올테크 대표이사  
**김 철** 온종합병원 산부인과  
**김희규** 효성의약품(주) 대표이사  
**도재철** (주)좋은세상 대표이사  
**문민우** 명인제약

**박성복** 대동병원 이사장  
**박성환** 세종기획 이사  
**박혜빈** 경성대학교 교수  
**안진우** 구포성심병원 이사장  
**박홍근** 삼강종합건설(주)  
**성원기** 하나유치원 원장  
**안금주** 세무법인 인성  
**양은진** 세무법인 프로텍 세무사  
**이경철** 통통샤인 정신건강의학과  
**이상수** 엘가 대표  
**이성임** 굿엔프랜드주식회사  
**이수민** 르네상스피부과 원장  
**이에리카정애** 이현숙 정신건강의학과 원장  
**이현숙**  
**임은자** 정민섭 산부인과 원장  
**정민섭** (전)국회의장  
**정의화** 숙편한내과 원장  
**조성락** 라이프온(주) 대표이사  
**조중래** 주식회사 일신케미칼 사장  
**하정태** 법률사무소 담헌 변호사  
**한원우** 동우개발(주) 회장  
**김진홍** (사)서부산경제발전연구원  
**정명선**

※ 2023년 7월 기준 가입자 명단(이후 추가 가입회원 다음 호 게재)





보람 있는 후원, 명예로운 모임

# (재)부산문화회관 후원회 가입안내

GUIDE A MEMBER OF THE ASSOCIATION FOR THE BUSAN CULTURAL CENTER

## ■ 기본 예우



후원회 전용 룸 이용



대극장 좌석 네이밍



예술의초대  
소식지 발송



연(분기 또는 반기)  
후원회원 대상 음악회 개최



후원 회원명단 게재  
(후원회 홈페이지, 월간지 등)



부산시립예술단 공연 무료 관람 제공  
(동반 1인 포함 / 사전 신청자에 한함)



후원회 멤버십 카드 발급



회원패 증정



무료 주차 혜택 제공  
(본인 차량에 한함)

## ■ 회원별 예우

단위 : 만원

구분	가입비	연회비 (익년도부터)	법인/ 개인	기획공연 및 전시 무료 초대		아카데미	좌석 네이밍 (대극장)
				기획공연(연간)	전시		
부회장	500 이상	200	법인/ 개인	- 기획공연 8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배우자 무료	본인·배우자 무료	2개 좌석
이사 회원	300	100		- 기획공연 6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5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50% 할인	
일반 회원	100	50	개인	- 기획공연 4매 - 기획공연 및 예술단공연 입장료 할인(30%)	본인 무료, 동반 1인 50% 할인	본인 10% 할인	1개 좌석

- ※ 법인회원은 300만원부터 가능하고, 후원회원 예우는 개인 및 법인의 대표와 배우자에 한함.
- ※ 공연(기획공연, 예술단공연) 무료초대는 반드시 사전 예약을 하여야 하며, 조기매진 시 초대권 제공 불가함.
- ※ 일부 공연의 경우 공동주최 등의 사유로 예우사항(할인율 등)이 일부 조정될 수 있음.
- ※ 전시, 아카데미(1강좌에 한함)의 경우 반드시 사전 신청자에 한하며 내부 사정에 따라 예우사항 등은 조정될 수 있음.

가입문의 : (재)부산문화회관 문화예술팀(607-6052)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8 AUGUST

COUPON



30% Discount

갤러리안경(전 지점)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노벨안경콘택트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COUPON



20% Discount

해리스커피

이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시면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예술의 초대  
The Monthly Magazine of Busan Cultural Center

# (재)부산문화회관 공식 SNS 채널을 팔로우 하세요!



@bsculturalcenter\_official



facebook.com/busanculturalcenter



@배시시TV



(재)부산문화회관

COUPON



20% Discount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 쿠폰 소지자에 한해 1인 2매까지 할인됩니다.
- 예매 후 티켓 수령 시 본 쿠폰과 문화회관 정기회원카드를 제시하여야 합니다.

COUPON



1만원 면세포인트  
(\$100 이상 구매 시)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쿠폰 소지회원 출국당 1월 1회,  
당사 규정에 따라 증명합니다.

COUPO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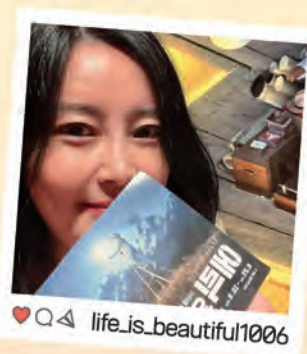
5% Discount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홈페이지 예약으로만 진행되며  
여행사 판매가의 5%를  
할인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산문화회관, 부산시민회관 다녀왔습니다!

# #방문 인증 당첨자



부산문화회관과 부산시민회관에서 공연, 전시, 아카데미 등  
다양한 문화생활을 즐기는 모습을 후기와 함께 SNS에 인증해주세요!

필수 해시태그와 함께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블로그 중 한 곳 이상 올려주시면  
매월 5명 추첨을 통해 예술의초대에 사진 게재 및 소정의 상품(1만원 상당)을 드립니다!

8월 이벤트 필수 해시태그 #부산문화회관\_다녀왔어요 (또는 #부산시민회관\_다녀왔어요) #예술의초대\_9월호

COUPON

COUPON

COUPON



(부산송도) 베스트웨스턴 플러스호텔

예약방법 : 호텔 홈페이지 예약하기 → 프로모션 코드입력 "CORMEM"  
(<https://bwplusbusan.com/>)

부산광역시 서구 송도해변로 97  
051)977-8888



신세계면세점 부산점

증정 기간 : 2023. 8. 31까지  
증정 장소 : B1 고객 서비스 데스크

부산광역시 해운대구 센텀4로 15  
1661-8778



BNK부산은행 조은극장

입장권 20% 할인

부산광역시 중구 구덕로34번길 4  
1588-2757



EXPO 2030  
BUSAN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음악동화 그림자극

PETER



AND THE

WOLF

S. PROKOFIEV, PETER AND THE WOLF OP.67

<피터와 늑대>

2023. 8. 18(금) - 9. 24(일)

평일 11시 / 주말 11시, 14시 (월, 화 휴관)

부산문화회관 사랑채극장

COUPON



해리스커피

음료 20% 할인(정기회원 카드 제시 시)

부산문화회관 내  
1577-2307

COUPON



노벨안경콘택트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전 상품  
2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남구 유엔평화로 152-2  
051)626-8263

COUPON



갤러리안경(전 지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대상  
30% 할인(일부품목 제외)

부산광역시 금정구 부산대로 50  
051)513-4500

우 편 엽 서

보내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받는 사람

이름 \_\_\_\_\_

주소 \_\_\_\_\_



I N V I T A T I O N T O T H E A R T S  
2023 8 AUGUST

독자의견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세요.

The Monthly Magazine  
of the Busan Cultural Center

1. 이번 호에서 유익했던 기사는?

\_\_\_\_\_  
\_\_\_\_\_

2. 앞으로 다루었으면 하는 내용은?

\_\_\_\_\_  
\_\_\_\_\_

3. 개선해야 할 점은?

\_\_\_\_\_  
\_\_\_\_\_



모바일 엽서로도  
참여 가능합니다.

2023 (재)부산문화회관

# 문화예술아카데미 하반기 수강생 모집

2023. 7. 17.(월) ~ 정원 마감 시

온라인 접수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아카데미 → 수강신청  
오프라인 접수·문의 : 051-607-6000

분야	강의명	기간	일시	회차	인원	수강료
발레(중급)	프리미엄 발레	9.5.~12.19.	(화) 10:30~12:10	15회차	15	240,000
드로잉	나만의 드로잉 그로잉	9.5.~12.19.	(화) 10:30~12:30	15회차	15	240,000
가곡	심정보와 함께하는 가곡교실	9.5.~12.19.	(화) 14:00~16:00	15회차	30	240,000
사물놀이	영남사물놀이를 알아보자	9.5.~12.19.	(화) 19:30~21:30	15회차	15	240,000
발레(초급)	슬림 업 스트레칭 발레	9.6.~12.13.	(수) 10:30~12:10	15회차	15	240,000
연극	나의 이야기, 연극이 되다	9.6.~12.13.	(수) 13:30~15:30	15회차	15	240,000
한국화	고운 색으로 물들이는 나만의 민화	9.6.~12.13.	(수) 19:00~21:00	15회차	10	240,000
현대무용	춤추는 현대무용	9.6.~12.13.	(수) 19:30~21:10	15회차	15	240,000
서양화	감각의 드로잉	9.7.~12.21.	(목) 19:00~21:00	15회차	10	240,000
클래식기타(초급)	클래식기타(초급)	9.8.~12.22.	(금) 10:30~12:30	15회차	15	240,000
클래식기타(중급)	클래식기타(중급)	9.8.~12.22.	(금) 14:00~16:00	15회차	15	240,000
사진학	프로젝트A-나만의 포트폴리오 제작	9.2.~12.16.	(토) 10:00~12:00	15회차	25	240,000

\*강의 일정은 내부 사정에 의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수강신청 유의사항 및  
안내사항

1. 상·하반기 학기별(4개월)로 운영됩니다.
2. 청강 및 대리수강, 일일수강 불가합니다.
3. 강좌별 최소 정원 미달 시 미개설 될 수 있습니다.
4. 수강 기간 중, 수강생 대상 무료 주차권이 제공됩니다.



수강신청 QR CODE

누군가 이 세상을 바로잡아야 한다



THE MUSICAL

# 데스노트

2023.07.26 ~ 08.06 •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홍광호 김준수 고은성 김성철 이영미 장은아 서경수 장지후 류인아 장민제 김용수 서범석 박현선 외

제작 OD COMPANY 주최 부산광역시 TBC TJB 주관 부산문화재단 문의 1566-9621

Music by FRANK WILDHORN  
Lyrics by JACK MURPHY  
Book by IVAN MENCHELL  
Arrangements & Orchestrations by JASON HOWLAND  
Original Direction by TAMIYA KURIYAMA  
Produced by CHUNSOO SHIN

©Tsgumi Ohba, Takeshi Obata / Shueisha Original Production by Horipro Inc.

가혹한 운명 진실한 사랑을 통한 구원

MUSICAL  
F A R I N E L L I  
파리넬리

9.23(토)~24(일)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제작 에이치제이컬처 HICULTURE

주최·주관 WSM

World Show Market



BUSAN CULTURAL CENTER  
부산문화회관

시간 토/일 오후 2시, 6시

예매 인터파크, 네이버예약, 11번가티켓 문의 1566-5490

◆◆ (재)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할인 1인 4매 / 1566-5490 전화예매시 ◆◆



# 4.3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 OPERA AUNT SUNI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2023. 8.19.(토) 오후3시

원작 현기영 | 작곡 최정훈 | 총감독·연출 강혜명 | 대본 김수열 | 미술 강요배 | 지휘 양진모 | 부산시립 소년소녀 합창단 지휘 천경필  
협력연출 이상용 이민수 | 수석음악코치 윤현정 | 부산 오페라 합창단 지휘 차윤희 | 사진 강정효 | 안무감독 이해준 | 무대감독 설석형  
무대디자인 신재희 | 조명감독 공홍표 | 영상디자이너 김장연 | 음향감독 김효철 | 분장감독 이정수 | 의상감독 이상희  
음악코치 최지선 김희정 이영지 | 조연출 손미경 최은숙

출연진 | 김신규 강혜명 이동명 장성일 최승현 함석현 김지민 이병훈 김병택 이승준 이차익 조성진 고가영 문석범 박연술 이정현 진소빈  
부산시립청소년교향악단 / 부산오페라합창단 / 부산시립소년소녀합창단 / 극단가람 / 밀물현대무용단 / 순이삼촌 소년소녀 중창단

제주43을 소재로 한 현기영의 소설 '순이삼촌'을 원작으로  
제주시(제주아트센터)와 제주43평화재단, 부산문화회관이 공동 기획제작한 창작오페라

티켓문의 | 전석초대 | 부산문화회관 홈페이지(www.bscc.or.kr) / 051607-6000



World EXPO 2030  
BUSAN, KOREA



BUSAN CITIZEN'S HALL  
부산시민회관



© Andreas Zihler

지휘 피에타리 잉키넨  
Pietari Inkinen

피아노 손열음  
Yeol Eum Son

# DEUTSCHE RADIO PHILHARMONIE

## 도이치방송오케스트라 with 손열음

R. WAGNER Tannhäuser Overture  
S. RACHMANINOFF Piano Concerto No. 3  
L. v. BEETHOVEN Symphony No. 7



© Jean M. Laffrau

2023. 9. 19 TUE 7:30 PM  
부산시민회관 대극장

주최 | 부산문화회관 더존테크빌 주관 | STUDIO DUZON

입장권 | VIP석 16만원 R석 14만원 S석 11만원 A석 8만원 (부산문화회관 정기회원 10% 할인) 예매처 | interpark 티켓 문의 | STUDIO DUZON 02-514-0280~1



Day 1  
9.01.(금)

2023 부산시민회관 개관 50주년 기념공연  
부산 인터내셔널 뮤직 페스타  
BUSAN INTERNATIONAL  
MUSIC FESTA *Diva in Jazz*

9.01.(금) 7pm / 9.02.(토) 3pm  
시민회관 대극장

9.01.(금)  
이은미 with 민경인 트리오  
위나 & 조윤성 트리오  
최은아 첼렐트



Day 2  
9.02.(토)

9.02.(토)  
말로  
시호 & 시게키  
이효정밴드



티켓  
R석 80,000원 / S석 50,000원 / A석 30,000원 (금, 토 동시예매시 40% 할인)

관람연령  
만 7세 이상

애매문의 부산시민회관 or 인터파크  
www.bscc.or.kr / 051) 607. 6000(ARS1번)



World EXPO 2030  
BUSAN, KOREA



안드라스 쉬프  
ANDRÁS SCHIFF  
10월 4일(수)



유자 왕  
YUJA WANG  
11월 28일(화)



크리스티안 짐머만  
KRYSTIAN ZIMERMAN  
12월 27일(수)

# 2023 *World Pianist*

## 월드 피아니스트 시리즈

### 부산문화회관 대극장

정기회원 선예매 **7.25. TUE**

일반 예매 **7.26. WED**

주최  부산문화회관 주관  mast media

티켓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  Interpark 티켓 1544-1555 문의  부산문화회관 051-607-6000(ARS 1번)